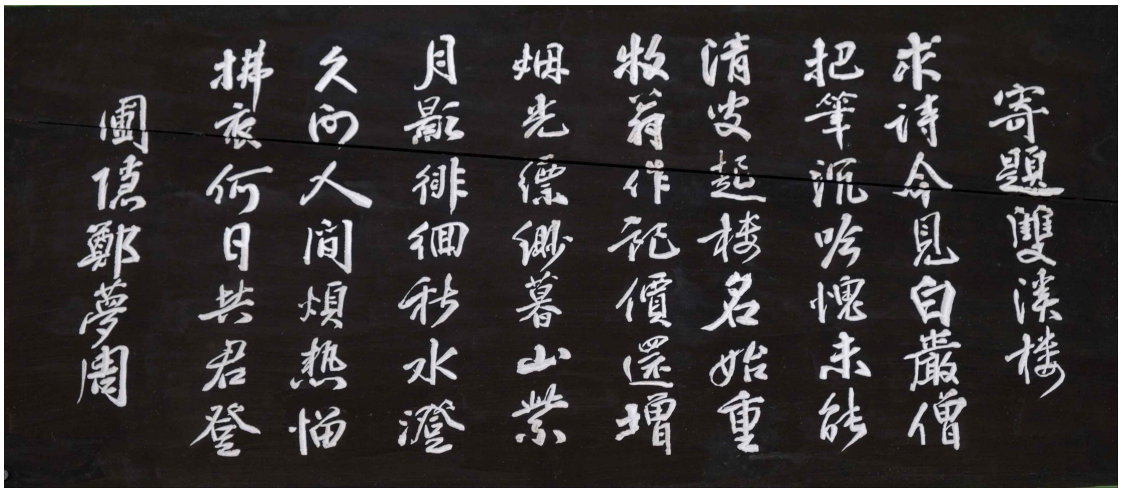
쌍계루 제영시(題詠詩)

1.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제영시[1)]

시 제목: 쌍계루에 시를 지어 붙이다[寄題雙溪樓]



求詩今見白巖僧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보니
구시금견백암승
把筆沉吟愧未能　붓을 잡고 읊조리매 재능 없어 부끄럽네
파필침음괴미능
清叟起樓名始重　청수[2)]가 누각 세워 비로소 이름 중해졌고
청수기루명시중
牧翁作記價還增　목옹[3)]이 기문 짓자 값이 더욱 높아졌네

---

1) 정몽주 문집인《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권2에도 이 시가 실려 있다. 문집에는〈장성 백암사 쌍계루에 시를 지은 뒤 부쳐 보내다[長城白嵓寺雙溪寄題]〉라는 제목이 붙여 있다.

2) 청수(淸叟) : 초명은 군보(君保)이시고 이름은 징(澄)이며, 호는 매촌(梅村) 이었으나 출가하시여 법명(法名)이 청수(淸叟), 법호(法號)가 운암대사(雲菴大師)이다. 청수는 고려 때 왕사(王師)인 각엄존자(覺儼尊者)의 조카로, 각엄존자를 모시다가 백양사의 주지를 지냈다. 경술년(1370) 비바람에 쌍계루가 무너지자 중수하고, 목은 이색(李穡, 1328 ~ 1396)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쌍계루'는 이색이 기문을 짓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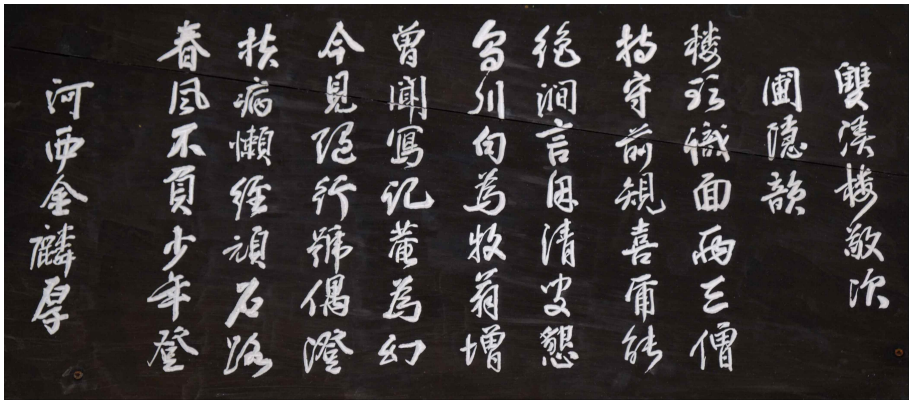
3) 목옹(牧翁) : 목은 이색(李穡)을 가리킨다. 청수 스님의 부탁으로〈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長城縣白巖寺雙溪樓)〉을 지어 주었다. 이색은 고려 말기의 문신 · 학자(1328~1396)이다.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찬성사 곡(穀)의 아들로 이제현(李齋賢)의 문인이다.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1351년(충정왕 3)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귀국하여 1352년(공민왕 1) 전제(田制)의 개혁, 국방계획,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당면한 여러 정책의 시정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올렸다. 벼슬은 좌승선 · 지병부사(知兵部事) · 우대언 · 지군부사사(知軍簿司事) · 동지춘추관사 · 보문각과 예문관의 대제학 및 판개성부사 등을 지냈다. 대사성이 되어 대사성이 되어 국학의 중영(重營)과 더불어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金九容) · 정몽주(鄭夢周) · 이숭인(李崇仁)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여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그는 스승 이제현과 쌍벽을 이루는 대문장가였다. 문장이 우유유여(優遊有餘)하고, 혼후무애(渾厚無涯)하며 변화무쌍 하면서도 인의(仁義)에 근본을 두었다는 평을 얻었다. 그의 문학은 조선 중엽까지 200여 년간의 문풍(文風)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그의 문학에 대한 그 시기 문인들의 존경이 대단해서 동국 문장의 으뜸으로 삼기도 했다. 저서에《목은시고(牧隱詩藁)》,《목은문고(牧隱文藁)》따위가 있다.

목옹작기가환증
烟光縹緲暮山紫　안개가 아득하니 저녁 산은 붉은빛이고
연광표묘모산자
月影徘徊秋水澄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시내물이 맑구나
월영배회추수징
久向人間煩熱惱　오랫동안 속세에서 번뇌로 시달렸으니
구향인간번열뇌
拂衣何日共君登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오를까
불의하일공군등

* 정몽주 : 1337년(충숙왕 복위 6)~1392년(공양왕 4). 고려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 영일(迎日). 자 달가(達可). 호 포은(圃隱). 시호 문충(文忠). 영천(永川)에서 태어났다. 의창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유학을 보급하였으며, 성리학에 밝았다. 《주자가례》를 따라 개성에 5부 학당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진흥을 꾀했다. 명나라를 배척하고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자는 정책에 반대하고, 끝까지 고려를 받들었다. 정도전(鄭道傳) · 이성계 같은 역성혁명파와 뜻을 같이 했지만,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데는 반대하여, 이성계 세력에게 사살되고 말았다. 시문에도 뛰어나 시조 〈단심가(丹心歌)〉 외에 많은 한시가 전해지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문집에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2.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제영시[1)]

시 제목: 쌍계루의 포은의 시를 공경히 차운하다[雙溪樓 敬次圃隱韻]



樓頭識面兩三僧　누각 위에 얼굴 아는 몇몇 승려들
누두식면양삼승

持守前規喜爾能　능히 예전 법규를 지키니 기쁘구나
지수전규희이능

絶澗言因淸叟懇　절간의 말[2)]은 청수[3)]의 간청 때문이고
절간언인청수간

烏川句爲牧翁增　오천[4)]의 시구는 목옹 위해 더해졌네
오천구위목옹증

曾聞寫記巖爲幻　환암[5)]이 기문 썼다 일찍이 들었는데
증문사기암위환

今見隨行號偶澄　이제 수행한 분 우연히 법호가 징(澄)일세[6)]
금견수행호우징

扶病懶經頑石路　병든 몸 부축해 돌길을 더디게 지나니
부병나경완석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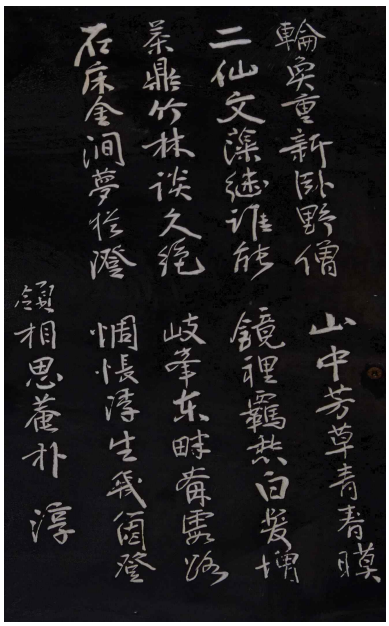
春風奈負少年登　어찌 소년 시절 봄날에 오르지 않았을까
춘풍내부소년등

---

1) 이 시는 김인후 문집인 《하서선생전집속편(河西先生全集續編)》에도 실려 있다. 〈쌍계루 포은시에 경차하다(雙溪樓敬次圃隱韻)〉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2) 절간의 말 : 절간(絶磵) 윤공(倫公)은 조계(曹溪)의 선승(禪僧)으로 이색과 친밀하였다. 청수(淸叟) 스님이 절간 윤공을 통하여 목은 이색에게 누대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이색이 〈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長城縣白巖寺雙溪樓)〉을 지어 보냈다.
3) 청수: 쌍계루를 중수한 백양사 스님.
4) 오천(烏川) : 포은 정몽주의 호이다.
5) 환암(幻庵) : 1352 ~ 1392. 고려 말 · 조선 초의 승려. 속성(俗姓)은 조(趙). 자는 무작(無作). 13세 때에 나옹(懶翁)을 따라 불법(佛法)을 배웠고, 글씨를 잘 썼음으로 이름이 높았다. 나라에서는 국사(國師)로 봉하여 대조 계종사(大曹溪宗師) · 선교도총섭(禪敎都摠攝) · 오불심종흥자운비 복국이생 묘화무궁도대선사정편지웅존자(悟佛心宗興慈運悲福國利生妙化無窮都大禪師正遍智雄尊者)의 호를 내렸다.
6) 김인후 선생이 현재 쌍계루에 만난 스님이 '징(澄)'의 법호를 쓰신 분인데, 우연히 이 스님의 법호가 예전 쌍계루를 중수한 청수(淸叟) 스님과 일치함을 말한 것이다.

* 김인후 : 1510(중종 5)~1560(명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 울산. 자 후지(厚之). 호 하서(河西)·담재(澹齋). 시호 문정(文正). 1510년 전라도 장성현 대맥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5대조 김온(金穩)은 서울에서 살았으나 세자 책봉에 연루되어 사사되자 가족들은 전라도 장성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김안국(金安國)의 제자로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李滉)과 함께 학문을 닦고 1540년(중종 35) 문과에 급제,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등을 지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난 후에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長城)에 돌아가 성리학의 연구에 정진, 누차 교리(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남원의 노봉서원(露峯書院), 옥과(玉果)의 영귀서원(詠歸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하서전집(河西全集)》이 있다.

3. 영상(領相) 사암(思菴) 박순(朴淳) 제영시[1)]



輪奐重新臥野僧　아름답게[2)] 중수하여 스님 누웠는데
윤환중신와야승
二仙文藻繼誰能　두 신선의 시문을 누가 이을 수 있으랴
이선문조계수능
山中芳草靑春暮　산중의 방초는 푸른 봄이 저물어가고
산중방초청춘모
鏡裏鬟愁白髮增　풍광 속 나그네 시름에 백발만 더하네
경리기수백발증
茶鼎竹林談久絶　죽림의 차 솥 곁 담소는 오래전 끊겼지만
다정죽림담구절
石床金澗夢猶澄　금빛 시내 돌 침상의 꿈은 여전히 맑구나
석상금간몽유징
岐峯東畔煙霞路　기봉의 동쪽 가 안개 노을 자욱한 길을
기봉동반연하로
惆悵浮生幾箇登　서글프다 덧없는 삶 몇 번이나 오르려나
추창부생기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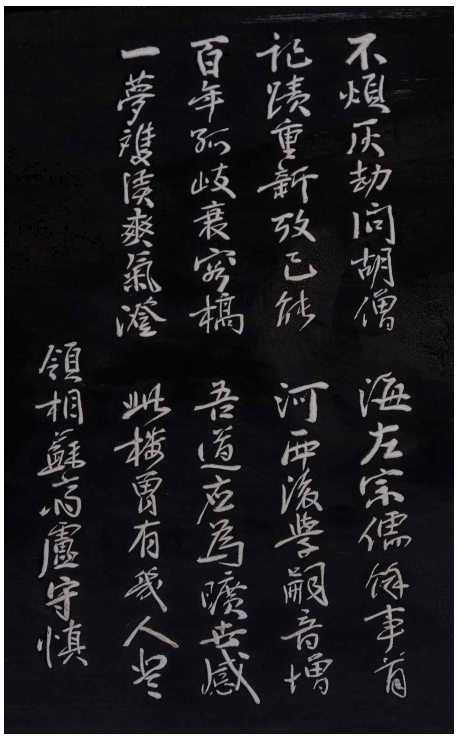
---

1) 이 시는 박순의 문집인 《사암선생문집(思菴先生文集)》 권3에도 실렸다. 〈백암사 쌍계루에 시를 지어 보내다. 포은선생의 판상 위의 시에 차운하다.[寄題白巖雙溪樓 次圃隱先生板上韻]〉라는 제목이 문집에는 남아 있다.

2) 아름답게[輪奐] : '윤환(輪奐)'은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건물이 낙성된 것을 축하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진(晉)나라 헌문자(憲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이때 장로(張老)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아름답도다. 제사 때에도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사 때에도 여기에서 곡읍을 하고, 연회 때에도 여기에서 국빈과 종족을 모아 즐기리로다.[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하니, 헌문자가 장로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군자들이 축사와 답사를 모두 잘했다고 칭찬한 고사가 전한다. 《예기(禮記)》 〈단궁(檀弓)〉

* 박순(朴淳) : 1523(중종 18)~1589(선조 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충주, 자 화숙(和叔), 호 사암(思菴), 시호 문충(文忠),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다. 1553년(명종 8)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장원, 전적(典籍)·수찬(修撰)·사인(舍人) 등을 지냈다. 1555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그 뒤 한산군수(韓山郡守)·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하였다. 1572년(선조 5) 영의정에 올라 14년간 재직하였다. 극심한 동서당쟁(東西黨爭) 속에서 이이(李珥)·성혼(成渾)을 편에 섰다가 서인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은거하였다. 시(詩)·문(文)·서(書)에 모두 뛰어났으며, 시는 당시풍(唐詩風)을 따랐고, 글씨는 송설체(松雪體)를 잘 썼다. 개성 화곡서원(花谷書院), 광주(光州) 월봉서원(月峰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문집《사암문집(思菴文集)》이 있다.

4. 영상(領相)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제영시[1)]



不煩灰刼問胡僧　번거롭게 겁회를 호승에게 물을 것 없나니[2)]
불번회겁문호승
記蹟重新攷可能　중건의 사적을 기문으로 고찰할 수 있다네
기적중신고가능
海左宗儒餘事首　동방의 높은 유자[3)]께서 여흥으로 시를 남겼고
해좌종유여사수
河西後學嗣音增　후학 하서 선생이 시를 이어 값을 더했네
하서후학사음증
百年孤岐衰容槁　백년 외로운 갈림길에 쇠한 용모 메말랐건만
백년고기쇠용고
一夢雙溪爽氣澄　쌍계루 하룻밤 꿈에 상쾌한 기운 맑구나
일몽쌍계상기징
吾道應爲曠世感　우리 선비들 응당 격세지감을 느낄 터이니
오도응위광세감

---

1) 《소재선생문집(穌齋先生文集)》 권4, 〈차운하여 쌍계루에 시를 지어 보내다(次韻寄題雙溪樓)〉라는 시가 실려 있다. 또 제목 아래 "임술년(1562) 2월에 승려 성진(性眞)이 소매에서 〈백암사사적(白巖事蹟)〉을 가지고 방문해서, 포은(정몽주)와 하서(김인후)의 시를 보았다."라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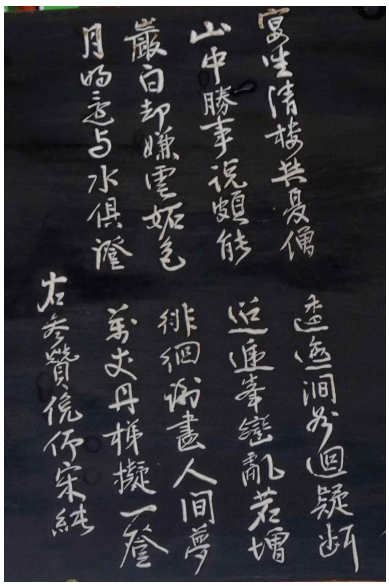
2) 겁회를 호승에게 묻는다는 말은 고사가 있다. 한 무제(漢武帝) 초에 곤명지(昆明池)를 파니 땅속에서 검은 재가 나왔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동방삭(東方朔)이 보고 "서역(西域) 사람이 알 것이다." 하였는데, 명제(明帝) 때 인도에서 온 승려가 보고 겁회(劫灰)라 하였다. 겁회는 우주가 한 번 생성해서 존속하는 기간을 1겁(劫)이라 하고, 겁이 다하여 우주가 괴멸하는 시기를 괴겁(壞劫)이라 하는데 이때 세찬 불길이 하늘과 땅을 태우는데, 그 타고 남은 재를 '겁회'라고 한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겁회는 쌍계루의 지나온 자취를 의미한다. 《삼보황도(三輔黃圖)》 〈지소(池沼)〉

3) 동방의 높은 유자 : 쌍계루 누정의 첫 수를 남긴 포은 정몽주를 말한다.

此樓曾有幾人登　이 누각에 일찍이 몇 사람이나 올랐던가
차루증유기인등

* 노수신(盧守愼) : 1515(중종 10)~1590(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 광주(光州). 자 과회(寡悔). 호 소재(蘇齋) ·이재(伊齋) ·암실(暗室) ·여봉노인(茹峰老人). 시호 문의(文懿) · 문간(文簡). 1531년(중종 26) 이연경(李延慶)의 사위로 문하생이 되고, 1543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1544년 시강원(侍講院) 사서가 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대윤(大尹)으로서 정언(正言)이 되었다. 1547년(명종 2)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순천(順天)에 유배되었다.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으로 가중 처벌되어 진도(珍島)로 이배, 19년 동안 귀양살이하였다. 1565년 다시 괴산(槐山)으로 옮겼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풀려서 교리(校理)에 기용되어 대사간 ·부제학 ·대사헌 ·이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1573년(선조 6) 우의정, 1578년에 좌의정, 1585년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문장과 서예에 능하였고, 양명학(陽明學)을 연구하여 주자학파(朱子學派)의 공격을 받았으며, 휴정(休靜) · 선수(善脩) 등과도 교제하여 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충주의 팔봉서원(八峰書院),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 봉산서원(鳳山書院),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 진도의 봉암사(鳳巖祠) 등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소재집(蘇齋集)》이 있다.

5. 우참찬(右參贊) 면앙(俛仰) 송순(宋純)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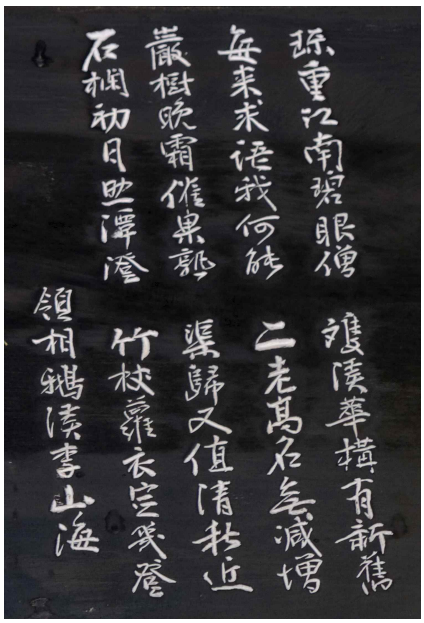
宴坐淸樓共夏僧　맑은 누각 여름철 스님과 편히 앉으니
연좌청루공하승
山中勝事說猶能　산중에 좋은 일을 잘 이야기 해주네
산중승사설유능
逶迤澗曲迴疑斷　시내는 돌아 흘러 끊겼는지 의심되고
위이간곡회의단
迢遞峯巒亂若增　멀리 어지러운 산들은 더욱 늘어난 듯
초체봉만란약증
巖白却嫌雲妬色　바위의 흰 빛은 구름조차 질투하는 듯
암백각혐운투색
月明還與水俱澄　달은 밝은데 더욱 시내와 함께 맑구나
월명환여수구징
徘徊謝盡人間夢　천천히 거닐며 속세의 꿈 모두 버리고
배회사진인간몽
萬丈丹梯擬一登　만길 붉은 사다리[2)]에 한번 오르고 싶네
만장단제의일등

* 송순(宋純) : 1493(성종 24)~1582(선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조선 중기 때의 문신. 면앙정가단의 창설자이자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이다. 담양출생이다.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수초(遂初) 또는 성지(誠之), 호는 기촌(企村) 또는 면앙정이다.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20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33년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1537년 다시 벼슬하여 사헌부집의, 홍

1) 이 시는 송순의 《면앙집(俛仰集)》 권3에 〈백암사 쌍계루에서 포은 선생에 시에 경차하다[白巖寺雙溪樓 敬次圃隱先生韻]〉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 아래에 "장성(長城)에 있고, 목은[이색]이 기문(記文)을 지었고, 포은이 처음으로 시를 짓다[在長城地 牧隱作記 圃隱首題]"라고 기록했다.
2) 붉은 사다리[丹梯] : 신선 세계를 찾아가는 산길을 말한다.

문관부제학, 충청도어사, 경상도관찰사, 사간원 대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등의 요직을 지냈다. 1547년(명종 2)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중종실록》을 찬수하였다. 그해 5월에 주문사로 북경에 다녀와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1552년 선산도호부사가 되고, 이해에 면앙정을 증축하였다. 이때 기대승이 〈면앙정기〉를 쓰고 임제(林悌)가 부(賦)를, 김인후(金麟厚) · 임억령(林億齡) · 박순(朴淳) · 고경명(高敬命) 등이 시를 지었다. 그가 지은 면앙정은 그가 41세 때 담양의 제월봉 아래에 세운 정자로서 호남제일의 가단(歌壇)을 형성하였다. 여기에는 임제 · 김인후 · 고경명 · 임억령 · 박순 · 이황 등 많은 인사들이 출입하여 시 짓기를 즐겼는데, 특히 그는 〈면앙정삼언가〉 · 〈면앙정제영(俛仰亭題詠)〉 등 수많은 한시(총 505수, 부1편)와 국문시가인 〈면앙정가〉 9수, 단가(시조) 20여수를 지어 조선 시가문학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집으로는 《면앙집》이 있다. 담양 구산사(龜山祠)에 배향하였다.

6. 영상(領相)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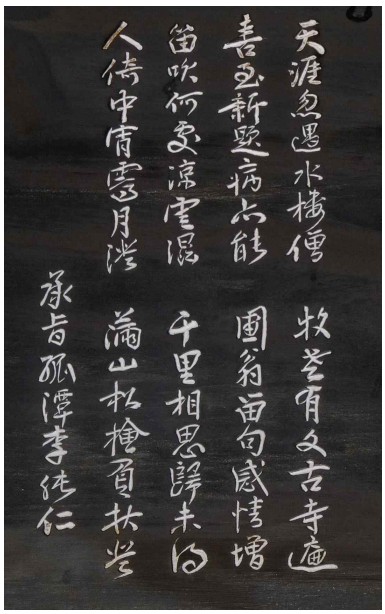
珍重江南碧眼僧　진중하신 강남의 눈 푸른 스님이여
진중강남벽안승
每來求語我何能　매번 시를 구하나 내가 어찌 능하랴
매래구어아하능
雙溪華構有新舊　쌍계의 화려한 누각은 신구가 있지만
쌍계화구유신구
二老高名無減增　두 원로[1]의 높은 명성은 변함이 없네
이로고명무감증
巖樹晩霜催果熟　백암 숲 늦서리는 과일 익기 재촉하고
암수만상최과숙
石欄初日照潭澄　돌난간 아침햇살은 연못을 맑게 비춘다
석란초일조담징
渠歸又値淸秋近　스님 돌아갈 제 마침 청추가 가까우니
거귀우치청추근
竹杖蘿衣定幾登　죽장과 청라 옷으로 몇 번이나 오르실까
죽장라의정기등

* 이산해(李山海) : 1539(중종 34)~1609(광해군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한산(韓山)이며 자는 여수(汝受), 호 아계(鵝溪)·종남수옹(綜南睡翁), 시호 문충(文忠)이다. 1539년(중종 34) 목은 이색의 7대손이다. 그의 숙부가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함(李之菡)으로 그에게 학문을 배웠다. 1561년(명종 16)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정원과 홍문관 수찬, 대사간, 병조참판 형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등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정여립의 기축옥사 사건 때 동인으로서 서인 모두를 문책해야 한다는 강경파적인 입장에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여 개성에 당도하였으나 사헌부, 사간원 양사(兩司)로부터 국정(國政)을 그르치고 왜적(倭敵)을 들

1) 두 원로 : 쌍계루의 기문을 쓴 목은 이색과 쌍계루의 첫 수를 쓴 포은 정몽주를 말한다.

어오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백의(白衣)로 평양에서 다시 탄핵을 받아 강원도에 귀양 갔다가 1595년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로 복관되고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글씨를 잘 써서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서화(書畵)에 능하여 대자(大字)와 산수묵도(山水墨圖)에 뛰어났다. 선조 때 문장 8가(文章八家)라 일컬었다. 저서로 《아계유고(鵝溪遺稿)》가 있고, 글씨에 《조정암광조묘비(趙靜庵光祖墓碑》가 있다.

7. 승지(承旨) 고담(孤潭) 이순인(李純仁)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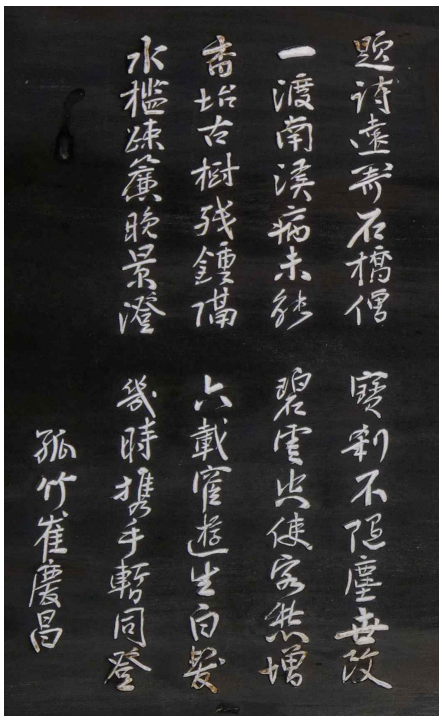


天涯忽遇水樓僧　천애에서 홀연히 쌍계루 스님을 만나니
천애홀우수루승
喜至新題病亦能　오신 것이 기뻐 병중에도 시를 썼노라
희지신제병역능
牧翁有文古寺遍　목옹이 남긴 기문은 옛 절에 퍼졌고
목옹유문고사편
圃翁留句感情增　포옹이 남긴 시구는 감정을 더하누나
포옹유구감정증
笛吹何處凉雲濕　젖은 가을구름 어디선가 들리는 피리소리
적취하처량운습
人倚中霄霽月澄　한 밤의 맑은 달빛에 사람은 누각에 기대었네
인의중소제월징
千里想思歸未得　천리 먼 길에서 그리워하며 가지 못하니
천리상사귀미득
滿山松檜負秋登　산 가득 솔과 전나무인데 가을 등반 저버렸네
만산송회부추등

* 이순인(李純仁) : 1533(중종 28)~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백생(伯生)·백옥(伯玉)이며, 호는 고담(孤潭)이다. 이중호(李仲虎)에게 학문을 배우고 이황(李滉)·조식(曺植)의 문하에 종유(從遊)하였으나, 이후 이이(李珥)·성혼(成渾)·송익필(宋翼弼) 등 서인 인물들과 많이 교유하였다. 1564년(명종 19)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572년(선조 5) 문과별시에 급제한 후 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정언·사헌부지평·응교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예조참의로 왕비와 세자를 호종하다가 선천(宣川)에서 병사하였다. 시문에 뛰어나 이산해(李山海) · 최경창(崔慶昌) · 송익필(宋翼弼) · 최립(崔岦) · 백광훈(白光勳) · 윤탁연(尹卓然) · 하응림(河應臨) 등과 함께 8문장으로 불렸고, 글씨도 잘 써 초서에 뛰어났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

고 전릉군(全陵君)에 봉해졌으며, 여산(礪山: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의 봉곡사(鳳谷祠)에 배향되었다. 저서에《고담일고(孤潭逸稿)》2책이 있다.

8.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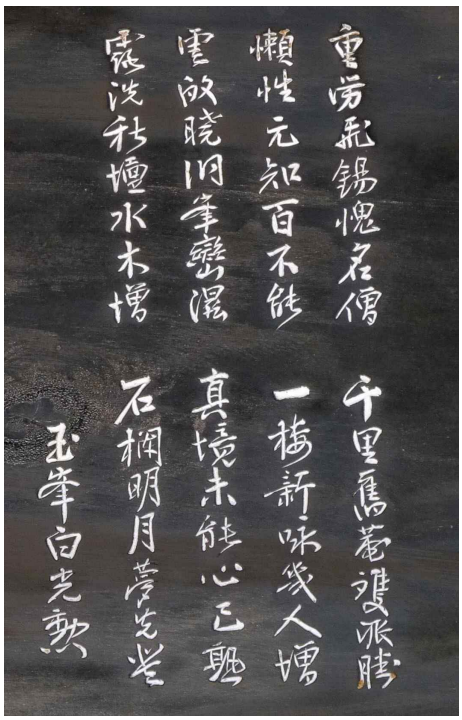
題詩遠寄石橋僧　시를 지어 멀리 석교의 스님에게 보내니
제시원기석교승
一渡南溪病未能　병으로 남쪽 시내 한 번도 건너지 못했네
일도남계병미능
寶刹不隨塵世改　아름다운 사찰은 속세 따라 변치 않으니
보찰부수진세개
碧雲空使客愁增　푸른 구름만 속절없이 객의 시름 더하네
벽운공사객수증
香臺古樹殘鍾隔　향대의 고목 너머로 새벽 종이 들려오고
향대고수잔종격
水檻踈簾晩景澄　물가 난간 성긴 발에 저녁 풍경 맑구나
수함소렴만경징
六載宦遊生白髮　육년간의 벼슬살이에 백발만 늘어났으니
육재환유생백발
幾時携手暫同登　어느 때 손을 잡고 잠시 함께 올라볼까
기시휴수잠동등

* 최경창(崔慶昌) : 1539년(중종 34)~1583년(선조 16).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 전라도 영암 출생. 최충(崔沖)의 18대손이며 최자(崔滋)의 13대손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이다. 최경창은 백광훈(白光勳) · 이후백(李後白)과 함께 양응정(梁應鼎)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1555년(명종 10) 17세 때에 을묘왜란으로 왜구를 만나

1) 최경창의 문집인 《고죽유고(孤竹遺稿)》에 〈쌍계루 승축(雙溪僧軸)〉에 포은 선생의 시를 차운하다[雙溪僧軸 次圃隱韻]〉라는 제목의 시가 실렸다.

자, 퉁소를 구슬피 불어 왜구들을 향수에 젖게 하여 물리쳤다는 일화가 있다. 1568년(선조 1)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북평사(北評事), 사간원정언, 영광군수, 종성부사(鍾城府使)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고죽유고》가 있다. 최경창은 학문과 문장에 능하여 이이(李珥) · 송익필(宋翼弼) · 최립(崔岦) 등과 무이동(武夷洞)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당시(唐詩)에 뛰어나 백광훈 ·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렸다. 그의 시는 청절하고 담백하다는 평을 얻었다. 문장에도 뛰어나 이이·송익필 등과 함께 8문장으로 일컬어졌다. 서화에도 뛰어났다.

9.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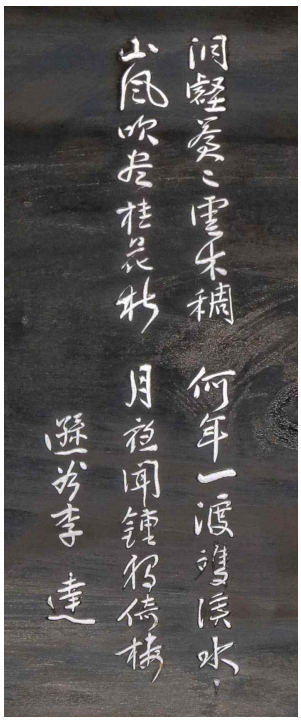
重勞飛錫愧名僧　두 번이나 찾아오신 스님께 부끄러우니
중로비석괴명승
懶性元知百不能　게으른 성품 원래 한 가지도 능치 못하네
나성원지백불능
千里舊菴雙派勝　천리 먼 길 옛 암자에 쌍계가 명승지이니
천리구암쌍파승
一樓新詠幾人增　한 누각에 몇 사람이나 새 시를 더했는고
일루신영기인증
雲歸曉洞峯巒濕　새벽 동구로 돌아온 구름에 봉우리 젖었고
운귀효동봉만습
露洗秋壇水木澄　가을 제단 이슬에 씻겨 물과 나무 깨끗해라
노세추단수목징
眞境未能心已熟　진경은 가지 못했으나 마음은 이미 익숙하니
진경미능심이숙
石欄明月夢先登　돌난간 밝은 달빛에 꿈속에서 먼저 오르네
석란명월몽선등

* 백광훈(白光勳) : 1537년(중종 32)~1582년(선조 15).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창경(彰卿), 호는 옥봉(玉峯). 아버지는 백세인(白世仁)이며, 어머니는 광산김씨 첨정 김광통(金廣通)의 딸이다. 형인 백광안(白光顔)과 백광홍(白光弘) 및 종제 백광성(白光城) 등 한 집안 4형제가 모두 문장으로 칭송을 받았다. 박순(朴淳)의 문인으로 13세에 상경하여 양응정

1) 백광훈의 문집인 《옥봉시집》에 〈쌍계루 시에 차운하여 성진 선사에게 주다[次雙溪樓韻 贈性眞師]〉라는 시가 남아 있다.

(梁應鼎) · 노수신(盧守愼) 등에게 수학하였다. 1564년(명종 19)에 진사가 되었다. 1572년(선조 5) 명나라 사신이 오자 노수신을 따라 백의(白衣)로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시재(詩才)와 서필(書筆)로써 사신을 감탄하게 하여 백광선생(白光先生)의 칭호를 얻었다. 1577년 처음으로 선릉참봉(宣陵參奉)으로 관직에 나서고 이어 정릉(靖陵) · 예빈시(禮賓寺) · 소격서(昭格署)의 참봉을 지냈다. 그는 최경창(崔慶昌) ·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불리었는데, 송시(宋詩)의 풍조를 버리고 당시(唐詩)를 따르며 시풍을 혁신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일컬었다. 이정구(李廷龜)는 그의 문집 서(序)에 손꼽히는 호남시인으로 특히 절구(絶句)를 잘하여 당나라의 천재시인 이하(李賀)에 비견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의 시는 천기(天機)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판 받았다. 그는 이산해(李山海) · 최립(崔岦) 등과 더불어 팔문장(八文章)의 칭호를 들었다. 글씨에도 뛰어나, 영화체(永和體)에 빼어났다. 죽은 뒤 1590년 강진(康津)의 서봉서원(瑞峰書院)에 제향 되었고, 저서로는《옥봉집》이 있다.

10. 손곡(孫谷)[1] 이달(李達)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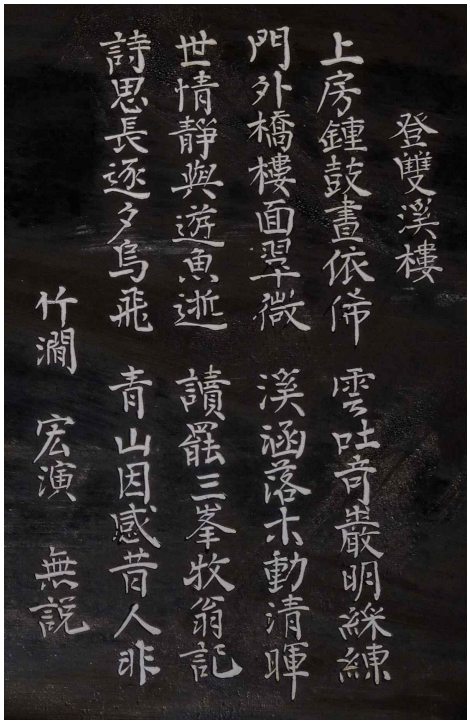
洞壑蒼蒼雲木稠　골짜기는 푸르고 구름 숲 빽빽한데
동학창창운목조
山風以盡桂花秋　산바람에 계수 꽃 날리는 가을일세
산풍이진계화추
何年一渡雙溪水　어느 해나 한 번 쌍계수를 건너서
하년일도쌍계수
月夜聞鍾獨倚樓　달밤 종소리에 홀로 누각에 기댈까
월야문종독의루

* 이달(李達) : 1539년(중종 34)~1612년(광해군 4). 조선 중기의 시인.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 동리(東里), 서담(西潭). 본관은 홍주(洪州). 어려서부터 문장에 능하여 선조 때 한 리학관이 된 적이 있으며, 원접사(遠接使) 종사관(從事官)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 시절 정사룡(鄭士龍)에게 두보(杜甫)와 소식(蘇軾)의 시를 배웠고, 특히 소식의 시를 좋아하였으나, 박순(朴淳)의 문하에서 시를 배워 당시풍(唐詩風)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수광(李睟光)과 오래 사귀었으며, 한호(韓濩), 고경명(高敬命), 양대박(梁大樸)과도 절친하였다. 특히 백광훈(白光勳), 최경창(崔慶昌)과 친하여 여러 차례 시회를 갖고 또 그들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일컬어졌다. 허균(許筠)이 시 제자로 자처하였다. <산사(山寺)>, <양양곡(襄陽曲)>, <만랑무가(漫浪舞歌)> 등이 대표작이다. 글씨에도 조예가 깊었다. 문집에 《손곡집(蓀谷集)》이 있다.

1) 이달의 호는 손곡(蓀谷)인데, 현판에는 '손곡(遜谷)'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현판 글씨를 따른다.

11. 죽간(竹澗) 굉연무열(宏演無說) 선사 제영시

시 제목: 쌍계루에 오르다[登雙溪樓]



上房鍾鼓晝依俙　상방[1]의 종고 소리는 낮에도 어렴풋한데
상방종고주의희

門外橋樓面翠微　문 밖 석교와 쌍계루는 푸른 산 마주했네
문외교루면취미

雲吐奇巖明綵練　기암이 구름 속에 나와 채색비단처럼 밝고
운토기암명채련

溪涵落木動淸暉　시내는 낙엽 머금어 맑은 빛이 일렁이네
계함낙목동청휘

世情靜與遊魚逝　세속의 정은 고요히 물고기 함께 흘러가고
세정정여유어서

詩思長逐夕烏飛　시상은 유장하게 저녁 까마귀 따라 나네
시사장축석오비

讀破三峯木翁記　삼봉[2]과 목옹[3]의 기문을 다 읽고 나니
독파삼봉목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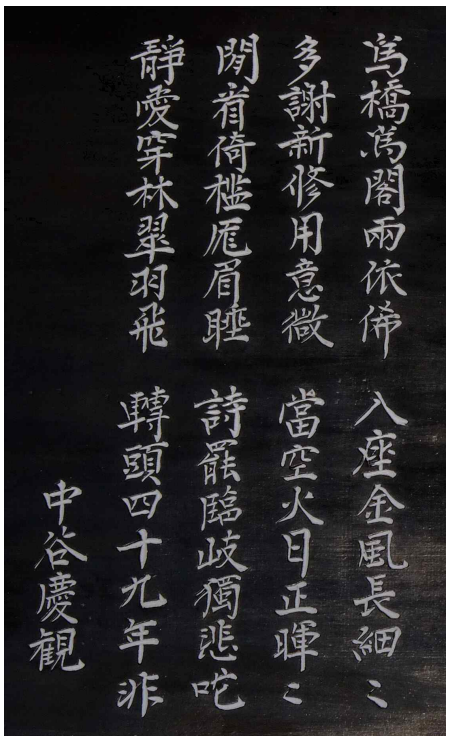
靑山因感昔人非　푸른 산 빛에 옛 사람이 없음을 느끼노라
청산인감석인비

---

1) 상방(上房): 사찰의 주지(主持)가 거처하는 곳으로, 보통 사찰을 뜻한다.
2) 삼봉 : 삼봉(三峯)은 정도전(鄭道傳)은 호이다. 정도전이 쌍계루에 〈백암산 정토사 교루 기문(白巖山淨土寺橋樓記)〉을 남겼다.
3) 목옹 : 목옹은 목은 이색을 말한다. 이색은 청수 스님의 부탁을 받아 〈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長城縣白巖寺雙溪樓)〉를 지었다.

* 굉연무열(宏演無說) 선사 : 생몰년 미상. 고려시대 승려. 자가 무열(無說)이고, 호는 죽간(竹澗)이다. 원나라에 들어가 구양현(歐陽玄: 1273~1357), 위소(危素: 1303~1372)와 교유하였는데, 시가 매우 웅건하였다. 구양현이 서문을 지어 이르기를 “굉연의 고체는 사기(辭氣)가 깊고 온아하면서도 정채롭되 어지럽지 않았다. 칠언율시는 맑고 부드러우면서 전아하고 아름답다.” 라고 했으며, 위소가 평하여 말하기를 “굉연은 사람됨이 비루한 것을 탐하여 명예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선(禪)을 기뻐하는 여가에 글짓기를 좋아하였다. 이에 당대의 어진 이와 호걸들이 종종 굉연과 교유하였다.”라고 하였다. 굉연무열 선사의 시는 《동문선》에도 여러 편이 전한다.

12. 중곡경관(中谷慶觀) 선사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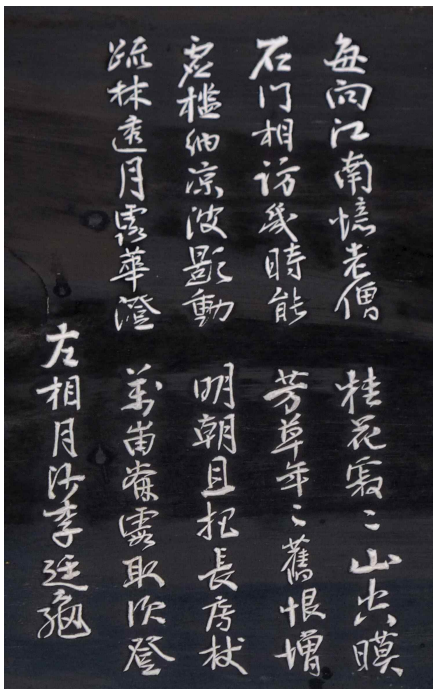


爲橋爲閣兩依俙　석교와 쌍계루 둘 다 눈에 어리는데
위교위각양의희
多謝新修用意微　새로 중수한 은미한 뜻 참으로 고마워라
다사신수용의미
入座金風長細細　가을바람은 가늘게 자리로 불어오고
입좌금풍장세세
當空火日正暉暉　태양은 허공 가운데에 정히 밝구나
당공화일정휘휘
閑看依檻厭眉睡　난간에 기대 잠든 노승 한가로워 보이고
한간의함방미수
靜愛穿林翠羽飛　숲을 뚫고 나는 비취새 가만히 사랑하네
정애천림취우비
詩罷臨岐獨悲咤　시를 짓고 갈림길에서 홀로 슬피 탄식하니
시파임기독비타
轉頭四十九年非　잠깐 사이 사십 구년을 헛되이 보냈구나[1)]
전두사십구년비

* 중곡경관(中谷慶觀) : 고려시대 국사(國師) 혼수(混脩: 1320~1392)의 시자(侍子)이다.

1) 사십 구년을 헛되이 보냈구나 : 벌써 허무하게 50세의 나이가 되었다는 말이다. 춘추 시대 위(衛)나라 대부(大夫)인 거백옥(蘧伯玉)이 “나이 오십에 49년 동안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年五十 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원도훈(原道訓)〉

13. 우상(右相)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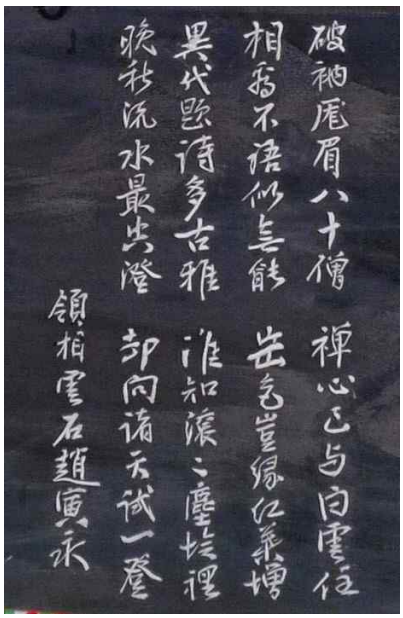
每向江南憶老僧　매번 강남의 노승을 추억하나니
매향강남억노승
石門相訪幾時能　언제나 석문으로 방문할 수 있을까
석문상방기시능
桂花寂寂空山暮　계화는 적적하여 빈산은 저무는데[2]
계화적적공산모
芳草年年舊恨增　방초는 해마다 묵은 한을 더하누나
방초년년구한증
虛檻納涼波影動　빈 누각 시원한 바람에 물결이 일렁이고
허함납량파영동
疎林透月露華澄　성근 숲 스미는 달빛에 이슬이 맑았지
소림투월로화징
明朝且把長房杖　내일 아침엔 비장방의 지팡이[3] 가지고
명조차파장방장
萬岫煙霞取次登　연하 덮인 만학천봉을 차례로 오르리라
만수연하취차등

---

1) 이 시는 이정귀의 문집《월사집(月沙集)》권18에 〈백암사(白巖寺)시에 차운하다〉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다.
2) 왕유(王維)의 〈남산으로 가는 최구 아우를 보내며[送崔九弟往南山]〉 시에, "산중에는 계화가 있으니, 꽃이 싸락눈처럼 지기 전에 돌아오라.[山中有桂花 莫待花如霰]" 하였다. 여기서는 이정귀가 옛날에 머물던 산사(山寺)에 다시 가 보지 못함을 뜻한다.
3) 비장방(費長房)의 지팡이: 후한(後漢)의 비장방(費長房)이 신선 호공(壺公)을 따라 선술(仙術)을 배운 뒤 호공이 준 죽장(竹杖)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팡이를 갈피(葛皮)란 언덕에 버렸더니 곧 용으로 화하였다 한다.《후한서(後漢書)》권82, 〈방술열전(方術列傳)〉 비장방(費長房).

* 이정귀(李廷龜) : 1564(명종 19)~1635(인조 13). 조선 중기의 문신·문인. 본관 연안(延安), 자 성징(聖徵), 호 월사(月沙) ·보만당(保晩堂) ·응암(凝菴), 시호 문충(文忠)이다. 1590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행재소(行在所)에 가서 설서(說書)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의 요청으로 《경서(經書)》를 강의하여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조천기행록(朝天紀行錄)》을 간행했고, 1608년(광해군 즉위) 병조와 예조판서를 역임하였으나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1615년 형조판서가 되고 1623년(인조 1)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에 왕을 공주(公州)에 호종하고 1627년 정묘호란 때 병조판서로 왕을 호종, 강화에 피난하여 화의에 반대하였다. 1628년 우의정이 되고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한문학의 대가로서 글씨에도 뛰어났고 신흠(申欽)·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월사집(月沙集)》이 있다.

14. 영상(領相)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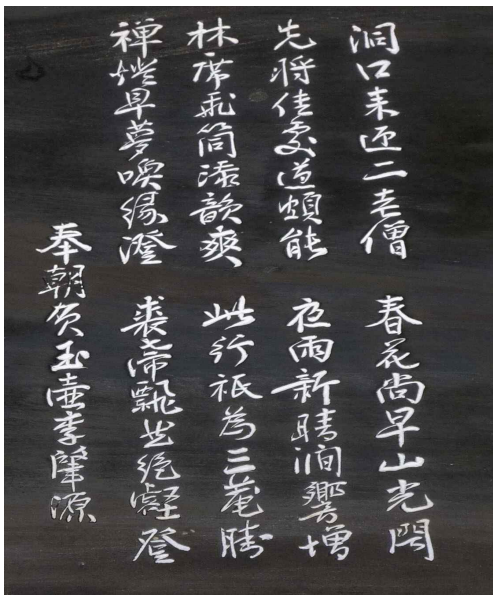
破衲厖眉八十僧　떨어진 납의에 흰 눈썹의 팔십 노승
파납방미팔십승
相看不語似無能　바라보면 말이 없어 무능한 듯 하여라
상간불어사무능
禪心已與白雲住　선심은 이미 백운과 함께 머물렀거늘
선심이여백운주
嶽色豈緣紅葉增　산색이 어찌 홍엽 때문에 더하겠는가
악색기연홍엽증
異代題詩多古雅　고려시대에 쓴 시는 고아함이 많고
이대제시다고아
晩秋流水最空澄　만추의 유수는 참으로 투명하고 맑기만
만추류수최공징
誰知滾滾塵埃裏　뉘 알았으리 자욱한 속세의 티끌 속에
수지곤곤진애리
却向諸天試一登　다시 제천을 향해 한번 오를 줄을
각향제천시일등

* 조인영(趙寅永) : 1782(정조 6)~1850(철종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풍양(豊壤). 자 희경(羲卿). 호 운석(雲石). 시호 문충(文忠). 1819년(순조 19)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급제한 뒤 응교(應敎)가 되고, 1822년 대사헌, 1826년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대사성을 지냈다. 1829년 세손부(世孫傅)가 되고, 1835년(헌종 1) 이조판서 때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가 수렴청정(垂簾廳政)하면서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풍양조씨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 해 형 만영(萬永)이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자 조씨 세도의 독무대를 이루었다. 1839년 기해교난(己亥敎難)

1) 조인영 문집《운석유고(雲石遺稿)》권2에 〈쌍계루의 앞의 운을 차운하여 양악 상인에게 주다[雙溪樓次前韻 贈羊嶽上人]〉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실려 있다.

을 일으켜 가톨릭교를 탄압하고, 우의정에 올라 척사윤음(斥邪綸音)을 찬진하여 계속 가톨릭교도를 박해하였다. 1841년(헌종 7)부터 1850년(철종 1)까지 4차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다. 1816년(순조 16)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가서 금석학(金石學)의 대가인 유연정(劉燕庭)에게 조선의 금석학 자료를 주어 연구케 하고 돌아온 뒤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의 탁본(拓本)과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 등을 보내 주었다. 문장 ·글씨 ·그림에 능하였고, 47년(헌종 13)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찬술에 관여하였다. 헌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고, 문집 《운석유고(雲石遺稿)》가 있다.

15. 봉조하(奉朝賀) 옥호(玉壺) 이조원(李肇源)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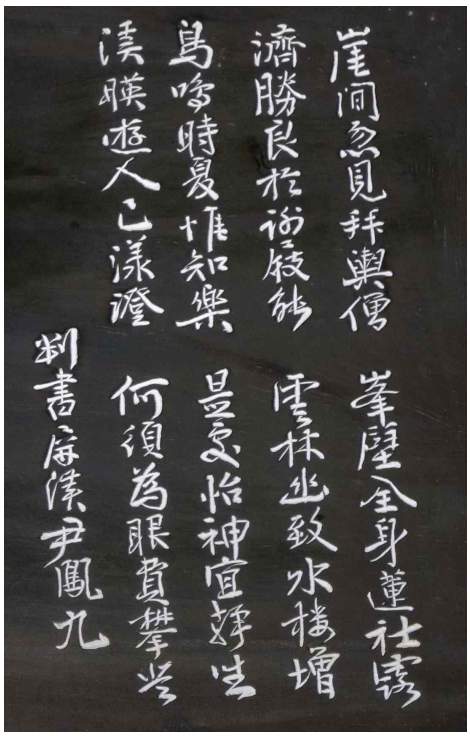
洞口來迎二老僧　동구에 마중 나온 두 노승께서
동구래영이노승
先將佳處道頗能　먼저 명승을 자못 이야기 해주네
선장가처도파능
春花尙早山光悶　봄꽃은 아직 일러 산 빛이 안타깝고
춘화상조산광민
夜雨新晴澗響增　밤비는 새로 개어 세찬 시내 소리
야우신청간향증
林席飛筒添韻爽　숲 자리의 죽통은 상쾌한 운을 더하고
림석비통첨운상
禪燈早夢喚緣澄　선등의 이른 꿈은 인연을 맑게 깨운다
선등조몽환연징
此行秖爲三菴勝　이번 행차는 세 암자의 명승 때문이니
차행지위삼암승
裘帶飄然絶壑登　구대[1]를 입고 바람처럼 절벽에 오른다
구대표연절학등

* 이조원(李肇源) : 1758(영조 34)~1832(순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경혼(景混), 호는 옥호(玉壺). 하조(賀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숭신(崇臣)이고, 아버지는

1) 구대(裘帶) : 은자의 차림을 말한다. 《열자(列子)》 〈천서(天瑞)〉편에 고사가 있다. 영계기(榮啓期)는 춘추 시대의 은사로서 가난 속에서 도(道)를 즐긴 사람이다. 공자가 태산을 유람하다가 영계기를 만났는데, 가죽옷을 입고 새끼줄을 띠로 매고[鹿裘帶索]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하고 있었다. 이에 공자가 "선생께서는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하고 묻자, 영계기가 "하늘이 만물을 냄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귀한데, 나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있어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데, 나는 이미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사람이 태어나서는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강보에 싸인 채 죽는 자도 있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90세이니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판서 민보(敏輔)이며, 어머니는 서명성(徐命聖)의 딸이다. 1792년(정조 16)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이듬해 호서암행어사로 나갔다. 이듬해 사간원정언이 되어 김종수(金鍾秀)·정만석(鄭晩錫) 등의 치죄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폈으며, 용인진위어사(龍仁振威御史)로 다녀와 대사간을 거쳐 곧 승지로 체직되었다. 순조 즉위 후 이조참의·대사간·이조참판·승지를 거쳐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이조참판이 되고 자품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 뒤 홍문관제학·우참찬·대사헌을 거쳐 한성부판윤에 올랐으며, 다시 이조판서로 재직 중이던 1816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돌아와 홍문관제학·좌빈객(左賓客)·우참찬을 거쳐 평안감사로 외보(外補)되었다가 형조판서를 배수 받았다. 1820년 판의금부사를 거쳐 좌참찬이 되었고, 이듬해 하정사(賀正使)로 청에 파견되었다. 이 후 우빈객·예문관제학·병조판서·좌빈객·호조판서·이조판서·공조판서 등 현직을 두루 지냈다. 1827년 승지 이해청(李海靑)과 양사(兩司 : 사간원·사헌부)가 1814년 순조의 병환이 위독했을 때 김기서(金基敍) · 김기후(金基厚) 등과 반역을 도모했다고 탄핵하자, 봉조하(奉朝賀)로서 무고라고 소를 올렸지만 결국 흑산도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사후 참시 당하였다. 풍양 조씨계의 당여(黨與)로 안동 김씨계와 맞서다가 끝내 희생당한 것이다. 1835년(헌종 1) 대왕대비의 명으로 신원(伸寃 : 억울하게 지은 죄를 풀어줌)되었다. 글씨를 잘 썼고, 특히 전각(篆刻)에 뛰어났다.

16. 판서(判書)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제영시



崖間忽見拜輿僧　벼랑사이 문득 수레에 절하는 스님 보니
애간홀견배여승
濟勝良於謝屐能　승경에 오르는 것 사령운의 신발[1]보다 낫네
제승양어사극능
峯壁全身蓮社露　산 절벽에 연사[2]의 전신이 드러나고
봉벽전신련사로
운림유치수루증　운림의 그윽한 흥치는 쌍계루가 더하네
운림유치수루증
鳥鳴時夏唯知樂　새는 여름에 울어 즐거운 줄을 알겠고
조명시하유지락
溪暎遊人已漾澄　시내는 나그네를 비춰 이미 맑게 일렁인다
계영유인이양징
是處怡神宜靜坐　이곳은 기쁜 마음으로 고요히 앉을 만하니
시처이신의정좌
何須爲眼費攀登　어찌 조망을 위해 수고롭게 등반하겠는가
하수위안비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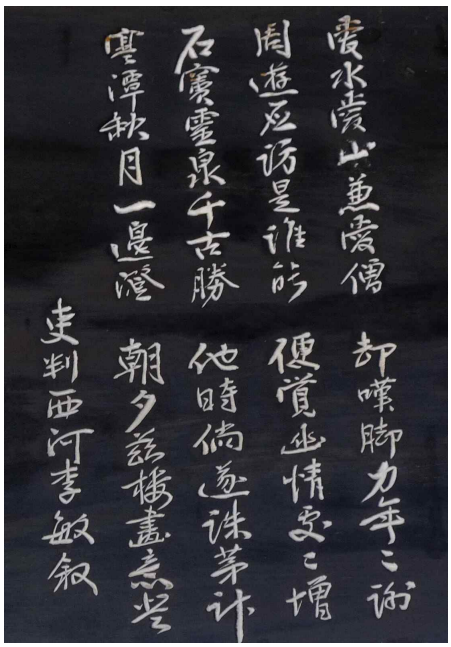
---

1) 사령운(謝靈運)의 신발 : 남조 송(南朝宋)의 시인 사영운이 명산을 유람할 적에 산을 오를 때에는 나막신[屐]의 앞굽을 떼어 버리고 산을 내려올 때에는 뒷 굽을 떼어 걷기에 편리하도록 했다는 고사가 있다. 《송서(宋書)》권67 〈사령운열전(謝靈運列傳)〉

2) 연사(蓮社) : 불교의 결사를 말한다. 동진(東晉)의 고승 혜원(慧遠)이 승속(僧俗)의 18현(賢)과 염불(念佛) 결사(結社)를 맺었는데, 그 사찰의 연못에 백련(白蓮)이 있었으므로 백련사(白蓮社) 혹은 줄여서 연사(蓮社)라고 일컫게 되었다. 《연사고현전(蓮社高賢傳)》 〈혜원법사(慧遠法師)〉

* 윤봉구(尹鳳九) : 1683(숙종 9)~1767(영조 4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屛溪) 또는 구암(久菴).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1714년(숙종 40) 진사가 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725년(영조 1) 청도군수가 되었다. 1733년 사헌부지평, 이듬해 장령(掌令)이 되었고, 1739년 집의(執義)에 이르렀다. 1741년 부호군이 되었을 때 주자(朱子)를 보은 춘추사(春秋祠)의 송시열(宋時烈) 영당에 추봉할 것을 주장하다가 삭직되었다. 1760년 대사헌에 특별 임명되었으며, 1763년 지돈녕(知敦寧)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현상벽(玄尙璧)·채지홍(蔡之洪) 등과 더불어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중심인물로 꼽힌다. 그의 생애는 사회적·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立論)에 치중했으며, 저술의 내용도 경전의 강의나 주석 및 성리설이 주를 이룬다. 저서로 《병계집(屛溪集)》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7. 이조판서(吏判) 서하(西河) 이민서(李敏敍)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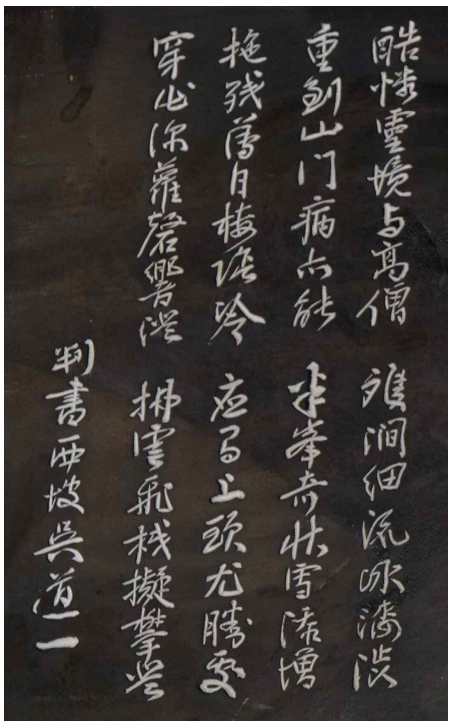
愛水愛山兼愛僧　시내와 산 사랑하고 스님까지 좋아하니
애수애산겸애승
周遊歷訪是誰能　누가 두루 노닐고 낱낱이 방문하겠는가
주유력방시수능
却嘆脚力年年謝　다리 힘이 해마다 쇠함을 탄식하지만
각탄각력년년사
便覺幽情處處增　문득 가는 곳마다 그윽한 정 느낀다네
변각유정처처증
石竇靈泉千古勝　돌 틈의 맑은 샘은 천고에 빼어나고
석두영천천고승
寒潭秋月一邊澄　차가운 못 가을 달은 한 곁에 맑구나
한담추월일변징
他時倘遂誅茅計　훗날 혹 터를 잡을 계책 이룰 수 있다면
타시당수주모계
朝夕玆樓盡意登　조석으로 이 누각에 뜻을 다해 오르리라
조석자루진의등

* 이민서(李敏敍) : 1633(인조 11)~1688(숙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이중(彛仲), 호는 서하(西河). 극강(克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록(綏祿)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경여(敬輿)이며, 어머니는 박임경(朴任景)의 딸이다. 뒤에 도정 후여(厚輿)에게 입양되었다. 서울에 살았으며 송시열(宋時烈)의 제자이다. 1652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검열·정언·지평·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초 수찬으로 있을 때 허적(許積)을 탄핵하다가 병조좌랑에 전직되었고, 검상·헌납·응교·사인·나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조와 호조의 참의를 거쳐

1) 이민서 문집《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권4에 〈백암산 정토사의 벽 위 포은 시에 차운하다[白巖山淨土寺 次壁上圃隱韻]〉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남아 있다.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병으로 사직하였다. 그 뒤 승지·대사간·대제학에 이어 공조·이조·병조·호조의 참판을 거쳐 1683년(숙종 9) 강화부유수가 되고, 예조·호조·이조의 판서를 차례로 역임한 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김수항(金壽恒)·이단하(李端夏)·남구만(南九萬) 등과 교유가 깊었다. 1677년 광주목사로 있을 때에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박광옥(朴光玉)의 사우를 중수하고, 김덕령(金德齡)을 제향하였다. 나주의 서하사(西河祠)와 흥덕의 동산서원(東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서하집》17권이 있다.

18. 판서(判書)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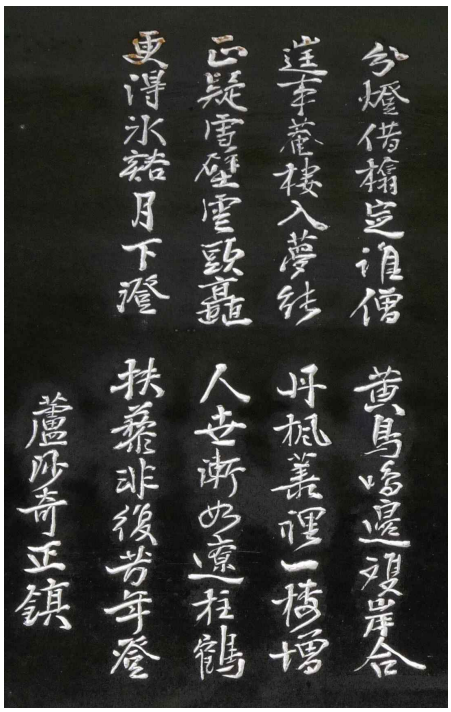
酷憐靈境與高僧　선경과 고승을 참으로 사랑하여
혹련영경여고승
重到山門病亦能　병중에도 거듭 산문에 이르렀노라
중도산문병역능
雙澗細流氷澹澀　쌍계의 작은 흐름에 얼음이 껄끄럽고
쌍간세류빙색삽
半峯奇狀雪添增　반봉의 기이한 모습 눈이 더해주네
반봉기상설첨증
拕殘薄日樓陰冷　옅은 해의 잔영에 누각 그림자 차갑고
타잔박일루음랭
穿出深蘿磬響澄　깊은 청라를 뚫고 석경소리 맑아라
천출심라경향징
應有上頭尤勝處　위에는 더욱 수승한 곳 있을 터이니
응유상두우승처
拂雲飛棧擬攀登　구름 헤치고 잔도를 걸어 등반하고자
불운비잔의반등

* 오도일(吳道一) : 1645(인조 23)~1703(숙종 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 선공감역(繕工監役) 희문(希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윤겸(允謙)이고, 아버지는 달천(達天)이며, 어머니는 조간(趙幹)의 딸이다. 1673년(현종 14)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 1680년(숙종 6) 지평·부수찬, 1683년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1687

1) 오도일 문집인 《서파집(西坡集)》 권8에 이 시가 실려 있는데, 〈쌍계루 편액 제공의 시에 차운하다[雙溪樓 次板上諸公韻]〉라는 제목이 달렸다.

년 승지가 되어 자파(自派)를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 1694년 개성부유수를 거쳐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간·부제학·강원도관찰사에 이어 다시 부제학을 거쳐 1696년 도승지·부제학·대사헌을 지냈다. 다음해 예문관제학·사직·이조참판, 1698년 이조참판·공조참판을 지내고 양양부사로 좌천, 삭출(削黜)되었다가 1700년 대제학·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1702년 민언량(閔彦良)의 옥사에 연루, 장성에 유배되었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세칭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라 하였으며, 술을 좋아하여 숙종으로부터 과음의 경계를 받았다. 죽은 뒤 복관되고 울산의 고산서원(孤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서파집》이 있다.

19.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제영시[1]



分燈借榻定誰僧　등 나누고 자리 빌려준 스님은 누구던가
분등차탑정수승

往事庵樓入夢能　암자 누각에서의 지난 일이 꿈에 드누나
왕사암루입몽능

黃鳥鳴邊雙岸合　꾀꼬리 우는 곳에 두 개의 언덕 합하고
황조명변쌍안합

丹楓叢裏一樓增　짙은 단풍 숲 속에 누각 하나 더해졌네
단풍총리일루증

正疑雪壁雲頭矗　눈빛 벼랑이 구름에 닿을 듯 우뚝하고[2]
정의설벽운두촉

更得冰溪月下澄　다시 차가운 시내가 달빛 아래 맑구나
갱득빙계월하징

인세점여요주학　인간세상은 점차 요동의 학[3]과 같으니
인세점여요주학

扶藜非復昔年登　지팡이 짚지만 다신 예전 등반 아니로다
부려비부석년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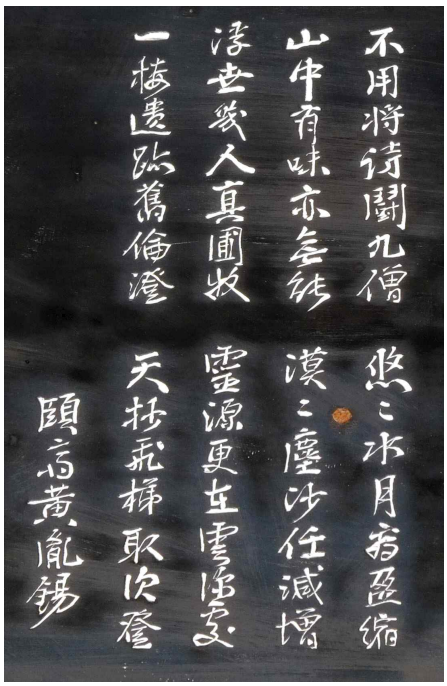
1) 기정진 문집인《노사선생문집(蘆沙先生文集)》권2에〈쌍계루 포옹의 시에 차운하다[次雙溪樓圃翁韻]〉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실려 있다.

2) 눈……우뚝하고 : 쌍계루 뒤편으로 백암(白巖)이 보이는데, 이를 표현한 것이다.

3) 요동의 학 : 본문의 요주(遼柱)는 요동의 화표주(華標柱)이다. 진(晉)나라 도잠(陶潛)의《수신후기(搜神後記)》에 "정영위(丁令威)는 본래 요동 사람으로 영허산(靈虛山)에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는데, 그 뒤 학으로 변화하여 요동으로 돌아가 성문(城門)의 화표주에 앉았다. 그때 소년들이 활을 들고 쏘려고 하자 학이 공중으로 날아가 배회하면서 말하기를 '새여, 새여, 정영위로다. 집 떠난 지 천년 만에 비로소 돌아왔네. 성곽은 옛날 그대로나 백성들은 옛날 백성이 아니로구나. 어찌하여 신선술을 배우지 않아 무덤만 즐비한가' 하고 창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하였다.

* 기정진(奇正鎭) : 1798(정조 22)~1879(고종 16).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 행주(幸州). 자 대중(大中). 호 노사(蘆沙). 시호 문간(文簡). 1798년 전북 순창(淳昌) 복흥면 조동에서 태어나 장성(長城)에서 자랐다. 순창에서 살게 된 것은 13대 조부가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즉위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기 때문이다. 천연두를 앓아 한쪽 눈을 실명하였다. 8,9세에 이미 경사(經史)에 능통했고, 13세 때는 백암사(현 백양사)에서 학문에만 전념하기도 하였다. 유학(儒學)에 전심하여 34세에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후, 강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성균관에 머물며 학업에만 몰두했다. 다음해 증광시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관직을 포기하고 낙향하였다. 1842년 관직에 잠깐 나아갔으나 일주일 만에 사직하였다. 1866년(고종 3년)에 조정에서 동부승지, 호조참판 등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였다. 40세 이후 그에게 경학을 공부하려는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그가 살았던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수학하였다. 그의 사상은 손자인 우만(宇萬)과 많은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다. 46세에 《납량사의(納凉私議)》를 저술하였으며 이후 송대(宋代)의 철학자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정이(程頤)·주희(朱熹) 등의 성리학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였다. 48세에 《정자설(定字說)》과 《우기(偶記)》를 저술하여 사당칠정을 다루었다. 56세에 《이통설(理通說)》을 저술하고 81세에 그가 평생 동안 연구한 이기론을 정리한 《외필(猥筆)》을 저술하였다.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이이(李珥)·이진상(李震相)·임성주(任聖周)와 함께 성리학(性理學)의 6대가(六大家)로 일컬어진다. 그가 사망하고 문인들이 스승의 글을 모아 《노사문집(蘆沙文集)》을 간행하였다.

20.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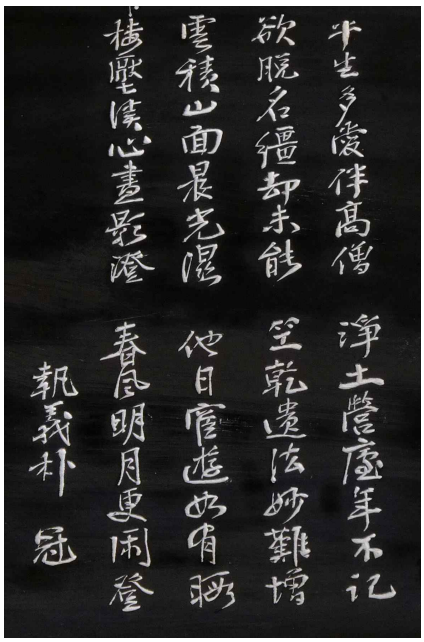


不用將詩鬪九僧　시를 가지고 여러 스님과 다툴 것 없나니
불용장시투구승
山中有味亦無能　산중의 멋 또한 능히 음미하지 못하거늘
산중유미역무능
悠悠水月看盈縮　유유한 시내의 달빛에 영고성쇠를 보나니
유유수월간영축
漠漠塵沙任減增　자욱한 속세의 티끌이야 늘거나 말거나
막막진사임감증
浮世幾人眞圃牧　뜬세상 몇이나 참으로 포은과 목은 같으랴
부세기인진포목
一樓遺跡舊倫澄　한 누각에 남은 자취 옛 모습 맑기만 하네
일루유적구륜징
靈源更在雲深處　신령한 근원 다시 깊은 구름 속에 있으니
영원갱재운심처
天抄飛梯取次登　하늘 끝 높은 사다리를 차례로 오르리라
천초비제취차등

* 황윤석(黃胤錫) : 1729년(영조 5년) ~ 1791년(정조 15년). 조선의 학자. 자는 영수(永叟), 호는 이재(頤齋). 본관은 장수(長水).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배워 널리 백가에 통하였고, 특히 경학(經學)을 전공하였다. 1759년(영조 35) 진사시에 합격, 1766년에 은일(隱逸)로서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임명되고, 뒤이어 사포서(司圃署)의 직장·별제를 거쳐 익위사의 익찬이 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1779년(정조 3)에 목천현감이 되었다가 다음해 사퇴하였고, 1786년 전생서(典牲署)의 주부를 거쳐 전의현감(全義縣監)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사퇴하였다. 그의 학문은 실학시대의 학풍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인데, 처음에는 이학(理學)의 공부에 힘쓰고 경서

의 연구도 하였으나, 북경을 거쳐서 전래된 서구의 지식을 받아 이를 소개한 공이 크고, 또 종래의 이학과 서구의 새 지식과의 조화를 시도한 점이 특색이다. 순조(純祖) 때 도내(道內)에 사림사(士林祠)를 세워 그를 제사지냈다. 문집《이재유고(頤齋遺稿)》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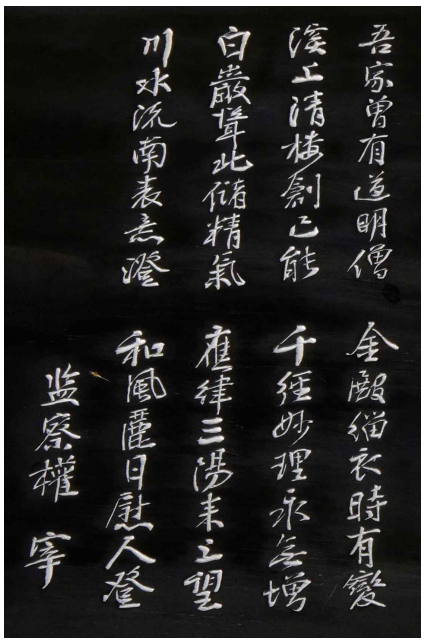
21. 집의(執義) 박관(朴冠) 제영시



半生多愛伴高僧　반평생 고승과 벗함을 좋아했으나
반생다애반고승
欲脫名繮却未能　명리(名利)의 속박을 벗지 못했네
욕탈명강각미능
淨土營廬年不記　정토사를 어느 해에 경영하였던가
정토영려연불기
竺乾遺法妙難增　인도의 유법 오묘해 더하기 어렵네
축건유법묘난증
雲積山面晨光濕　구름 쌓인 산면은 새벽빛에 젖었고
운적산면신광습
樓壓溪心晝影澄　시내 비친 누각 낮 그림자 청정하다
누압계심주영징
他日窟遊如有暇　훗날 벼슬살이에 만일 여가가 있거든
타일환유여유가
春風明月更閑登　춘풍 명월에 한가롭게 다시 오르리라
춘풍명월갱한등

* 박관(朴冠) : 생몰년 행적 미상. 태종~세종연간에 정언(正言), 이조정랑(吏曹正郎), 사헌집의(司憲執義), 영흥부사(永興府使)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2. 감찰(監察) 권재(權宰) 제영시



吾家曾有道明僧　우리 집에 일찍이 도명스님 있었으니[1)]
오가증유도명승

溪上淸樓創已能　시냇가 맑은 누각을 이미 창건 했었네
계상청루창이능

金殿緇衣時有變　사찰의 스님들 때때로 변화가 있으나
금전치의시유변

千經妙理永無增　불경의 오묘한 이치 길이 변화가 없네
천경묘리영무증

白巖聳北儲精氣　백암은 북쪽에 솟아 정기를 머금었고
백암용북저정기

川水流南表意澄　시냇물 남으로 흘러 맑은 뜻 드러낸다
천수류남표의징

應律三陽來上望　율관이 삼양에 감응[2)]할 때 올라 바라보니
응률삼양래상망

和風麗日慰人登　따스한 바람과 햇살이 나그네를 위로하네
화풍려일위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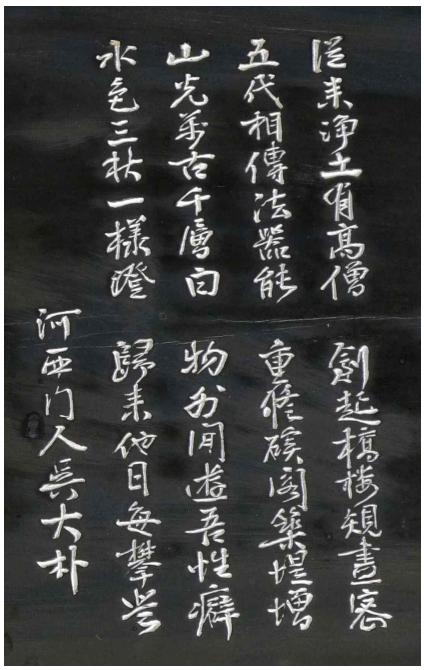
---

1) 집안사람 중에 출가하여 '도명(道明)'이라는 법호를 쓴 스님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2) 율관이 삼양에 감응 : 이 시의 의미는 '절기가 음력 정월이 되었다'는 말이다. 삼양(三陽)은 음력 정월을 말한다. 음력 11월에 하나의 양효(陽爻)가 처음으로 생겨났다가, 1월이 되면 세 개의 양효가 자리하는데, 이를 태괘(泰卦)라 하고 1월의 괘라 한다. 예전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율관으로 절기를 측정하였는데, 갈대의 재를 율관(律管)에 넣어 새 절기가 이르면 재가 저절로 움직여 상응(相應)하는 율관에서 날아 나온다. 때문에 음악의 12개월의 절기를 음률에 배치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11월의 황종(黃鐘), 12월의 대려(大呂), 1월의 태주(大簇), 2월의 협종(夾鐘), 3월의 고선(姑洗), 4월의 중려(仲呂), 5월의 유빈(蕤賓), 6월의 임종(林鐘), 7월의 이칙(夷則), 8월의 남려(南呂), 9월의 무역(無射), 10월의 응종(應鐘)이 이것이다.

* 권재(權宰) : 생몰년 미상. 안동 권씨로, 1416년(태종 16)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대 감찰(監察), 선공 주부(繕工注簿) 등을 역임했다.

23. 하서(河西) 문인(門人) 오대박(吳大朴) 제영시



從來淨土有高僧　예로부터 정토사엔 고승이 있었나니
종래정토유고승
五代相傳法器能　오대[1]에 걸쳐 법기[2]를 이어 전해왔네
오대상전법기능
創起橋樓規畫密　교량과 누각을 창건한 계책 주밀하였고
창기교루규화밀
重修磎閣築堤增　시내에 누각 중수하고 제방도 늘렸다네
중수계각축제증
山光萬古千層白　산빛은 만고에 층층이 하얗게 빛나고
산광만고천층백
水色三秋一樣澄　물빛은 가을 맞아 한결같이 맑기만 하네
수색삼추일양징
物外閒遊吾性癖　세속 밖 한가한 유람은 내가 즐기는 것
물외한유오성벽
歸來他日每攀登　훗날 돌아와서 항상 부여잡고 오르리라
귀래타일매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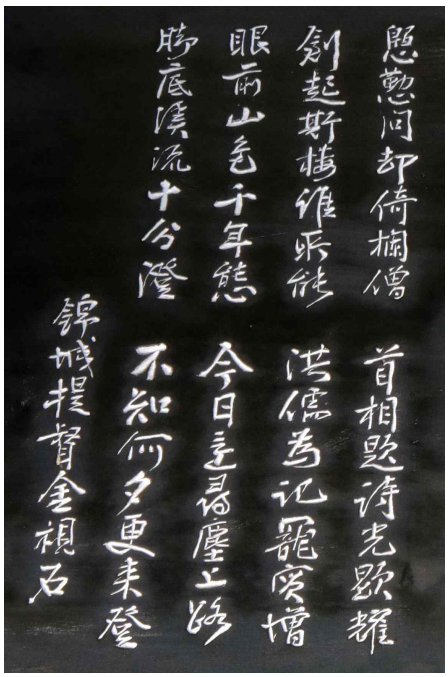
---

1) 오대(五代) : 목은 이색(李穡)이 지은 〈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長城縣白巖寺雙溪樓]〉에 따르면, 쌍계루를 중건한 백양사 청수(淸叟) 스님이 이색에게 누각의 기문을 부탁하면서 "누각은 우리 각엄 존자(覺儼尊者) 일으켜 세운 것인데, 각엄 존자로부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해 온 것이 모두 5대(代)에 이르렀으니, 산문(山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 지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문에 의거하여 오대박 선생께서 '오대에 걸쳐 법기가 전해졌다'고 하신 듯하다.

2) 법기(法器) : 법기는 의발(衣鉢)을 말한다. 불가에서 전법(傳法)의 표가 되는 가사와 바리때를 후계자에게 전하였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수 · 인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오대박((吳大朴) : 1527년(중종 22)~?. 본관은 동복(同福)이며, 담양 출신이다. 1555년(명종 10)에 생원이 되었다. 하서 김인후의 문인이다.

24. 금성제독(錦城提督) 김시석(金視石)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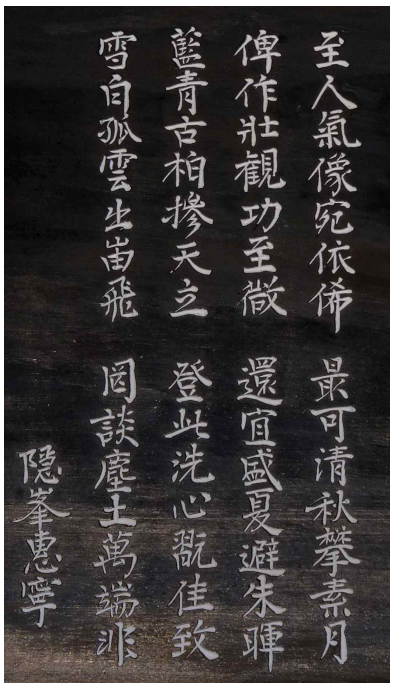


慇懃問却倚欄僧　난간에 기댄 스님께 은근히 묻노니
귀래타일매반등
創起斯樓誰所能　누가 능히 이 누각을 창건 하셨는고
창기사루수소능
首相題詩光顯耀　포은이[1] 시 쓰니 빛이 더욱 빛나고
수상제시광현요
洪儒爲記寵實增　목은이 기문 짓자 총광이 더해졌네
홍유위기총실증
眼前山色千年態　눈앞의 산빛은 천년의 오랜 자태요
안전산색천년태
脚底溪流十分澄　발아래 계곡도 참으로 맑기만 하다
각저계류십분징
今日還尋塵上路　오늘 다시 속세의 길 찾아 떠나니
금일환심진상로
不知何夕更來登　어느 날에 다시 오를지 모르겠구나
부지하석경래등

* 김시석(金視石) : 생몰년 미상. 1426년(세종 8) 문과에 합격. 태인 현감(泰仁縣監) 등을 역임했다.

1) 시에서 말하는 '수상(首相)'은 조정의 우두머리라는 말로, 포은 정몽주를 가리킨다. 고려시대에 정몽주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문하시중은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의 종일품에 해당하는 으뜸 벼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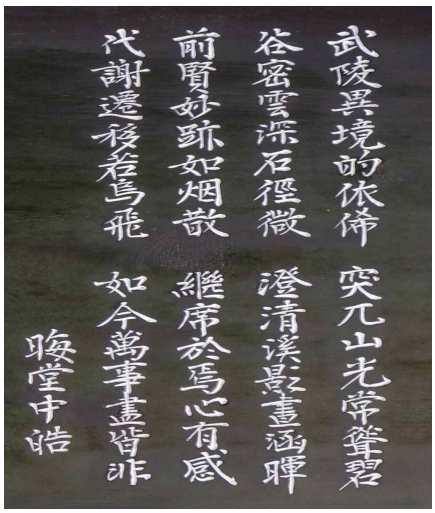
25. 은봉혜령(隱峯惠寧) 선사 제영시



至人氣像宛依俙　스님의 기상 어렴풋하게 드러나는 듯
지인기상완의희
俾作壯觀功至微　장관을 만드니 공덕이 지극히 은미하다
비작장관공지미
最可淸秋攀素月　맑은 가을엔 흰 달빛 잡기에 어울리고
최가청추반소월
還宜盛夏避朱暉　한여름엔 붉은 태양 피하기 마땅하네
환의성하피주휘
藍靑古柏摻天立　옛 잣나무는 쪽빛으로 하늘로 솟았고
남청고백섬천립
雪白孤雲出岫飛　눈처럼 하얀 구름은 산을 나와 흐르네
설백고운출수비
登此洗心翫佳致　이곳 올라 마음 씻고 좋은 경치 보면서
등차세심완가치
罔談塵土萬端非　진토의 온갖 잘못은 말하지 말지어다
망담진토만단비

* 은봉혜령(隱峯惠寧) : 생몰년 미상. 행적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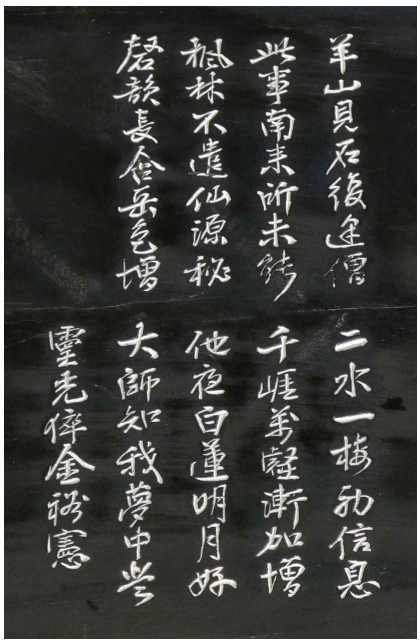
26. 회당중호(晦堂中皓) 선사 제영시



武陵異境的依俙　무릉도원의 기이한 풍광을 뚜렷이 드러내듯
무릉이경적의희
谷密雲深石徑微　깊은 계곡 짙은 구름에 작은 돌 오솔길이라
곡밀운심석경미
突兀山光常聳碧　우뚝한 산 빛은 항상 푸르게 솟아 있고
돌올산광상용벽
澄淸溪影晝涵暉　청정한 시냇물 낮에도 햇빛을 머금었네
징청계영주함휘
前賢妙跡如烟散　옛 현인의 오묘한 자취 안개처럼 사라졌으니
전현묘적여연산
代謝遷移若烏飛　변화와 성쇠가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구나
대사천이약오비
繼席於焉心有感　어느덧 법석을 이어 내 마음에 느낌이 이니
계석어언심유감
如今萬事盡皆非　이제는 온갖 일들이 모두 다 그릇 되었구나
여금만사진개비

* 회당중호(晦堂中皓) : 각림사(覺林寺) 주지를 지냄. 행적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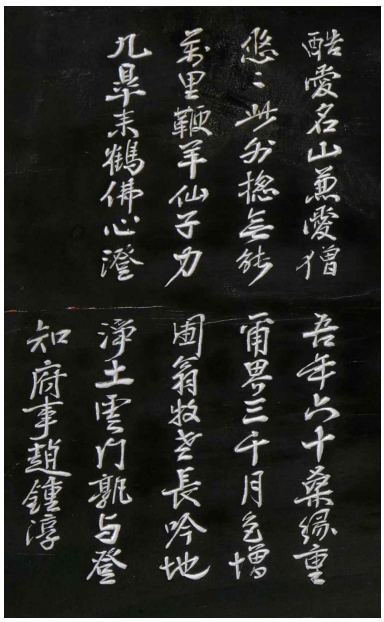
27. 영광 수령[靈光倅] 김유헌(金裕憲) 제영시



羊山見石復逢僧　백양산 바위 보고 다시 스님 만나니
양산견석부봉승
此事南來所未能　이 일은 남녘에 와서 하지 못한 일일세
차사남래소미능
二水一樓初信息　쌍계의 누각 하나에 소식 처음 전하자
이수일루초신식
千崖萬壑漸加增　만학의 무수한 바위 점차 더 드러난다
천애만학점가증
楓林不遣仙源秘　단풍 숲은 선경을 숨기지 아니하고
풍림불견선원비
磬韻長含岳色增　석경 소리는 늘 산악의 빛을 더한다
경운장함악색증
他夜白蓮明月好　먼 훗날 밤 백련암의 명월이 좋거든
타야백련명월호
大師知我夢中登　내가 꿈에서 오르는 줄 대사께서 아소서
대사지아몽중등

* 김유헌(金裕憲) : 1781(정조 5) ~ 1833(순조 3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치문(穉問), 호는 추산(秋山)이다. 1804년(순조 4)에 문과에 올랐다. 가산(架山) · 영광(靈光)의 수령(守令)을 지냈으며 뒤에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다.

28. 지부사(知府事) 조종순(趙鍾淳)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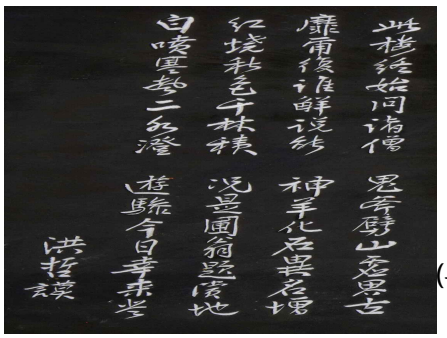
酷愛名山兼愛僧　명산을 몹시 사랑하고 스님까지 좋아해
혹애명산겸애승
悠悠此外摠無能　이 밖은 부질없어 하나도 능한 것 없다네
유유차외총무능
吾年六十桑緣重　내 나이 육십에 불교의 인연 무거우니
오년륙십상연중
爾界三千月色增　그대의 삼천세계[1]가 달빛에 빛나누나
이계삼천월색증
萬里鞭羊仙子力　만리 길 양을 채찍질함은[2] 신선의 힘이요
만리편양선자력
九皐來鶴佛心澄　멀리 들리는 학소리는[3] 불심을 맑게 한다
구고래학불심징
圃翁牧老長吟地　포은과 목은이 길게 시를 읊조리던 곳
포옹목로장음지
淨土雲門孰與登　정토사의 운문암[4]을 뉘와 함께 오를까
정토운문숙여등

---

1) 삼천세계 : 불교에서는 온 우주(宇宙)를 삼천세계(三千世界)라 칭하는데, 일천(一千) 세계는 소천(小千)이요, 소천의 천배(千倍)가 중천(中千)이요, 중천의 천배가 대천(大千)이다.
2) 양을 채찍질함 : 이 말은 황초평(黃初平)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황초평이 15세에 양을 치다가 신선술을 닦으러 도사를 따라 금화산(金華山) 석실(石室) 속에서 수도하였다. 40년 뒤에 형이 찾아와서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황초평이 형과 함께 그곳에 가서 백석(白石)을 향해 "양들아, 일어나라![羊起]"라고 소리치니, 그 돌들이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신선전(神仙傳)》 권2, 〈황초평전(黃初平傳)〉
3) 멀리 들리는 학소리 : 《시경》 〈학명(鶴鳴)〉에 "학이 깊은 구덩이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鶴鳴于九皐 聲聞于天〕" 하였다.
4) 운문암(雲門庵) : 백양사에 소속된 암자이다. 고려 충정 2년(1350)에 각진국사(覺眞國師)가 창건하였다.

* 조종순(趙鍾淳) : 1777(정조 1)~?. 본관 양주(楊州), 자 공례(公禮). 1801(순조 1) 진사가 됨. 음직으로 전부(典簿), 용인(龍仁) 현감, 옥천(沃川) 현감, 금도(禁都) 등을 역임했다.

29. 홍철모(洪哲謨) 제영시



(수정)

此樓終始問諸僧　이 누각의 시종을 스님께 묻나니
차루종시문제승
靡爾復誰解說能　그대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해주랴
미이부수해설능
鬼斧劈山虛界古　귀부[1]로 가른 산 허공 세계 예스럽고
귀부벽산허계고
神羊化石異名增　바위가 된 신양[2]은 기이한 명성 더했네
신양화석이명증
紅燒秋色千林積　붉게 타는 가을빛은 온 숲에 쌓여있고
홍소추색천림적
白噴寒聲二水澄　하얗게 쏟는 찬 쌍계 소리 청정하다
백분한성이수징
況是圃翁題賞地　게다가 포옹이 시를 지어 완상한 곳
황시포옹제상지
遊驂今日幸來登　말을 몰아 오늘 다행히 오르게 되었네
유참금일행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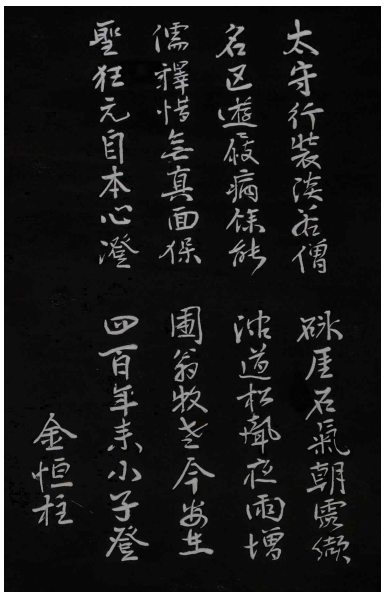
* 홍철모(洪哲謨) : 1788년(정조 12) ~ ?. 본관 풍산(豊山), 1813년(순조 13) 진사가 됨. 음직으로 원릉참봉(元陵參奉), 장악주부(掌樂主簿), 예빈주부(禮賓主簿), 사포별제(司圃別提), 임실현감(任實縣監), 함양군수(咸陽郡守) 등을 역임했다.

---

1) 귀부(鬼斧) : 귀신이 도끼질 하듯 신묘하고 뛰어난 솜씨를 말하는 것으로, 백양산 바위의 빼어난 모습을 가리킨다.

2) 바위가 된 신양 : 《신선전(神仙傳)》〈황초평전(黃初平傳)〉에 나오는 황초평의 고사와 장성 백양사(白羊寺)의 고사를 두루 말하는 듯하다. 황초평이 15세에 양을 치다가 신선술을 닦으러 도사를 따라 금화산(金華山) 석실(石室) 속에서 수도하였다. 40년 뒤에 형이 찾아와서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황초평이 형과 함께 그곳에 가서 백석(白石)을 향해 "양들아, 일어나라![羊起]"라고 소리치니, 그 돌들이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장성 백양사는 원래 정토사로 불리웠는데 조선 선조 7년(1574)에 환양선사(喚羊禪師)가 백양사라 개칭하였다. 환양선사는 법화경을 독경하는데 백학봉 밑에 사는 흰 양이 암자로 찾아와 스님의 독경소리를 듣고 돌아가곤 했다. 어느 날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스님의 독경소리에 깨달음을 얻어 축생의 몸을 벗고 이제 사람의 몸으로 환생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며 절하고 물러났다. 스님은 이를 이상히 여겨 다음날 아침 뒷산을 산책하던 중 흰 양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해하였다. 그 후로 절 이름을 백양사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0. 김항주(金恒柱)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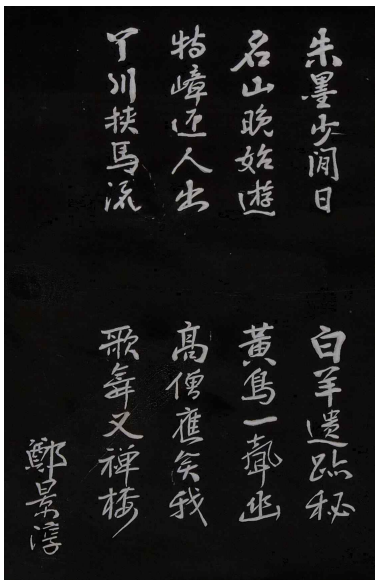


太守行裝淡若僧　태수의 행장은 스님처럼 담박한데
태수행장담약승
名區遊屐病餘能　병후에 명승지 유람을 하게 되었네
명구유극병여능
砯厓石氣朝霞纈　얼음 벼랑 바위 기운에 아침 놀 붉고
빙애석기조하힐
澗道松聲夜雨增　시내길 솔 소리는 밤비소리 더해주네
간도송성야우증
儒釋惜無眞面保　애석타 유석(儒釋)이 진면목 보존 못하니
유석석무진면보
聖狂元自本心澄　성광(聖狂)[1]은 본심의 청정을 따른다
성광원자본심징
圃翁牧老今安在　포은과 목은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고
포옹목로금안재
四百年來小子登　사백년 뒤에 내가 오르게 되었노라
사백년래소자등

* 김항주(金恒柱) : 1722년(경종 2)~?. 본관은 경주(慶州). 월성위(月城尉) 한신(漢藎)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영조의 차녀인 화순옹주(和順翁主)이다. 대사헌 김이주(金頤柱, 1730～1797)의 동생이다. 1750년(영조 26) 생원이 되었다.

1) 성광(聖狂) : 성(聖)은 사리(事理)를 밝게 통한 것을, 광(狂)은 사리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원래 이 말은 《서경(書經)》 〈다방(多方)〉의 “성이라도 선(善)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이 되고, 광이라도 선을 생각하면 성이 된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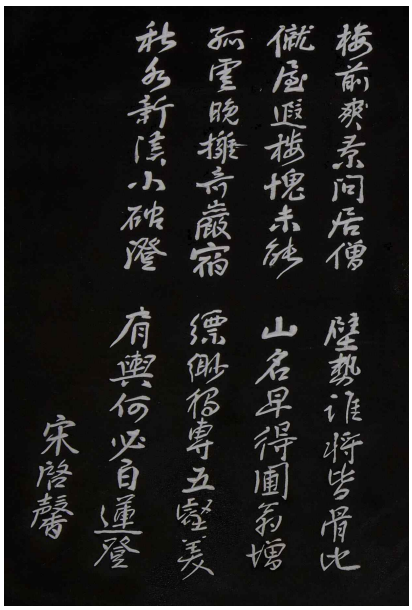
31. 정경순(鄭景淳) 제영시



朱墨少閒日　공무로 한가한 날이 적어서
주묵소한일
名山晚始遊　명산을 뒤늦게 처음 노니네
명산만시유
白羊遺跡秘　백양산 유적이 감춰진 곳에
백양유적비
黃鳥一聲幽　꾀꼬리 울음소리 그윽하여라
황조일성유
特嶂迎人出　우뚝한 바위산은 사람을 맞고
특장영인출
丫川挾馬流　두 시내는 말을 끼고 흐른다
아천협마류
高僧應笑我　고승은 나를 보고 비웃겠네
고승응소아
歌舞又禪樓　또 절 누각에서 가무하리라고
가무우선루

* 정경순(鄭景淳) : 1721년(경종 1)~1795년(정조 19).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정(修井).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후손이다. 부친은 성균생원(成均生員) 정석경(鄭錫慶)이다. 1744년(영조 20)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 2위로 합격하였으나, 문과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음관으로 지방관직에 임명되었는데도 치적을 인정받아 공조판서(工曹判書)의 자리에 올랐다. 한씨(韓氏) 성을 가진 화원(畵員)이 그리고,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이 찬시를 쓴 '수정옹 57세상(修井翁五十七歲像)'이라는 초상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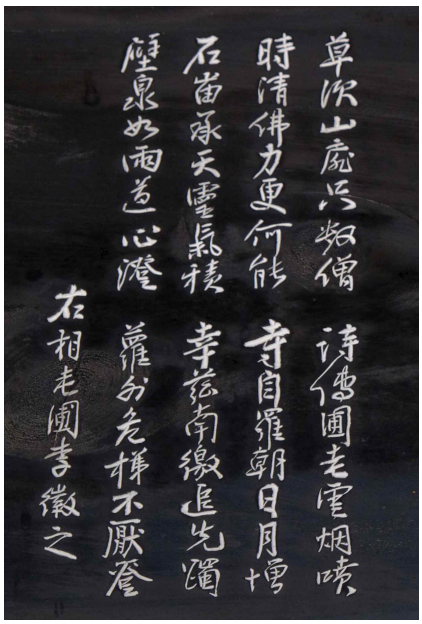
32. 송계형(宋啓馨) 제영시



樓前爽景問居僧　누각 앞 맑은 풍경 거주하는 스님께 묻노니
누전상경문거승
傲屋遐樓愧未能　멀리 절 누각에 집 빌리지 못해 부끄럽네
추옥하루괴미능
壁勢誰將皆骨比　백암의 형세는 누가 모두 뼈에 견주었던고
벽세수장개골비
山名早得圃翁增　산 이름은 일찍 포옹의 시로 값을 더했네
산명조득포옹증
孤雲晚擁奇巖宿　외로운 구름 저물녘에 기암을 안아 머물고
고운만옹기암숙
秋水新溪小磵澄　작은 시내에 흐르는 가을 물은 청정하여라
추수신계소간징
縹緲獨專五壑美　아득한 오학의 아름다움을 홀로 독점하니
표묘독전오학미
肩輿何必白蓮登　어찌 꼭 가마를 타고 백련암에 오를 것인가
견여하필백련등

* 송계형(宋啓馨) : 1768(영조 44) -1804(순조 4).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자는 공회(公晦), 충청 회덕 송촌 출신. 송시열의 후손이다. 아버지 황주목사 송수연과 어머니 한산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송계형은 25세에 사마시에 장원급제하고, 1799년에 동몽교관에 제수되었으며, 1802년에 공조좌랑을 거쳐 공조정랑으로 승진하였다.

33. 우상(右相) 노포(老圃) 이휘지(李徽之)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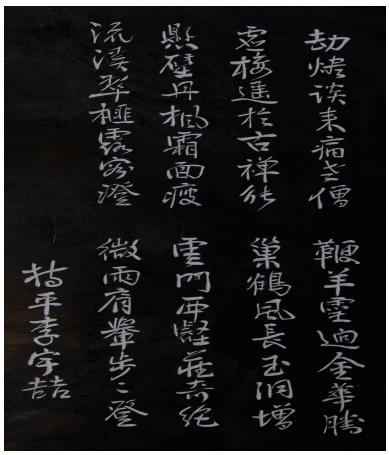
草次山扉只數僧　산 속 초가암자에 머무르는 몇몇 스님들
초차산비지수승
時淸佛力更何能　시절 태평하니 부처의 은력(恩力)이 무엇이랴
시청불력경하능
詩傳圃老雲烟噴　포은이 전한 시에 구름과 안개 쏟아지고
시전포로운연분
寺自羅朝日月增　신라부터 이어진 절 일월의 빛 더하였네
사자라조일월증
石笋承天靈氣積　백암은 하늘을 받쳐 신령한 기운 쌓이고
석수승천령기적
壁泉如雨道心澄　절벽 샘은 단비처럼 도심을 맑게 하구나
벽천여우도심징
幸茲南徼追先躅　다행히 남녘에서 선인의 자취[1] 쫓으니
행자남요추선촉
蘿外危梯不厭登　청라 밖 높은 사다리도 오르기 싫지 않네
라외위제불염등

* 이휘지(李徽之) : 1715(숙종 41)~1785(정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미경(美卿), 호는 노포(老圃). 경여(敬輿)의 종손으로, 할아버지는 민서(敏敍)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관명(觀命)이며, 어머니는 권중만(權重萬)의 딸이다. 1741년(영조 17)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뒤 음사(蔭仕)로 목사(牧使)가 되었다가 176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곧 이조참의를 역임한 뒤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홍문관 대제학을 제수 받았다. 1755년 강화부 유수를 거쳐 1779년(정조 3) 규장각제학이 되었으며, 이듬해 평안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

1) 선인의 자취 : 이휘지의 할아버지가 이민서(李敏敍)인데, 이민서가 일찍이 쌍계루에 와서 시를 지었다. 이 시도 쌍계루 현판에 남아 있다.

갔다. 이어 곧 우의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1781년 실록청 총재관을 겸하여 《영조실록》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가 되었고, 1784년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34. 지평(持平) 이우철(李宇喆) 제영시



劫燼談來病老僧　병든 노승께서 먼 옛날을 얘기하시니
겁신담래병로승
虛樓遙於古禪能　빈 누각은 멀리 옛 선객이 세운 것이네
허루요어고선능
鞭羊靈迥金華勝　편양의 신령한 기운 금화에 빼어나고[1]
편양령형금화승
巢鶴風長玉洞增　둥지의 학의 풍모는 옥동의 빛 더하네[2]
소학풍장옥동증
懸壁丹楓霜面瘦　절벽의 단풍은 서리에 모습이 야위었고
현벽단풍상면수
流溪翠榧露容澄　시냇가 푸른 비자는 이슬 맞아 맑구나
류계취비로용징
雲門西壑藏奇絶　운문암 서쪽 골짜기 기이한 풍광 있으니
운문서학장기절
微雨肩輦步步登　가랑비에 가마 타고 차근차근 오르리라
미우견여보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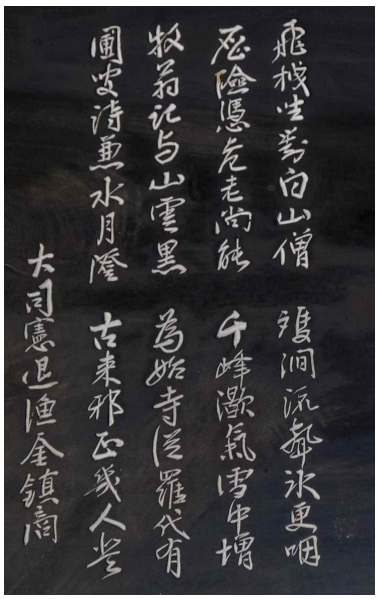
* 이우철(李宇喆) : 1709(숙종 35) ~ 1783(정조 7).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백현(伯賢), 호는 간송(澗松)이다. 1754년(영조 30) 진사가 됨. 1755년(영조 31) 문과에 오름. 1763년 지평, 1770년 장령에 제수 됨.

---

1) 편양의 신령한 기운 금화에 빼어나고 : 이 구절은 중국의 황초평(黃初平)의 고사를 빗대어 백양산 바위의 빼어남을 말한 것이다. '금화'는 황초평이 수도했던 석실을 말하는데, 이 시에서는 백양산 바위를 가리키는 듯하다. 《신선전(神仙傳)》〈황초평전(黃初平傳)〉에 따르면, 황초평이 양을 몰다가, 속세를 벗어나 금화산(金華山) 석실에서 수도하였는데, 형이 찾아와서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황초평이 백석(白石)을 채찍질 해 양으로 변하게 했다고 한다. 장성 백양사(白羊寺) 역시 흰 양이 당시 주지인 환양선사(喚羊禪師)에게 설법을 들었다고 하여 '백양사'로 불렸는데, 이 흰 양은 백양산 뒤 바위를 의미하는 듯하다.

2) 둥지의 학의 풍모는 옥동의 빛 더하네 : 백암산에 깃든 학의 맑은 기운이 쌍계루 시냇물을 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5. 대사헌(大司憲) 김진상(金鎭商)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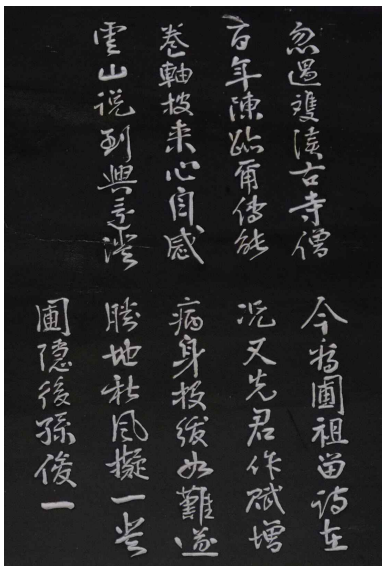


飛棧坐對白山僧　산길을 날 듯 걸어 백암산 스님 마주하니
비잔좌대백산승
歷險憑危老尙能　늙어서도 험한 길 지나 누각에 기대었네
역험빙위로상능
雙澗流聲氷更咽　쌍계의 흐르는 소리 얼음에 더욱 오열하고
쌍간류성빙경인
千峰灝氣雪中增　천개 봉우리 맑은 기운 눈 속에 더하누나
천봉호기설중증
牧翁記與山雲黑　목옹의 기문은 산 구름과 함께 어두워지고
목옹기여산운흑
圃叟詩兼水月澄　포은의 시는 시내의 달과 함께 청정하여라
포수시겸수월징
爲始寺從羅代有　이 절은 신라 때부터 비로소 있게 되었으니
위시사종라대유
古來邪正幾人登　예로부터 군자와 소인 몇몇이나 올랐던가
고래사정기인등

* 김진상(金鎭商) : 1684(숙종 10) ~ 1755(영조 3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 반(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익훈(益勳)이고, 아버지는 만채(萬埰)이며, 어머니는 이항(李杭)의 딸이다. 1699년(숙종 25) 진사가 되고, 171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설서(說書) · 지평(持平)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720년 홍문록에 올라 수찬(修撰)을 지냈다. 1722년(경종 2) 신임옥사로 무산(茂山)에 유배당하였으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 이조정랑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수찬 · 필선(弼善) · 부교리(副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729년(영조 5)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실시된 탕평책에 반발하여 퇴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환로에 진출하여 1735년 부제학(副提學), 1738년 대사성, 1740년 대사헌을 거쳐 1753년 좌참찬에까지 이르렀다. 1716년 병신처분(丙申處分) 뒤 윤선거

(尹宣擧)의 서원과 문집목판을 훼철할 것을 청하였으며, 1719년에는 희빈장씨(禧嬪張氏)의 묘를 이장할 때 동궁이 망곡(望哭 : 먼 곳에서 어버이의 상사에 대해 그곳을 향해 슬피 우는 일)하려는 것을 막는 등 과격한 노론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글씨에 능하여 많은 비문을 썼다. 문집으로 《퇴어당유고(退漁堂遺稿)》가 전한다.

36. 포은(圃隱) 후손(後孫) 정준일(鄭俊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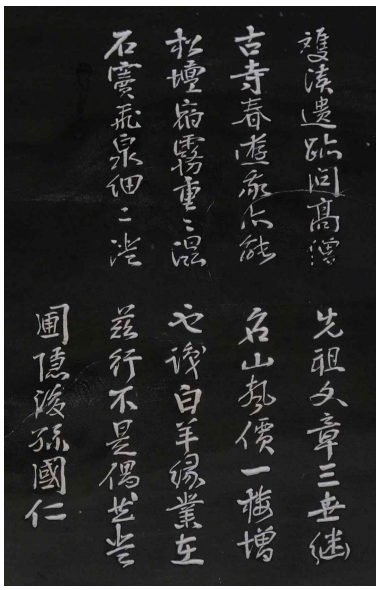


忽遇雙溪古寺僧　문득 쌍계의 옛 절 스님을 만나니
홀우쌍계고사승
百年陳跡爾傳能　백년의 묵은 자취 그대가 전했구료
백년진적이전능
今看圃祖留詩在　선조 포은선생의 시가 남아 있고
금간포조류시재
況又先君作賦增　선군께서[1] 지으신 부(賦)가 빛을 더한다
황우선군작부증
卷軸披來心自感　시축을 펼치니 마음에 절로 감정 일고
권축피래심자감
雲山說到興還澄　운산을 말하니 흥취가 더욱 깨끗하다
운산설도흥환징
病身投紱如難遂　병든 몸 벼슬을 그만두기 어려우니
병신투불여난수
勝地秋風擬一登　가을바람 불면 명승지 한 번 오르고자
승지추풍의일등

* 정준일(鄭俊一) : 1688년(숙종 14)~?. 조선후기 문신. 본관은 영일(迎日)이며, 자는 택지(宅之)이다. 1723년(경종 3)에 진사가 됨. 1735년(영조 11) 문과에 오름. 직장(直長), 전라감사(全羅監司), 옥당(玉堂) 등의 벼슬을 지냄.

1) 선군(先君) : 정준일의 아버지는 정제태(鄭齊泰)이다. 정제태가 쌍계루에 와서 부(賦)를 지은 듯하나, 병화 등으로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정제태는 양명학(陽明學)의 1인자인 정제두(鄭齊斗)의 동생으로 1682년(숙종 8) 문과에 급제해, 병조정랑(兵曹正郎) · 헌납(獻納) · 겸사서(兼司書) · 부교리(副校理) · 수찬(修撰) · 이조좌랑(吏曹佐郎) · 광주부윤(廣州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37. 포은(圃隱) 후손(後孫) 정국인(鄭國仁)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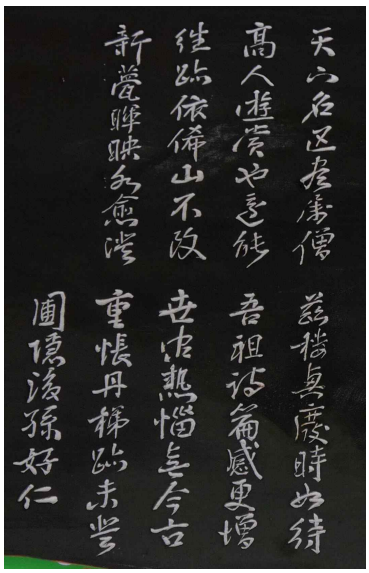
雙溪遺跡問高僧　쌍계에 남은 흔적 고승에게 묻노니
쌍계유적문고승
古寺春遊我亦能　고찰의 봄놀이 나도 하게 되었네
고사춘유아역능
先祖文章三世繼　선조의 문장은 삼대가 이었고[1)]
선조문장삼세계
名山聲價一樓增　명산의 이름값은 쌍계루가 더해준다
명산성가일루증
松壇宿霧重重濕　솔 언덕에 짙은 안개 중중히 젖었고
송단숙무중중습
石竇飛泉細細澄　돌 틈에 솟는 샘물은 맑게 흐른다
석두비천세세징
也識白羊緣業在　백양산에 인연의 업 있는 줄 아나니
야식백양연업재
茲行不是偶然登　이번 행차 우연히 오른 것 아니리라
자행불시우연등

* 정국인(鄭國仁) : 1732(영조 8)~?.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숙교(叔僑). 1762년(영조 38) 진사가 됨. 증산 현령(甑山縣令), 김제군수(金堤郡守), 장성부사(長城府使), 사재감 주부, 선공감 부정, 고성군수(高城郡守) 등을 지냈다.

---

1) 선조의 문장을 삼대가 이었고 : 여기서 선조는 정국인의 선조인 포은 정몽주를 가리킨다. 포은 선생이 쌍계루의 첫 시를 지어 쌍계루를 빛내 주었다. 삼대는 정국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조를 이른 듯하다. 정국인의 아버지가 정지식(鄭志式)이고, 조부는 정태일(鄭台一, 1661~1685)이다. 정태일이 후사가 없어 정지식이 양자로 들어갔다. 증조부는 정제현(鄭齊賢)인데, 쌍계루에 부(賦)를 남겼다. 이로 보았을 때 증조부 정제현을 이외하고 조부 정태일이나 아버지인 정지식이 쌍계루에 글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국인이 선조의 문장을 삼대가 이었다고 했을 것이다.

38. 포은(圃隱) 후손(後孫) 정호인(鄭好仁) 제영시



天下名區盡屬僧　천하의 명승지는 모두 스님의 차지나
천하명구진속승

高人遊賞也還能　고인[1] 또한 능히 유람 완상 하였네
고인유상야환능

玆樓興廢時如待　이 누각의 흥폐는 때를 기다린 듯
자루흥폐시여대

吾祖詩篇感更增　선조의 시편은 감흥을 더욱 일으킨다
오조시편감경증

往跡依俙山不改　지난 자취 어렴풋한데 산은 변함없고
왕적의희산불개

新甍暉映水愈澄　휘황한 새 용마루에 물은 더욱 맑구나
신맹휘영수유징

世間熱惱無今古　인간세상 뜨거운 번뇌는 고금이 없으니
세간열뇌무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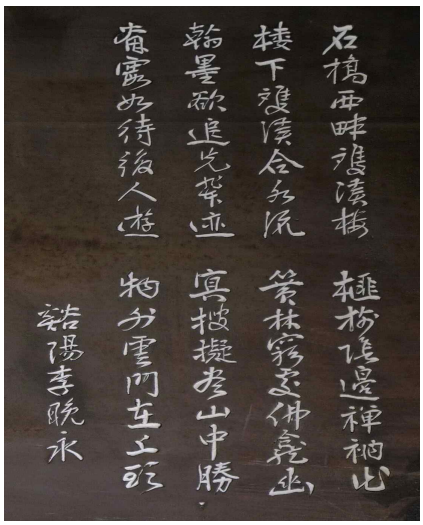
重悵丹梯跡未登　단제[2]에 오르지 못해 거듭 탄식하노라
중창단제적미등

* 정호인(鄭好仁) : 1597(선조 3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자견(子見), 호는 양계(暘溪). 장현광(張顯光)을 사사하였으며, 문장과 재행(才行)이 탁월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7년(인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향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도왔다. 1637년 이후 1654년까지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부임하지 않기도 하였다. 벼슬은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간단한 고리짝과 서책 몇 권이 행장의 전부였을 정도로 청빈하였으며,

1) 고인(高人) : 고인은 덕(德)이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로, 포은 정몽주나 목은 이색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2) 단제(丹梯) : 붉은 사다리로, 선경으로 들어가는 길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시에서는 백암산에 있는 암자를 지칭하는 듯하다.

만년에는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대구의 청호서원(靑湖書院)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는《양계문집(暘溪文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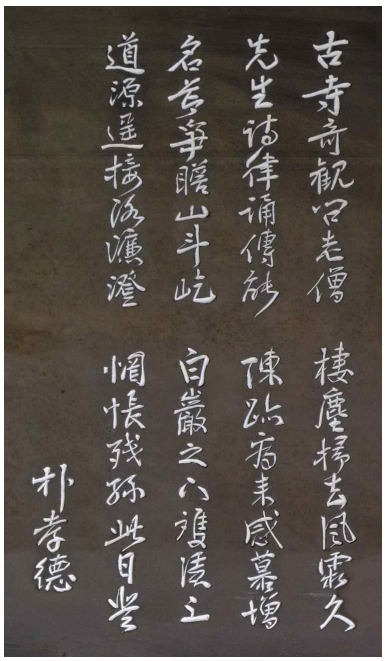
39. 계양(谿陽) 이만영(李晚永) 제영시



石橋西畔雙溪樓　석교 서쪽 가에 쌍계루 솟아 있고
석교서반쌍계루
樓下雙溪合水流　누각 아래 쌍계는 물이 합쳐 흐른다
누하쌍계합수류
榧樹陰邊禪衲出　비파나무 그늘 가엔 선객이 나서고
비수음변선납출
簧林窮處佛龕幽　바람 숲 다한 곳에 불감이 그윽하다
황림궁처불감유
翰墨欲追先輩迹　시문으로 전배의 자취 따르려 하니
한묵욕추선배적
烟霞如待後人遊　연하가 후인의 유람 기다린 듯하네
연하여대후인유
眞搜擬盡山中勝　진경 찾아 산중의 명승 다하려하니
진수의진산중승
物外雲門在上頭　세속 밖 운문암이 꼭대기에 있구나
물외운문재상두

* 이만영(李晚永) : 1748~?.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성지(成之)이며, 광주(廣州) 출신이다. 1795년(정조 19) 생원이 되었고, 옥과 현감을 지냈다.

40. 박효덕(朴孝德)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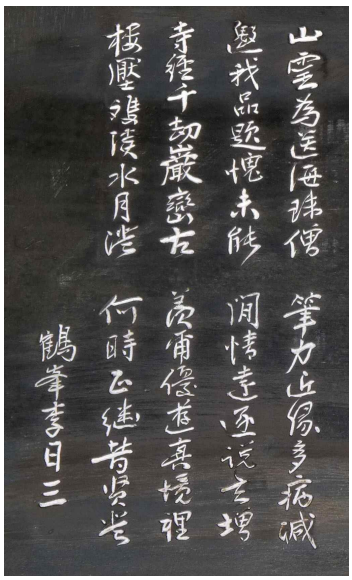


古寺奇觀問老僧　옛 절 기이한 풍광 노승에게 묻노니
고사기관문로승
先生詩律誦傳能　포은 선생의 율시를 읊조려 준다
선생시률송전능
樓塵掃去風霜久　누각 티끌 쓰니 풍상이 오래되었고
누진소거풍상구
陳跡看來感慕增　묵은 자취 살피자 사모의 정 더한다
진적간래감모증
名節爭瞻山斗屹　태산 같은 명절을 다투어 우러르니
명절쟁첨산두흘
道源遙接洛濂澄　염락[1]의 청정한 도원 멀리 접하였네
도원요접락렴징
白巖之下雙溪上　백암산 아래에 있는 쌍계루 가에서
백암지하쌍계상
惘悵殘孫此日登　오늘 쇠잔한 후손이 슬프게 오르네
망창잔손차일등

* 박효덕(朴孝德) : 1812(순조 12)~?. 본관은 충주(忠州), 자 윤중(潤仲), 호는 삼한옹(三寒翁), 문간공(文簡公) 박상(朴祥)의 후손. 김이안(金履安)에게서 학문을 닦아 학행(學行)으로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천거되었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신창현감 등의 벼슬을 지냈다.

1) 염락(濂洛) : 염락은 염계(濂溪)에 살았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에 살았던 정호(程顥) · 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키며, 흔히 송대(宋代) 성리학(性理學)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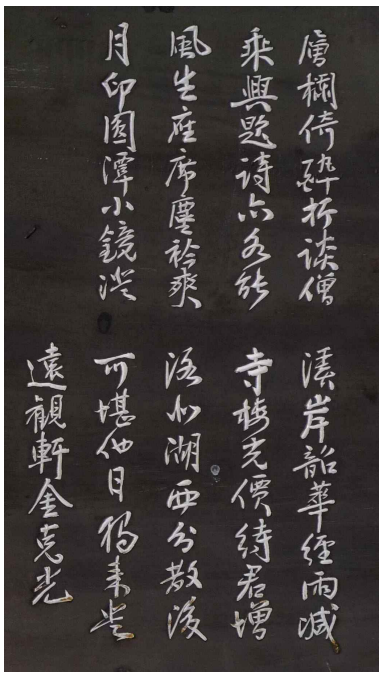
41. 학봉(鶴峯) 이일삼(李日三) 제영시



山靈爲送海珠僧　백양산 신령이 해주 스님을 보내 와서
산령위송해주승
邀我品題愧未能　누각의 시 구하나 능치 못해 부끄럽다
요아품제괴미능
筆力近緣多病減　필력은 근래 병이 많아서 감퇴했으나
필력근연다병감
閒情遠逐說玄增　한가한 정은 현리를 말하며 유장하다
한정원축설현증
寺經千劫巖巒古　사찰은 천겁을 거쳐 바위산 예스럽고
사경천겁암만고
樓壓雙溪水月澄　누각은 쌍계를 비쳐 수월이 청정하다
루압쌍계수월징
羨爾優遊眞境裡　부럽다 그대 진경 속에 유유자적하니
선이우유진경리
何時正繼昔賢登　어느 때 정히 옛 현인을 이어 오를까
하시정계석현등

* 이일삼(李日三) : 1626(인조 4)~1700(숙종 2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서천(舒川). 자는 진여(晉如), 호는 성오(省吾). 홍산(鴻山) 출신. 대의(大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돈림(敦臨)이고, 아버지는 진사 복형(復亨)이다. 1651년(효종 2)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교서로 등용되었다. 이어서 전적을 거쳐 감찰이 되었다. 1658년 호조좌랑과 춘추관기주관을 역임하고 예조정랑과 직강을 지냈다. 1663년(현종 4) 예조참의를 지낸 뒤 외직으로 나가 금교·영서·양재의 찰방을 지내고, 이어서 음성·창평·연산 등의 군수를 역임하였다. 특히, 금교찰방을 10년 동안 두 번이나 지냈는데 근검한 생활이 모범이 되어 거처하던 공관을 현도(玄都)라고 불렀다. 1678년(숙종 4) 사예로 승차되고, 이어서 승문원판교·예빈시정을 지냈다. 춘추관편수관이 되어서는 《현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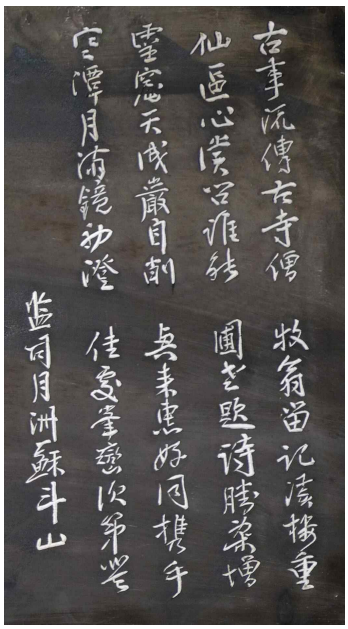
42. 원관헌(遠觀軒) 김극광(金克光) 제영시



層欄倚醉折談僧　취하여 난간에 기대 스님과 담소하니
층란의취절담승
乘興題詩亦各能　각자 흥을 타고 능히 시를 읊조린다
승흥제시역각능
溪岸韶華經雨減　시내 언덕 봄 풍광 비를 맞아 옅으나
계안소화경우감
寺樓光價待君增　누각의 빛과 값은 그대 기다려 더한다
사루광가대군증
風生座席塵衿爽　바람 부는 자리엔 속된 흉금 상쾌하고
풍생좌석진금상
月印圓潭小鏡澄　달은 둥근 못에 비춰 거울처럼 맑구나
월인원담소경징
洛北湖西分散後　낙북지역과 호서 땅으로 헤어진 후에
락북호서분산후
可堪他日獨來登　어찌 훗날 홀로 와서 오를 수 있으랴
가감타일독래등

* 김극광(金克光) : 1653년(효종 4)~1724년(경종 4). 조선 중기 유학자. 자는 현보(顯甫)이고, 호는 원관(遠觀)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고조는 좌랑(佐郎) 증 사복시정(贈司僕寺正) 김경우(金景愚)이고, 증조부는 증 좌승지(贈左承旨) 김대진(金大振)이며, 조부는 김우헌(金友憲)이다. 부친 김여석(金汝錫)과 모친 현감(縣監) 홍시태(洪時泰)의 딸 남양홍씨(南陽洪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이세징(李世徵)의 딸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비범하였다. 성현(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고 학문 연구에 힘썼다. 성리학(性理學) 서적들을 두루 탐독하였으며, 독실한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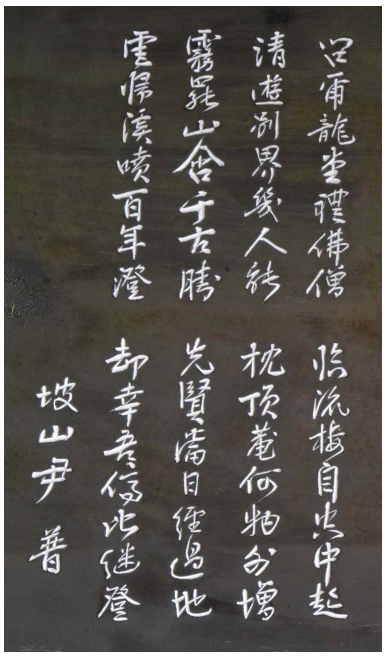
43. 감사(監司) 월주(月洲) 소두산(蘇斗山)



古事流傳古寺僧　옛 일이 고찰 스님께 흘러 전해지니
고사류전고사승
仙區心賞問誰能　선경의 감상 누가 능히 할 수 있으랴
선구심상문수능
牧翁留記溪樓重　목옹이 기문 남기니 쌍계루 중해지고
목옹류기계루중
圃老題詩勝槩增　포은이 시를 짓자 빼어난 경치 더한다
포로제시승개증
靈窟天成巖自削　영굴은 바위가 깎여 자연히 이루어지고
영굴천성암자삭
寒潭月滿鏡初澄　찬 연못은 달빛 가득 거울처럼 청정하다
한담월만경초징
興來惠好同携手　흥이 일면 좋은 벗과 함께 손을 맞잡고
흥래혜호동휴수
佳處峯巒次第登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차례로 오르리라
가처봉만차제등

*소두산(蘇斗山) : 1627(인조 5)~1693(숙종 1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月洲). 건(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억선(億善)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동명(東鳴)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52년(효종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60년(현종 1) 식년문과에 장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을 거쳐 1663년 사간원정언 ·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직언 때문에 권신의 비위에 거슬려 외직으로 전전하였다. 1672년 나주목사로 있을 때 진휼책을 잘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1675년(숙종 1) 제주목사, 1681년에 강릉부사 · 의주부윤 · 함경북도병마절도사 · 동래부사 · 공홍도관찰사(公洪道觀察使) · 공홍도수군절도사 등을 거쳐 1688년 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듬해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 울분 끝에 병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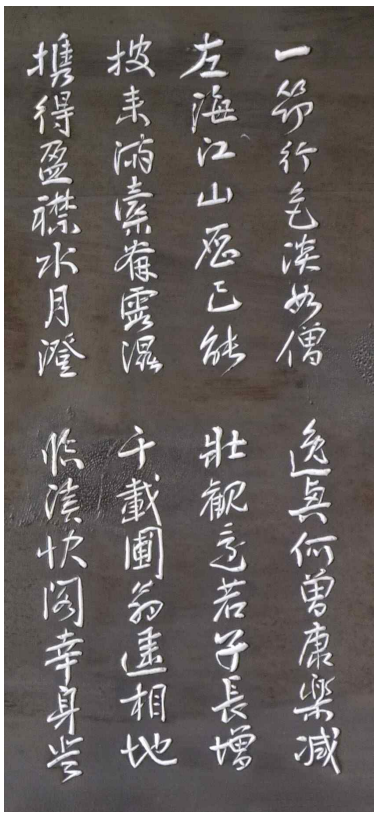
44. 파산(坡山) 윤보(尹普) 제영시



問爾龍堂禮佛僧　절 법당에서 예불하는 스님께 묻노니
문이룡당례불승
淸遊別界幾人能　몇 분이나 별천지에 맑은 유람 했었나
청유별계기인능
臨流樓自空中起　시내 굽어보는 쌍계루는 공중에 솟고
임류루자공중기
枕頂菴何物外增　정상의 암자 어찌 세속 밖에 놓였는가
침정암하물외증
霧罷山含千古勝　안개 걷힌 산은 천고의 승경을 품었고
무파산함천고승
雲歸溪噴百年澄　구름 돌아간 시내 백년의 맑음 쏟는다
운귀계분백년징
先賢當日經過地　옛 현인이 지난날에 거쳐서 가던 곳을
선현당일경과지
却幸吾儕比繼登　다시 다행히 우리들이 이어서 오르노라
각행오제비계등

* 윤보(尹普) : 1646년(인조 24)~?.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성원(聖源). 1679년(숙종 5) 생원이 되었다.

45. 완산(完山) 후학(後學) 이현기(李顯箕) 첫 번째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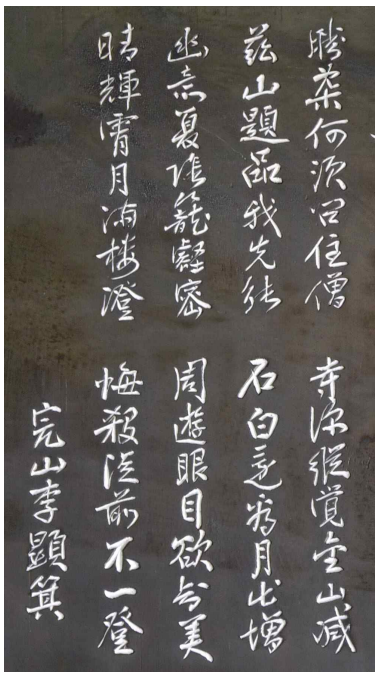
一笻行色淡如僧　지팡이 하나 행색이 스님처럼 담박하니
일공행색담여승
左海江山歷已能　우리의 강산을 이미 다 찾아보았노라
좌해강산력이능
逸興何曾康樂減　빼어난 흥취 어찌 강락[1]보다 못하랴
일흥하증강악감
壯觀還若子長增　장대한 유람은 도리어 자장[2]보다 더한다
장관환약자장증
披來滿橐煙霞濕　연하를 헤쳐 오니 전대가 가득 젖고
피래만탁연하습
携得盈襟水月澄　수월을 손에 담자 흉금 가득 청정하다
휴득영금수월징
千載圃翁遙相地　천 년 전 포옹선생 멀리 찾아온 곳에
천재포옹요상지
臨溪快閣幸身登　시냇가 상쾌한 누각에 다행히 오른다
임계쾌각행신등

---

1) 강락(康樂) : 강락은 중국 남조(南朝) 송(宋)의 문인 사영운(謝靈運)의 봉호(封號)이다. 사영운이 좌천되어 영가 태수(永嘉太守)로 내려간 뒤 산수 좋은 석문산(石門山)에서 시를 지으며 노닐었던 고사가 있다.《송서(宋書)》 권67

2) 자장(子長) : 자장은 사마천(司馬遷)의 자(字)이다. 사마천이 20세 때에 남쪽으로 강회(江淮) · 회계(會稽) · 우혈(禹穴) · 구의(九疑) · 원상(沅湘)을 돌아보고, 북쪽으로는 문사(汶泗)를 건너고 제로(齊魯)의 땅에서 강학(講學)하고 양초(梁楚)를 지나 돌아왔다고 한다.

46. 완산(完山) 후학(後學) 이현기(李顯箕) 두 번째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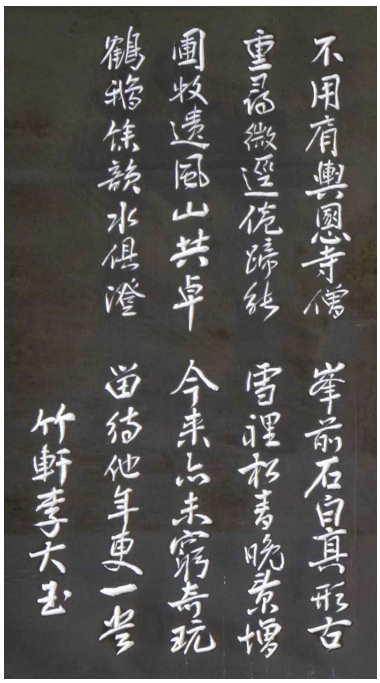
勝槩何須問住僧　승경을 굳이 거주하는 스님께 물을까
승개하수문주승
玆山題品我先能　이 산의 평가를 나도 먼저 할 수 있다네
자산제품아선능
寺深縱覺金山減　절이 깊으니 금산[1]이 못함을 느끼겠고
사심종각금산감
石白還看月出增　바위가 희니 월출산[2]보다 더함을 알겠다
석백환간월출증
幽意夏陰籠壑密　여름 녹음이 골짜기 덮어 뜻 그윽해지고
유의하음롱학밀
晴輝霄月滿樓澄　한밤에 맑은 달빛은 누각에 가득하여라
청휘소월만루징
周遊眼目欲知美　아름다운 풍광 알고자 눈을 두루 돌리니
주유안목욕지미
悔殺從前不一登　종전에 한 번 오르지 못해 후회스럽다
회살종전불일등

* 이현기(李顯箕) 제영시 : 1682년(숙종 8)~1750(영조 26).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명원(明遠), 1719년(숙종 45)에 생원이 되었다. 익릉참봉(翼陵參奉) · 광릉참봉(光陵參奉) · 동몽교관(童蒙敎官) · 형방도사(刑房都事) · 금부도사(禁府都事) · 형조좌랑(刑曹佐郞) · 영양현감(英陽縣監) 등을 지냈다.

---

1) 금산(金山)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의 모악산(母岳山)을 말한 듯하다.
2) 월출(月出) :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월출산을 말한다.

47. 죽헌(竹軒) 이대옥(李大玉)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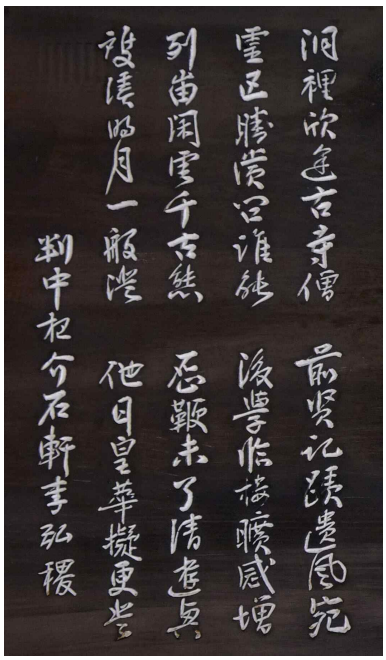


不用肩輿愚寺僧　가마로 사찰의 스님 번거롭게 할 것 없으니
불용견여흔사승
重尋微逕倦蹄能　지친 발걸음으로 거듭 작은 오솔길 찾았노라
중심미경권제능
峯前石白眞形古　봉우리 앞 흰 바위는 참으로 예스러운 모습
봉전석백진형고
雪裡松靑晩景增　눈 속의 소나무는 해질 무렵 푸른빛을 더한다
설리송청만경증
圃牧遺風山共卓　포은과 목은이 유풍은 산과 함께 우뚝하고
포목유풍산공탁
鶴鵝餘韻水俱澄　학봉과 아계[1]의 여운은 시내 함께 청정하다
학아여운수구징
今來亦未窮奇玩　오늘에 와서도 기특한 구경 다하지 못했으니
금래역미궁기완
留待他年更一登　다른 날을 기다려서 다시 한 번 올라보리라
류대타년경일등

* 이대옥(李大玉) : 1680년(숙종 6)~?. 본관 함평(咸平), 자 군보(君寶)이다. 흥덕(興德) 출신이다. 1733년(영조 9)에 생원이 됨.

1) 학봉과 아계[鶴鵝] : 학봉(鶴峯) 이일삼(李日三, 1626～1700)과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를 가리킨다.

48. 판중추(判中樞) 개석헌(介石軒) 이홍직(李弘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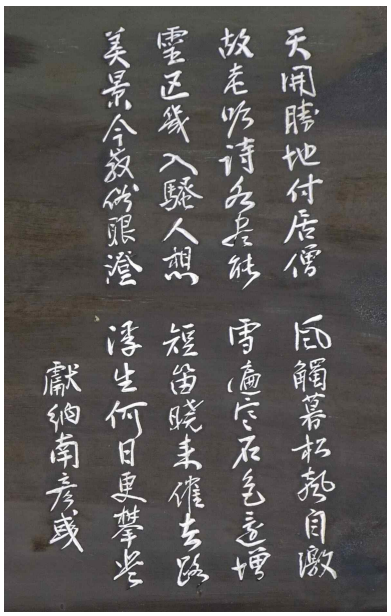
洞裡欣逢古寺僧　골짜기에서 기쁘게 고찰의 스님 만나
동리흔봉고사승
靈區勝賞問誰能　묻노니 신령한 명승을 누가 감상하나
영구승상문수능
前賢記蹟遺風宛　옛 현인의 사적기에 유풍이 완연하니
전현기적유풍완
後學臨樓曠感增　후학이 누정 오르자 격세지감 더한다
후학림루광감증
列峀閑雲千古態　첩첩 산과 한가한 구름 천고의 자태요
열수한운천고태
雙溪明月一般澄　쌍계의 밝은 달은 한결같이 청정하다
쌍계명월일반징
歷鞭未了淸遊興　발걸음은 맑은 유람의 흥을 못마치니
역편미료청유흥
他日皇華擬更登　훗날 사신[1]으로 오면 다시 오르리라
타일황화의경등

*이홍직(李弘稷) : 1705(숙종 31)~1796(정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계장(季長), 호는 개석헌(介石軒). 1735년(영조 11) 진사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1738년 청암도찰방(靑巖道察訪)이 되었으나 그 뒤 곧 사임, 김재로(金在魯)의 추천으로 전적이 되고, 예조와 병조의 낭관을 거쳐 전의현감, 경상우도와 충청도 도사, 李弘稷爲靈光郡守를 지냈다.

1) 원문의 '황화(皇華)'는 임금의 명을 받들고 멀리 사방으로 가서 아름다움을 선양하는 사신이라는 뜻인데, 《시경》 〈소아(小雅)〉 〈황황자화(皇皇者華)〉에서 나온 말이다. 시구에 "달리고 또 달리며 두루 묻고 강구하네.〔載馳載驅 周爰咨詢〕"라는 말과, "달리고 또 달리며 두루 묻고 의논하네.〔載馳載驅 周爰咨諏〕"라고 구절은 사신을 묘사한 것이다.

1746년 장령으로 있으면서 전라병사 이경철(李景喆)을 비롯한 지방관원들의 잘못을 논책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그 뒤 영광군수를 지내고 사퇴하였다. 1751년 헌납으로 복직되고 군자감정을 거쳐, 1759년 다시 헌납이 되었다. 1761년 사간으로 있을 때 비행을 자행하는 전라도 관찰사 홍인한(洪麟漢)을 탄핵하려다가 상소내용이 사전에 누설되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홍국영(洪國榮)의 세도정권이 수립되자 함평에 은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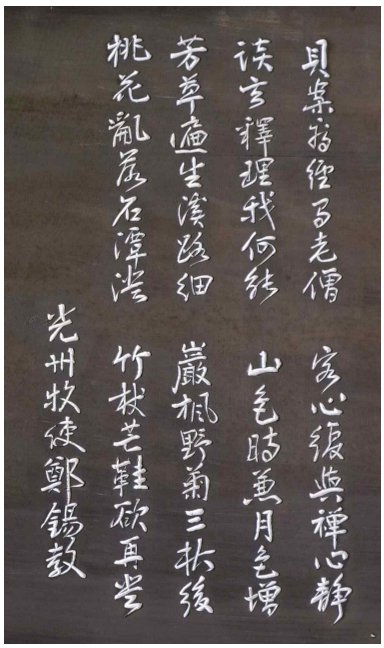
49. 헌납(獻納) 남언욱(南彦彧) 제영시



天開勝地付居僧　하늘이 명승지 열어 스님께 부촉하니
천개승지부거승
古老吟詩各盡能　옛 원로도 모두 시를 능히 읊었노라
고로음시각진능
風觸暮松聲自激　바람은 저녁 솔을 스쳐 소리가 세차고
풍촉모송성자격
雪遍寒石色還增　눈은 차가운 바위 덮어 흰빛을 더한다
설편한석색환증
靈區幾入騷人想　선경은 몇 번이나 시인의 생각에 들었나
영구기입소인상
美景今敎俗眼澄　빼어난 풍광 오늘 속안을 맑게 해준다
미경금교속안징
短笛曉來催去路　새벽녘 단적 소리 가는 길을 재촉하니
단적효래최거로
浮生何日更攀登　덧없는 인생 어느 날에나 다시 오를까
부생하일경반등

* 남언욱(南彦彧) : 1703년(숙종 29)~?. 본관 의령(宜寧), 자 여성(汝成). 창평(昌平) 출신이다. 1735년(영조 11)에 문과에 오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역임.

50. 광주목사(光州牧使) 정석교(鄭錫敎) 제영시



貝案看經有老僧　책상에서 불경 보는 노승이 계시니
패안간경유로승
談玄釋理我何能　내 어찌 현묘함을 말하고 해석하리
담현석리아하능
客心復與禪心靜　객심은 다시 선심과 함께 고요하고
객심부여선심정
山色時兼月色增　산색은 때로 월색과 함께 더해진다
산색시겸월색증
芳草遍生溪路細　방초는 작은 시냇길을 두루 덮었고
방초편생계로세
桃花亂落石潭澄　도화는 맑은 석담에 어지럽게 진다
도화란락석담징
巖楓野菊三秋後　가을날 바위 단풍들고 들국화 피면
암풍야국삼추후
竹杖芒鞋欲再登　대지팡이 짚신으로 다시 오르고자
죽장망혜욕재등

* 정석교(鄭錫敎) : 1698년(숙종 24)~1769년(영조 45). 본관은 동래(東萊), 자 문경(文卿). 1735년(영조 11) 진사가 됨. 광주목사(光州牧使), 통천군수(通川郡守) 등을 역임.

51. 정석교(鄭錫敎) 현손(玄孫) 정기찬(鄭基纘) 제영시

고조인 광주공(光州公)[1]이 광주에 부임하셨을 때 이 누각에 와 유람하며, 원 시를 차운해서 판을 걸었으나 그 후로 백여 년간 비바람에 씻기고 닳아져 거의 썩어 떨어질 지경이었다. 소암(逍庵) 스님이 (그 시가) 없어져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워서 제현의 시축(詩軸)에 등사하여 오랫동안 소장하였다. 내가 온 것을 듣고 소매에 지니고 와서 주니, 내가 심히 감탄하고 인하여 공경하게 차운했다.

[高祖考光州公 莅光州時 來遊此樓 次原韻揭板 邇來百有餘季 風磨雨洗 幾至朽落 有僧逍庵者懼其泯滅無傳 謄于諸賢詩軸中 藏之久矣 聞余之來 袖而進之 余不勝感歎 因以敬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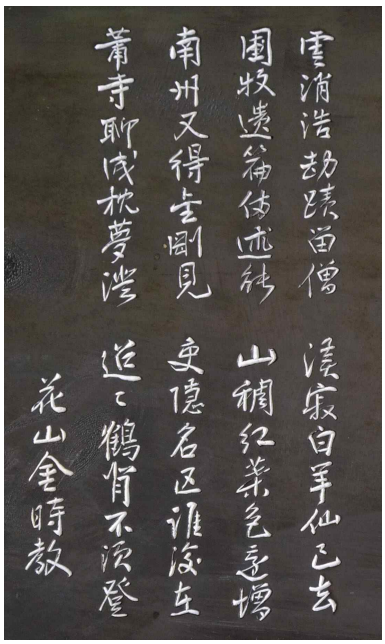
[고조고광주공 리광주시 래유차루 차원운게판 이래백유여년 풍마우세 기지후락 유승소암자 구기민멸무전 등우제현시축중 장지구의 문여지래 수이진지 여부승감탄 인이경차]

行到雙溪遇一僧　발걸음이 쌍계에 닿아 한 스님 만나니
행도쌍계우일승
僧言此景畵難能　스님은 이 풍경 그리기 어렵다 말하네
승언차경화난능
小樓臨水千年古　시내의 작은 누각 천년의 예스러움이요
소루림수천년고
遺墨生塵百感增　유묵에 인 먼지는 온갖 감회를 더한다
유묵생진백감증
丹葉何如春色好　붉게 물든 잎은 좋은 봄빛과 어떠한고
단엽하여춘색호
碧流剩得月光澄　푸른 시내는 넉넉한 달빛으로 청정하다
벽류잉득월광징
歸來猶有纏綿意　돌아와도 여전히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
귀래유유전면의
回首曲欄更欲登　굽은 난간 돌아보며 다시 오르고 싶네
회수곡란경욕등

* 정기찬(鄭基纘) : 1827년(순조 27)~1895년(고종 32). 본관 동래(東萊), 자 효승(孝承), 한산(韓山) 출신이다. 1858년(철종 9)에 생원이 됨. 쌍계루에 시를 남긴 정석교(鄭錫敎)의 고조손이다.

1) 광주공(光州公) : 광주공은 정석교의 고조인 정기찬(鄭基纘)을 가리킨다. 정기찬이 광주목사(光州牧使)로 부임했기 때문에 '광주공'이라고 칭한 것이다.

52. 화산(花山) 김시교(金時敎) 제영시



雲消浩劫蹟留僧　구름 걷힌 영겁의 터에 스님 머무니
운소호겁적류승
圃牧遺篇備述能　포은 목은이 시문 남겨 다 서술했네
포목유편비술능
溪寂白羊仙已去　시내 적막한 백양산에 신선이 떠나고
계적백양선이거
山稠紅葉色還增　홍엽 빽빽한 산에 빛이 더욱 짙구나
산조홍엽색환증
南州又得金剛見　남녘에서 또 다시 금강산을 구경하니
남주우득금강견
蕭寺聊成枕夢澄　맑은 절에서 청정한 꿈을 이루었다
소사료성침몽징
吏隱名區誰復在　명승에 이은[1]한 분 누가 다시 계실까
리은명구수부재
迢迢鶴背不須登　멀리 학의 등에 오를 필요 없어라[2]
초초학배불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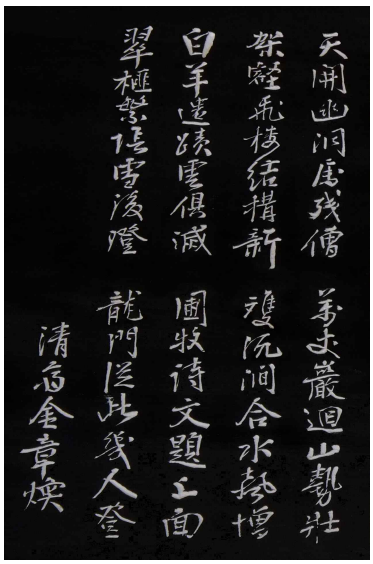
---

1) 이은(吏隱) : 낮은 관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은자(隱者)처럼 사는 사람을 말한다.

2) 멀리…없어라 : 이 구절은 앞 절에서 말한 이은(吏隱)과 관련지어 봐야 한다. 만일 백양산에서 낮은 관직을 맡아 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학(鶴)의 등을 타고 다니는 신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고사가 있다.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 저서인 《수신후기(搜神後記)》에 기록되기를, 요동(遼東) 사람 정 영위(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다시 고향을 찾아와서는 요동 성문의 화표주(華表柱) 위에 내려앉았는데, 소년 하나가 활을 쏘려고 하자 허공으로 날아올라 배회하면서 “옛날 정 영위가 한 마리 새가 되어,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 처음 돌아왔소. 성곽은 의구한데 사람은 모두 바뀌었나니, 신선술 왜 안 배우고 무덤만 이리도 즐비한고.[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冢纍纍]”라고 탄식하고는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 고사를 인용하여 시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 김시교(金時敎) : 생몰년 미상. 본관은 안동. 선의 왕후(宣懿王后: 경종(景宗)의 계비(繼妃) 어씨(魚氏))의 제부(娣夫)로 지중추(知中樞)를 제수 받았으며, 한산군수 등을 지냈다.

53. 청재(淸齋) 김장환(金章煥)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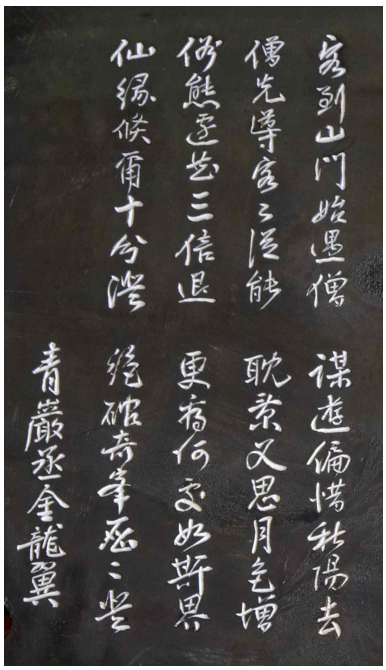


天開幽洞屬殘僧　하늘이 깊은 골짝을 남은 스님께 맡기니
천개유동속잔승
架壑飛樓結構新　시내에 지은 높은 누각 결구가 새롭구나
가학비루결구신
萬丈巖迴山勢壯　만 길 바위가 굽이져 산세가 웅장하고
만장암회산세장
雙流澗合水聲增　두 시냇물 합쳐져서 물소리 더욱 세차다
쌍류간합수성증
白羊遺跡雲俱滅　백양의 남은자취 구름과 함께 사라지고
백양유적운구멸
翠樾繁陰雪後澄　푸른 비자의 짙은 그늘 눈 후에도 맑아라
취비번음설후징
圃牧詩文題上面　포은과 목은의 시문은 상면에 적혀있으니
포목시문제상면
龍門從此幾人登　용문[1]을 이제부터 몇 명이나 오를쏜가
용문종차기인등

* 김장환(金章煥) : 1761년(영조 37)~?. 본관은 울산(蔚山), 자 치문(稚文), 호는 청재(淸齋). 김인후의 후손이다. 영릉 참봉(寧陵參奉)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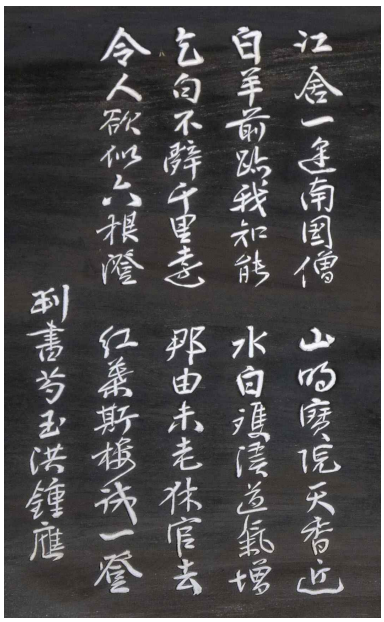
1) 용문(龍門) : 용문은 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백양사를 말한다.

54. 청암승(靑巖丞) 김용익(金龍翼)



客到山門始遇僧　산문에 이른 나그네 비로소 스님을 만나
객도산문시우승
僧先導客客從能　스님이 앞서 객을 인도하고 객이 따른다
승선도객객종능
謀遊偏惜秋陽去　유람을 꾀할 제 가을 햇살 더욱 아쉬웠고
모유편석추양거
耽景又思月色增　풍경을 탐하매 밝은 달빛 한층 생각했네
탐경우사월색증
俗態遽然三倍退　세속의 자태가 갑자기 몇 배나 물러나니
속태거연삼배퇴
仙緣倏爾十分澄　신선의 인연은 어느덧 참으로 청정하구나
선연숙이십분징
更看何處如斯界　다시 보건대 어느 곳이 이 세계와 같으랴
경간하처여사계
絶磵奇峯歷歷登　빼어난 시내와 봉우리를 낱낱이 오르리라
절간기봉력력등

55. 판서(判書) 작옥(芍玉) 홍종응(洪鍾應)



江舍一逢南國僧　강가 집에서 남녘 스님 한번 만나니
강사일봉남국승
白羊前跡我知能　백양사 옛 자취를 나도 알게 되었네
백양전적아지능
山明寶院天香近　산 맑은 보배 사찰에 천향이 가깝고
산명보원천향근
水白雙溪道氣增　물 투명한 쌍계루엔 도기가 넘친다
수백쌍계도기증
乞句不辭千里遠　시 구하려 천리 길 사양하지 않으니
걸구불사천리원
令人欲似六根澄　나의 육근[1]을 맑게 해주는 듯하네
영인욕사륙근징
那由未老休官去　어찌하면 늙기 전 관직 쉬고 돌아가
나유미로휴관거
紅葉斯樓試一登　단풍 들 제 이 누각을 한 번 오를까
홍엽사루시일등

* 홍종응(洪鍾應) : 1783(정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사협(士協). 상윤(相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원섭(元燮)이고, 아버지는 승규(勝圭)이며, 어머니는 김이현(金履顯)의 딸이다. 1827년(순조 27)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정자·동래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842년(헌종 8) 대사성을 지내고, 이후 이조참의·예방승지를 거쳐 1849년(철종 즉위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1857년 판의금부사·좌참찬, 1859년 한성부판윤, 그리고 1863년에는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문(詩文)에 능하여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남릉군(南陵君)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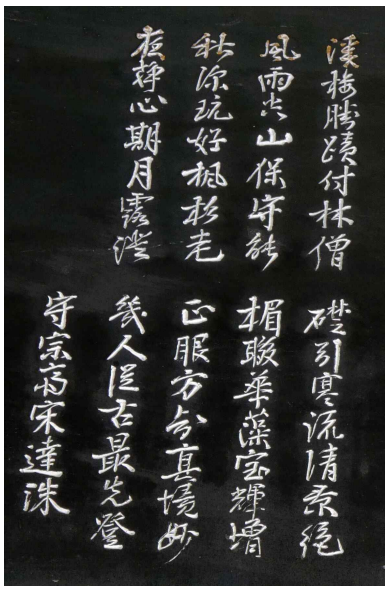
1) 육근(六根) : 불가(佛家)의 용어로서, 6식(識)을 낳는 여섯 개의 뿌리 즉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를 말한다.

56. 수종재(守宗齋) 송달수(宋達洙) 제영시

백암산의 인정상인(印正上人)이 쌍계루의 제영시를 초록(抄錄)하여, 멀리 와 화운시를 요청하기에 졸렬함을 잊고 삼가 차운하다.

[白巖印正上人 爲抄雙溪樓題詠 遠來求和 忘拙謹步]

[백암인정상인 위초쌍계루제영 원래구화 망졸근보]



溪樓勝跡付林僧　쌍계루 빼어난 자취 숲의 스님께 부촉하니
계루승적부림승
風雨空山保守能　비바람 몰아치는 공산에서도 잘 지켰노라
풍우공산보수능
礎引寒流淸景絶　초석이 인도하는 찬 시내 풍광이 아름답고
초인한류청경절
楣聯華藻寶輝增　문미에 이어진 시문은 보배의 빛이 넘친다
미연화조보휘증
秋深玩好楓杉老　깊은 가을 늙은 단풍과 삼나무 완상하고
추심완호풍삼로
夜靜心期月露澄　고요한 밤 마음은 맑은 달빛 이슬 기약한다
야정심기월로징
正眼方知眞境妙　바른 안목이라야 곧 진경의 오묘함 아노니
정안방지진경묘
幾人從古最先登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가장 먼저 올랐던고
기인종고최선등

* 송달수(宋達洙) : 1808(순조 8)~1858(철종 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수종재(守宗齋). 송시열(宋時烈)의 8대손으로, 아버지는 흠학(欽學)이며, 어머니는 연일정씨(延日鄭氏)로 진사 치환(致煥)의 딸이다. 송치규(宋穉圭)의 문인이다. 교관(敎官)을 거쳐 1847년

(헌종 13) 6품직에 올랐고, 1852년(철종 3)에는 경연관(經筵官)·사헌부의 지평(持平)·장령(掌令)을 역임하였으며, 이어서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고 1855년 승지에 이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학문에 힘써 예학과 성리학에 밝았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주로 이이(李珥)의 설을 따랐으며, 인물동이론(人物同異論)에서는 인물동성(人物同性)을 주장하는 낙론(洛論)을 지지하였다. 저서로는 《수종재집(守宗齋集)》이 있다.

57. 박홍양(朴弘陽) 제영시

백양산 스님이 쌍계루 시축을 보여주어서 차운하여 짓다.
[白羊山僧 以雙溪樓詩軸見示 次韻題]
[백양산승 이쌍계루시축견시 차운제]

시 제목: 쌍계루 현판 시를 차운하다[次雙溪樓板上韻][차쌍계루판상운]

未入白羊先遇僧　백양산에 오기 전에 먼저 스님을 만나
미입백양선우승
袖中詩卷臥遊能　소매의 시권을 보고 누워서 유람했네
수중시권와유능
異代文章留作鎭　고려시대 문장이 남아 쌍계루 보호하니
이대문장류작진
玆樓名勝寫誰增　이 누각의 명승을 누가 더 묘사할거나
자루명승사수증
遭地我今非子厚　내가 지금 만난 처지는 유자후[1]가 아니니
조지아금비자후
淸門誰復似圖澄　맑은 법문은 누가 다시 불도징[2]과 같으랴
청문수부사도징
溪聲山色如相卽　개울 소리와 산 빛이 하나가 된 듯하니
계성산색여상즉
托筆篇端替一登　시편 끝에 글을 기탁해 등반을 대신한다
탁필편단체일등

을묘년 11월 천거[3] 누객[4] 박홍양
[靑兎 復月 川居 纍客 朴弘陽][청토 부월 천거 류객 박홍양]

* 박홍양(朴弘陽) : 1818년(순조 18)~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중의(仲毅), 호는 천거(川居)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정랑(正郞) 박사휴(朴師休)의 후손으로, 고조는 현감(縣監) 박성원(朴成源)이고, 증조부는 참판(參判) 박종규(朴宗珪)이며, 조부는 판서(判書) 박윤수(朴崙壽)이다. 부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박제문(朴齊聞)과 모친 목사(牧使) 조제인(趙濟仁)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은 박원양(朴元陽)이다. 서제(庶弟)는 박무양(朴茂陽)이다.

---

1) 유자후(柳子厚) :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을 가리킨다. 자가 자후이다. 벼슬은 감찰어사(監察御史)·영주 사마(永州司馬)·유주 자사(柳州刺史)를 역임했다. 한유(韓愈)와 함께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 중 한 사람으로 세칭 유 유주(柳柳州)라 불린다.
2) 불도징(佛圖澄) : 진(晉) 나라 때의 스님으로, 본래 인도 사람인데 중국 낙양(洛陽)에 와서 북조(北朝)의 불법을 크게 일으킨 자이다. 도안(道安) 등의 제자를 길렀다. 그는 현술(玄術)에 묘통(妙通)하였다 한다.
3) 천거(川居) : 박홍량의 호이다.
4) 누객(纍客) : 유배되거나 좌천된 사람을 가리킨다.

부인은 이의(吏議) 정지용(鄭知容)의 딸이다. 1850년(철종 1) 증광시에서 진사에 합격하였고, 1851년(철종 2) 정시 문과에서 병과 1위로 급제하였다. 이후 부응교(副應敎)·헌납(獻納)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중국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1855년(철종 6)에는 오혁(吳爀) 등에게 죄목을 지적하며 탄핵을 하였는데, 역으로 파벌을 위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모함한다는 지적을 받아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58. 박홍양(朴弘陽)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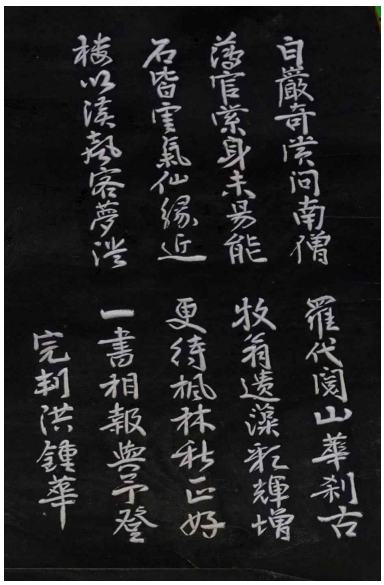
시 제목 : 산에 들어가 다시 노닐다.[入山復遊][입산부유]

靑山落日不逢僧　청산의 해질 녘 스님은 못 만났지만
청산낙일불봉승
洞口紅亭娛客能　동구의 붉은 정자 객을 즐겁게 한다
동구홍정오객능
度壑疎鍾聲自答　골짜기 너머 성긴 종은 절로 화답하고
도학소종성자답
圍檐高木影相增　처마를 두른 고목은 그늘이 짙어진다
위첨고목영상증
峰撑疊石瞻蒼拔　첩첩 바위 지탱한 봉우리 푸른빛 보고
봉탱첩석첨창발
澗匯雙流俯碧澄　감도는 두 물결 맑은 빛 내려다본다
간회쌍류부벽징
獨向雲門長嘯去　홀로 운문암 가며 긴 휘파람 부노니
독향운문장소거
吾將此地訪孫登　장차 이곳에서 손등[1]을 방문하리라
오장차지방손등

정사년 계춘에 천거 박홍양이 쓰다.[赤龍 季春 川居 朴弘陽 書][적룡 계춘 천거 박홍양 서]

1) 손등(孫登) : 손등이 휘파람 소리를 잘 냈다. 손등은 중국 급군(汲郡) 사람으로, 자는 공화(公和)이고, 호는 소문선생(蘇門先生)이다. 위(魏)나라 은사(隱士)이자 묘진도대종사(妙真道大宗師)이다. 오랫동안 소문산(蘇門山)에 은거했다. 박학다식하며 《역경(易經)》, 《노자(老子)》, 《장자(莊子)》 등의 서적을 좋아했으며 거문고에 능했다. 완적(阮籍)과 혜강(嵇康) 같은 인사들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59. 전주판관[完判] 홍종화(洪鍾華) 제영시



白巖奇賞問南僧　백암의 기특한 풍경 남녘 스님께 묻고서
백암기상문남승
薄官縈身未易能　미관말직에 몸이 매여 쉽게 찾지 못했네
박관영신미역능
羅代閱山華刹古　신라부터 이은 산문 화려한 절 예스럽고
나대열산화찰고
牧翁遺藻彩輝增　목은 선생 남긴 글은 오색 빛을 더한다
목옹유조채휘증
石皆雲氣仙緣近　바위는 다 구름기운 신선의 인연 가깝고
석개운기선연근
樓以溪聲客夢澄　누각의 개울 소리에 나그네 꿈 청정하다
누이계성객몽징
更待楓林秋正好　다시 가을 단풍 정히 좋을 때를 기다려
갱대풍림추정호
一書相報與予登　편지로 알려 주시면 나와 함께 올라보세
일서상보여여등

*홍종화(洪鍾華) : 1795년(정조 19) ~?.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 내실(乃實)이다. 홍집규(洪集圭)의 아들이며, 1840년(헌종 6) 생원에 합격했다. 음직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 공조좌랑(工曹佐郞), 창녕현감(昌寧縣監), 임천군수(林川郡守), 무주부사(茂朱府使), 전주판관(全州判官), 안주목사(安州牧使), 여주목사(驪州牧使),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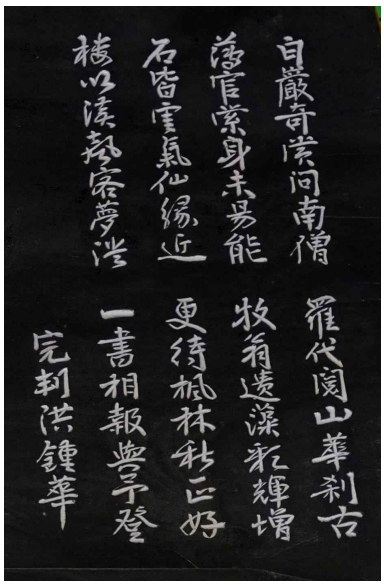
60. 청송(靑松) 후학(後學) 심무(沈懋)

問塵此日愧名僧　소식을 묻는 이날 명승께 부끄러우니
문진차일괴명승
勝事羊山續未能　백양사 좋은 유람 계속하지 못했다네
승사양산속미능
畵不傳眞紆想想　그림도 진경 못 전하니 상상만 감돌고
화부전진우상상
詩難寫妙悵懷增　시는 오묘한 묘사 어려워 아쉬움 더한다
시난사묘창회증
樓涵二水瓦構動　누각이 두 시내 머금어 기와가 일렁이고
누함이수와구동
月散千峰石氣澄　달빛은 천봉에 흩어져 바위 기운 청정하다
월산천봉석기징
更有編楣先偉蹟　다시 문미에 선현의 뛰어난 자취 있으니
갱유편미선위적
百年瞻聳?時登　먼 훗날 우러러 보며 잠시 올라본다
백년첨용?시등

정사년 윤월에 전주부 객관에 머물렀는데, 백양사의 민영 스님이 또한 여행 중에 나와 객사를 함께 하여 알게 되었다. 나에게 목은과 포은 및 여러 선배들의 시문과 편액 1권을 전하여 보여주고, 또 본 절의 승경을 그린 그림 한 폭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나에게 원래 시에 화운하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졸렬함을 잊고 차운하여 썼으니, 어찌 감히 그분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견주려고 하겠는가.
청송인 후학 심무.
[丁巳閏月 滯淹完府羈館 白羊寺旻映僧亦旅遊 同舍與之結識矣 傳示牧圃二老 及諸先輩詩文編額一卷 又示一幅畵之畵本寺勝狀者 而要我續和原韻 故忘拙謹次以書 豈敢曰匹美於其間哉
靑松 後學 沈懋]
[정사윤월 체엄완부羈관 백양사민영승역려유 동사여지결식의 전시목포이로 급제선배시문편액일권 우시일폭화지화본사승상자 이요아속화원운 고망졸근차이서 기감왈필미어기간재
청송 후학 심무]

* 심무(沈懋) : 본관은 청송. 심광세(沈光世, 1577～1624) 측실의 아들. 심광세는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전적·감찰을 거쳐 예조좌랑으로 지제교를 겸하고, 해운판관(海運判官)·부안현감 등을 지냈다. 문집《휴옹집(休翁集)》을 남겼다.

61. 전주판관[完判] 홍종화(洪鍾華) 제영시



白巖奇賞問南僧　백암의 기특한 풍경 남녘 스님께 묻고서
백암기상문남승
薄官縈身未易能　미관말직에 몸이 매여 쉽게 찾지 못했네
박관영신미역능
羅代閱山華刹古　신라부터 이은 산문 화려한 절 예스럽고
나대열산화찰고
牧翁遺藻彩輝增　목은 선생 남긴 글은 오색 빛을 더한다
목옹유조채휘증
石皆雲氣仙緣近　바위는 다 구름기운 신선의 인연 가깝고
석개운기선연근
樓以溪聲客夢澄　누각의 개울 소리에 나그네 꿈 청정하다
누이계성객몽징
更待楓林秋正好　다시 가을 단풍 정히 좋을 때를 기다려
갱대풍림추정호
一書相報與予登　편지로 알려 주시면 나와 함께 올라보세
일서상보여여등

*홍종화(洪鍾華) : 1795년(정조 19) ~?.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 내실(乃實)이다. 홍집규(洪集圭)의 아들이며, 1840년(헌종 6) 생원에 합격했다. 음직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 공조좌랑(工曹佐郞), 창녕현감(昌寧縣監), 임천군수(林川郡守), 무주부사(茂朱府使), 전주판관(全州判官), 안주목사(安州牧使), 여주목사(驪州牧使),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역임했다.

62. 청송(靑松) 후학(後學) 심무(沈懋)

問塵此日愧名僧　소식을 묻는 이날 명승께 부끄러우니
문진차일괴명승
勝事羊山續未能　백양사 좋은 유람 계속하지 못했다네
승사양산속미능
畵不傳眞紆想想　그림도 진경 못 전하니 상상만 감돌고
화부전진우상상
詩難寫妙悵懷增　시는 오묘한 묘사 어려워 아쉬움 더한다
시난사묘창회증
樓涵二水瓦構動　누각이 두 시내 머금어 기와가 일렁이고
누함이수와구동
月散千峰石氣澄　달빛은 천봉에 흩어져 바위 기운 청정하다
월산천봉석기징
更有編楣先偉蹟　다시 문미에 선현의 뛰어난 자취 있으니
갱유편미선위적
百年瞻聳舊時登　먼 훗날 예전에 올랐던 일을 우러러 보네
백년첨용구시등

정사년 윤월에 전주부 객관에 머물렀는데, 백양사의 민영 스님이 또한 여행 중에 나와 객사를 함께 하여 알게 되었다. 나에게 목은과 포은 및 여러 선배들의 시문과 편액 1권을 전하여 보여주고, 또 본 절의 승경을 그린 그림 한 폭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나에게 원래 시에 화운하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졸렬함을 잊고 차운하여 썼으니, 어찌 감히 그분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견주려고 하겠는가.
청송인 후학 심무.
[丁巳閏月 滯淹完府羈館 白羊寺旻映僧亦旅遊 同舍與之結識矣 傳示牧圃二老 及諸先輩詩文編額一卷 又示一幅畵之畵本寺勝狀者 而要我續和原韻 故忘拙謹次以書 豈敢曰匹美於其間哉
靑松 後學 沈懋]

* 심무(沈懋) : 본관은 청송. 심광세(沈光世, 1577~1624) 측실의 아들. 심광세는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전적·감찰을 거쳐 예조좌랑으로 지제교를 겸하고, 해운판관(海運判官)·부안현감 등을 지냈다. 문집《휴옹집(休翁集)》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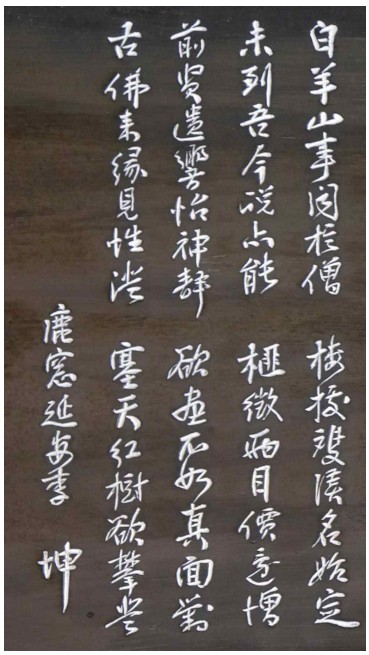
63. 무용산인(無用散人) 제영시

白羊形勝問來僧　백양산 형승을 오신 스님에게 묻나니
백양형승문래승
愧我淸流獨未能　맑은 유람을 홀로 하지 못해 부끄럽네
괴아청류독미능
往蹟縈情詩思苦　지난 자취는 정을 감돌아 시상이 괴롭고

왕적영정시사고
名區入夢客愁增　명승지는 꿈에 들어 객의 시름 더하누나
명구입몽객수증
一樓明月秋容淨　누각의 밝은 달빛에 가을 모습 청정하니
일누명월추용정
九寺寒鍾夜海澄　사찰의 차가운 종소리에 밤세계도 맑구나
구사한종야해징
臨別辛懃他日約　이별할 제 은근히 훗날의 약속을 맺노니
임별신근타일약
聯君丹錫共攀登　그대와 함께 붉은 지팡이로 등반하리라
연군단석공반등

완산에서 백양산 스님 민영(旻映)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도량의 고적(古蹟)을 내보여주었다. 한 산에 아홉 사찰이 있어 형승이 빼어나고, 누각이 두 시내에 놓여 있는데, “쌍계루”라고 한다. 포은과 목은의 시문이 걸려 있어서 후현들이 화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전체 시축을 열독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백양사로 갔다. 졸렬함을 잊고 삼가 원 시운에 맞춰 지어서 증정하다.
정사년 여름 무용산인.
邂逅白羊山人旻映於完山 出示其道場古蹟 一山九寺形勝超拔 有一樓枕二水 曰雙溪 揭二隱詩文 後賢無不和之 閱其全軸 不禁神往 忘拙謹步原韻以贈
丁巳夏無用散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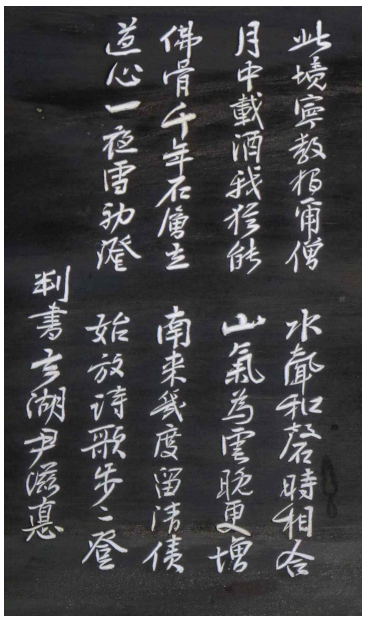
64. 녹창(鹿窓) 연안(延安) 이곤(李坤) 제영시



白羊山事聞於僧　백양산의 사적을 스님에게 들었으니
백양산사문어승
未到吾今說亦能　이르기 전에도 능히 설명할 수 있다네
미도오금설역능
樓據雙溪名始定　누각은 쌍계에 놓여 이름이 처음 정해졌고
누거쌍계명시정
榧徵兩目價還增　비자나무는 직접 보니 값이 더욱 넘친다
비징양목가환증
前賢遺響怡神靜　전현의 여운은 조용히 정신 기쁘게 하고
전현유향이신정
古佛來緣見性澄　고불이 오신 인연으로 견성이 청정하다
고불내연견성징
欲畵不如眞面對　묘사하고자 하나 진면목 대함만 못하니
욕화불여진면대
塞天紅樹欲攀登　하늘을 메운 단풍 숲을 한번 오르고자
색천홍수욕반등

*이곤(李坤) : 1462(세조 8)~1524(중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정(子靜), 호가 녹창(鹿窓)이다. 1492년(성종 2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98년(연산군 4) 병조좌랑·헌납을 지냈으며,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윤은보(尹殷輔)와 함께 장(杖) 70의 처벌을 받았다. 1506년(중종 1) 9월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고 연성군(延城君)으로 봉하여졌다. 1511년 첨지중추부사로 관압사(管押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밀양부사가 되었다. 이후 다시 철원부사·여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65. 판서(判書) 현호(玄湖) 윤자덕(尹滋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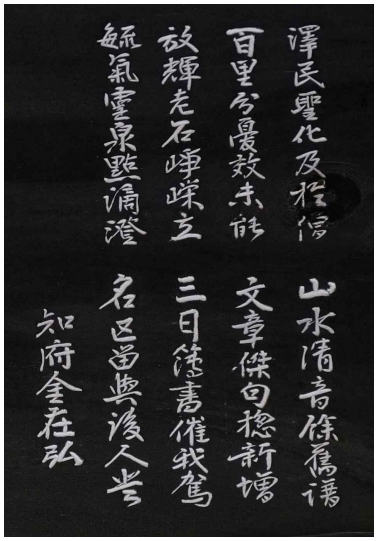


此境寧教獨爾僧　이 경계를 어찌 그대 스님만 누리는고
차경령교독이승
月中載酒我猶能　달빛에 나도 능히 술을 지니고 왔다네
월중재주아유능
水聲和磬時相合　물소리는 경쇠 소리와 때로 어우러지고
수성화경시상합
山氣爲雲晩更增　저물녘 산 기운은 구름으로 더 짙어진다
산기위운만갱증
佛骨千年石層立　사리 담겨진 천년의 바위 층층이 서있고
불골천년석층입
道心一夜雪初澄　도심은 하룻밤 새 눈빛으로 청정해진다
도심일야설초징
南來幾度留淸債　남쪽 와서 몇 번이나 맑은 유람 못했던가
남래기도류청채
始放詩歌步步登　비로소 마음껏 시 읊으며 걸음걸음 오른다
시방시가보보등

*윤자덕(尹滋悳) : 1827(순조 27)~1890(고종 27).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중수(仲樹), 호는 국헌(菊軒). 1848년(헌종 14)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했다. 이조참판을 거쳐 사헌부대사헌·지의금부사·규장각직제학·공조판서·경기도관찰사·예문관제학·홍문관제학·이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수릉친제(綏陵親祭) 때에는 찬례(贊禮)로 참석해 가자되었다. 정부가 개화자강(開化自强)의 방침 아래 관제개혁을 단행해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과 12사(司)를 설치할 때 상호군으로서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신사유람단이 귀국해 관제를 재개편하고 12사를 7사로 할 때, 전선사(典選司)와 통상사(通商司)의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에 임명되는

등 개혁정권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는 가옥이 피습 당하였다. 이어 선혜청제조·독판군국사무(督辦軍國事務)·판의금부사 등의 요직을 맡았다.

66. 장성부사(長城府使) 김재홍(金在弘) 제영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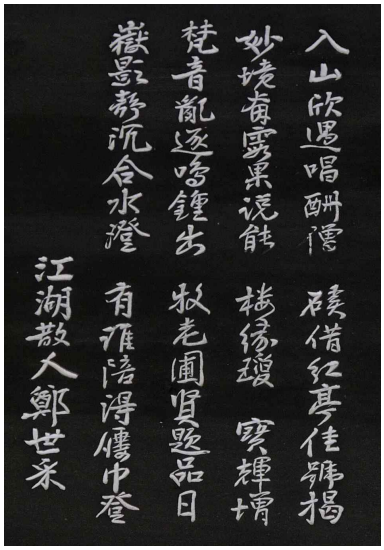
澤民聖化及於僧　백성에 끼친 성인의 은택 스님도 받았는데
택민성화급어승
百里分憂效未能　백리의 지방관[2)] 되어 공을 이루지 못했네
백리분우효미능
山水淸音餘舊譜　산과 물의 맑은 소리 옛 시보에 남아 있고
산수청음여구보
文章傑句摠新增　문장의 빼어난 구절 다 새롭게 빛을 더한다
문장걸구총신증
放輝老石崢嶸立　오래된 바위는 빛을 쏟아내며 우뚝 서있고
방휘로석쟁영입
毓氣靈泉點滴澄　신령한 샘은 기운 길러 맑게 뚝뚝 떨어진다
육기영천점적징
三日簿書催我駕　삼일의 문서 처리가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니
삼일부서최아가
名區留與後人登　명승지를 남겨 두어서 후인과 함께 오르고자
명구류여후인등

* 김재홍(金在弘) : 1815년(순조 15)~ ?.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치원(稚遠)이다. 음직으

1) 현판에 '지부(知府)'는 장성부사(長城府使)를 말한다. 김재홍은 1859년(철종 10)에 장성부사에 임명되었다.
2) 백 리의 지방관 : 백 리는 곧 옛날 한 현(縣)의 관할지가 100리였던 데서, 전하여 군현(郡縣)을 가리킨다. 시구 '분요(分憂)'는 근심을 나눈다는 의미로 곧 지방관이 된 것을 이른 말이다.

로 내주옹주환(內主饔主換), 시주(市主), 전부(典簿), 훈도(勳都), 시흥현감(始興縣監), 장성도호부사 등을 역임했다.

67. 강호산인(江湖散人) 정세채(鄭世采)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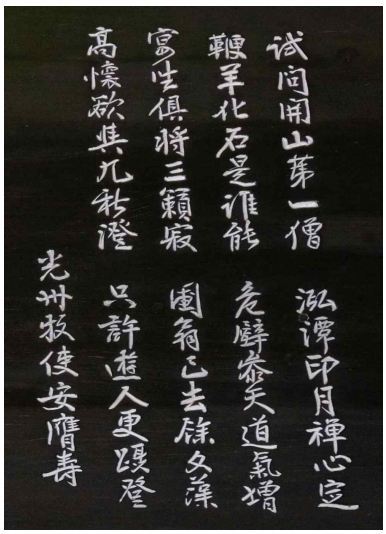


入山欣遇唱酬僧　산에 들어와 수창한 스님 만나 기쁘니
입산흔우창수승
妙境煙霞果說能　절묘한 풍광의 연하를 과연 말해주었네
묘경연하과설능
磎借紅亭佳號揭　시내는 홍정 빌려 아름다운 이름 걸었고
계차홍정가호게
樓緣瓊什寶輝增　누각은 주옥같은 시[1]로 보배의 빛 더한다
누연경집보휘증
梵音亂逐鳴鍾出　범패 소리는 어지럽게 종소리 따라 나오고
범음란축명종출
嶽影靜沈合水澄　산 그림자는 고요히 맑은 쌍계에 잠겼네
악영정침합수징
牧老圃賢題品日　목은과 포은선생이 시와 기문을 쓰던 날
목노포현제품일
有誰陪得屨巾登　누가 그분들의 뒤를 따라 모시고 올랐던가
유수배득구건등

*정세채(鄭世采): 생몰년, 행적 미상

1) 주옥같은 시[瓊什] : 본 시에 '집(什)'이 탈락되어 있으나, 보통 아름다운 시를 말할 때 '경집(瓊什)'을 자주 쓰기 때문에 우선 탈락한 시구를 '집(什)'으로 채워둔다.

68. 광주목사(光州牧使) 안응수(安膺壽)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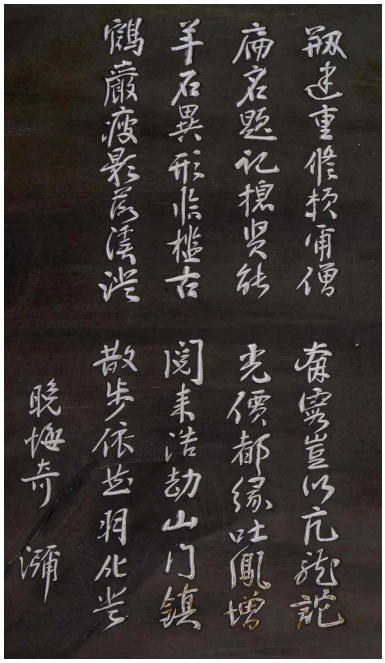
試問開山第一僧　산문을 연 첫 번째 스님께 시험 삼아 묻노니
시문개산제일승
鞭羊化石是誰能　누가 양을 채찍질하여 바위로 변하게 하였나[1)]
편양화석시수능
泓潭印月禪心定　깊은 연못에 달이 비춰 참선의 마음 고요하고
홍담인월선심정
危壁參天道氣增　가파른 벼랑은 하늘을 찌를 듯 도기가 넘친다
위벽참천도기증
宴坐俱將三籟寂　좌선한 선승은 삼뢰(三籟)[2)]와 함께 적적하고
연좌구장삼뢰적
高懷欲與九秋澄　고상한 회포는 깊어가는 가을처럼 청정해지네
고회욕여구추징
圃翁已去餘文藻　포은 선생은 이미 떠났지만 뛰어난 문장 남아
포옹이거여문조
只許遊人更躡登　다만 유람객이 다시 오르는 것을 허락하는구나
지허유인갱섭등

* 안응수(安膺壽) : 1804년(순조 4) ~ 1871년(고종 8).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자는 복경(福卿), 호는 학초(鶴樵)이다. 1831년(순조 31) 식년시(式年試)에서 진사가 되었다. 음직으로 홍릉참봉(弘陵參奉), 전생서 직장(典牲署直長), 형조좌랑(刑曹佐郎), 남평현감(南平縣監), 공주판관

1) 누가……하였나 : 이 구절은 중국의 황초평(黃初平)의 고사를 빗대어 백양산 바위의 빼어남을 말한 것이다. 《신선전(神仙傳)》〈황초평전(黃初平傳)〉에 따르면, 황초평이 양을 몰다가, 속세를 벗어나 금화산(金華山) 석실에서 수도하였는데, 형이 찾아와서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황초평이 백석(白石)을 채찍질 해 양으로 변하게 했다고 한다.
2) 삼뢰(三籟) : 인뢰(人籟) · 지뢰(地籟) · 천뢰(天籟)를 통틀어 한 말이다. 자연에서 울리는 온갖 소리를 말한다. 인뢰는 사람이 울리는 소리로 악기의 소리이고, 지뢰는 대지가 일으키는 소리로 바람 소리이고, 천뢰는 인뢰와 지뢰의 근본이 되는 대자연의 소리이다. 《장자》〈제물론(齊物論)〉에 나온다.

(公州判官), 영평군수(永平郡守), 부평부사(富平府使), 순흥부사(順興府使), 남원부사(南原府使), 광주목사(光州牧使)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

69. 만회(晩悔) 기미(奇瀰) 제영시



刱建重修賴爾僧　창건과 중수를 그대 스님께 힘입으니
창건중수뢰이승
扁名題記摠賢能　편액 이름과 기문 다 현능한 분이로다
편명제기총현능
煙霞豈以亢龍詑　연하를 어찌 항룡[1]이라 자랑하리요
연하기이항룡이
光價都緣吐鳳增　성가는 모두 토봉[2]의 솜씨로 더했네
광가도연토봉증
羊石異形臨檻古　백암의 기이한 형상 예부터 난간을 굽어보고
양석이형임함고
鶴巖瘦影落溪澄　학바위 여윈 그림자 맑은 시내에 떨어진다
학암수영락계징
閱來浩劫山門鎭　둘러보니 영겁의 세월동안 산문을 지키니
열래호겁산문진

---

1) 항룡(亢龍) : 《주역》〈건괘〉에 "'항룡(亢龍)이니 뉘우침이 있다.[亢龍有悔]'라고 하니, 공자(孔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귀하나 지위가 없고 높으나 백성이 없으며, 현인(賢人)이 하위(下位)에 있어 도와주는 이가 없다. 이 때문에 동(動)하면 뉘우침이 있는 것이다.[亢龍 有悔 子曰 貴而无位 高而无民 賢人 在下位而无輔 是以動而有悔也]'"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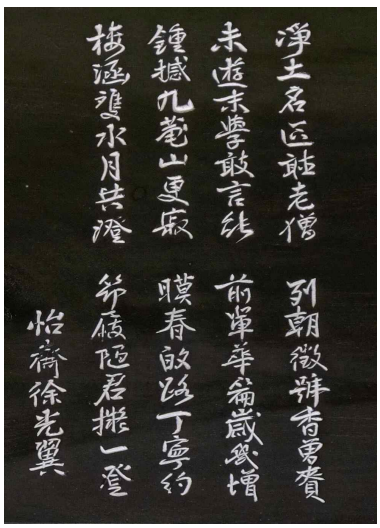
2) 토봉(吐鳳) : 입으로 토해 낸 봉황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시문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양웅(揚雄)이 명작 《태현경(太玄經)》을 지을 적에, 입으로 토해 낸 봉황이 그 책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경잡기(西京雜記)》

散步依然羽化登　산보하며 의연히 날아올라 신선이 될 듯
산보의연우화등

* 기미(奇瀰) : 1711(숙종37)~1793(정조17). 본관은 행주. 자는 계택(季澤), 호는 만회(晩悔)이다. 장성군 월평 출생. 문집으로 《만회유고(晩悔遺稿)》가 있다.

70. 이재(怡齋) 서광익(徐光翼)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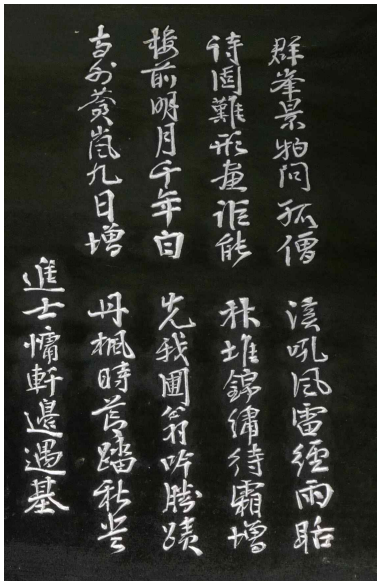
제목 : 삼가 백암산 쌍계루 포은과 목은 양선생의 시에 차운하다[謹次白巖山雙溪樓二隱兩先生韻]



淨土名區聽老僧　정토의 명승지를 노승에게서 들었으나
정토명구청노승
未遊未學敢言能　가보지 못한 말학이 감히 말할 수 있으랴
미유말학감언능
列朝徽號香曾賚　열조에서 휘호(徽號) 내려 향을 하사하였고
열조휘호향증뢰
前輩華篇歲幾增　옛 현인의 화려한 시편은 해마다 더해진다
전배화편세기증
鍾撼九菴山更寂　종은 구암을 흔들지만 산은 더욱 고요하고
종감구암산갱적
樓涵雙水月共澄　누각은 쌍계에 잠겨 달빛과 함께 청정하다
누함쌍수월공징
暝春歸路丁寧約　늦봄 스님 돌아가는 길에 간곡히 약속하니
막춘귀로정령약
笻屐隨君擬一登　지팡이와 나막신으로 그대를 따라 오르리라
공극수군의일등

*서광익(徐光翼): 1840(헌종 6)~?. 본관은 대구(大丘), 자가 성유(聖猷)이며, 호가 이재(怡齋)이다. 1858년(철종 9)에 생원이 되었다. 동몽교관(童蒙敎官), 와서별제(瓦署別提) 등을 지냈다.

71. 진사(進士) 용헌(慵軒) 변우기(邊遇基) 제영시



群峯景物問孤僧　뭇 산봉우리의 경물을 스님에게 물었더니
군봉경물문고승
詩固難形畫詎能　시로도 형용하기 어렵거늘 어찌 그리겠나
시고난형화거능
溪吼風雷經雨聒　풍뢰처럼 울리는 시내는 비가 내려 세차고
계후풍뢰경우괄
林堆錦繡待霜增　금수가 쌓인 숲은 서리를 기다려 짙어진다
임퇴금수대상증
樓前明月千年白　누각 앞의 명월은 천년토록 하얗게 빛나고
누전명월천년백
寺外蒼嵐九日澄　절 밖의 푸른 이내는 중구일[1]에 청정하다
사외창람구일징
先我圃翁吟勝蹟　앞서 포은 선생이 명승의 자취를 읊었나니
선아포옹음승적
丹楓時節踏秋登　단풍 드는 시절에 가을빛 밟으며 오르리라
단풍시절답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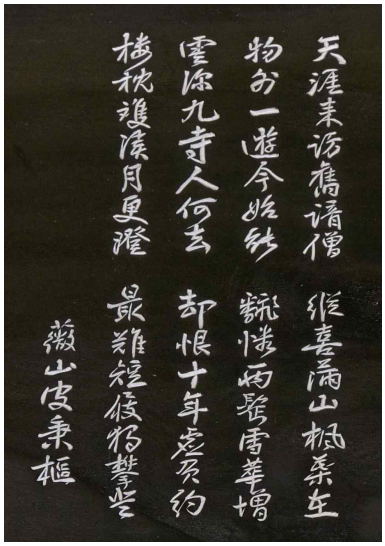
* 변우기(邊遇基) : 1792년(정조 16) ~ ?. 본관은 황주(黃州)이며, 부안(扶安) 출신이다. 1864년(고종 1년)에 진사가 되었다. 오위장(五衛將)이 되었으며, 문집으로《용헌유고(慵軒遺稿)》가 남아 있다.

1) 중구일 : 9월 9일, 즉 중양절(重陽節)을 말한다.

72. 미산(薇山) 피병추(皮秉樞) 제영시

정사년 여름에 민영스님을 완산에서 만났을 때, (민영스님이) 원운(原韻)을 증정하고 훗날의 기약을 남겼다. 정묘년 가을에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옛 시축을 읽을 때 나의 친필이 있는 것을 보고 감회가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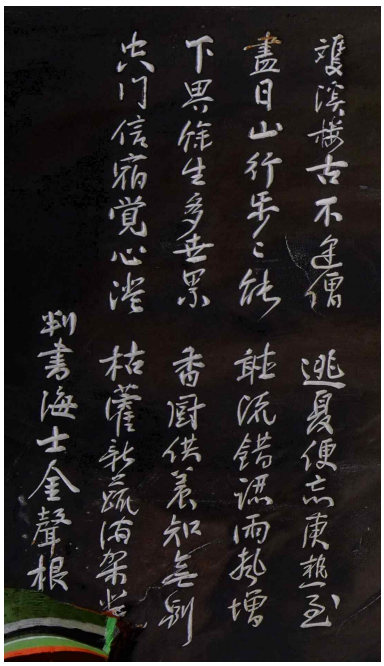
[丁巳夏 邂逅山人旻映於完山次 贈原韻 留後期 丁卯 秋 爲訪不遇 閱舊軸 見自己手蹟 不能無懷]



天涯來訪舊諳僧　옛날 알던 스님이 하늘 가로 방문하니
천애래방구암승
物外一遊今始能　세속 밖의 유람을 비로소 하게 되었네
물외일유금시능
縱喜滿山楓葉在　산에 가득한 단풍잎이 기쁘긴 하건만
종희만산풍엽재
翻憐兩鬢雪華增　되레 눈빛 귀밑머리 더해 가련하구나
번련양빈설화증
雲深九寺人何去　구름 깊은 구사에 사람은 어디로 갔나
운심구사인하거
樓枕雙溪月更澄　쌍계에 선 누각은 달빛에 더욱 맑아라
누침쌍계월갱징
恨十年虛負約　십년 약속 헛되이 저버려 못내 한하니
한십년허부약
最難短屐獨攀登　나막신으로 홀로 등반이 가장 어려워라
최난단극독반등

*피병추(皮秉樞) :조선 헌종 때 인물.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칠(景七), 호는 미산(薇山)이다. 학문이 넓고 문장이 뛰어났다.

73. 판서(判書)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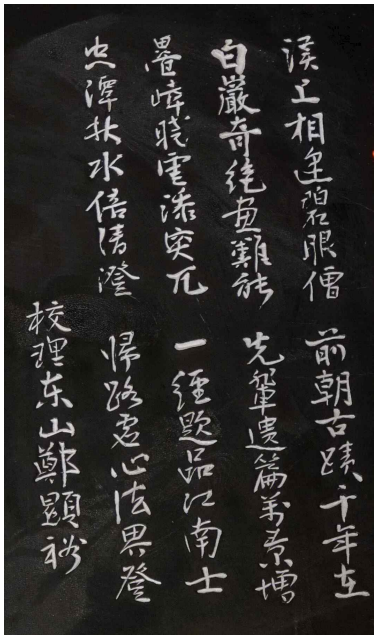


雙溪樓古不逢僧　쌍계의 옛 누각에서 스님은 못 만났으나
쌍계누고불봉승
盡日山行步步能　온종일 걸음걸음 능히 산길을 걸었노라
진일산행보보능
逃夏便忘庚熱至　더위를 피하니 삼복이 이른 것도 잊겠고
도하변망경열지
聽流錯認雨聲增　시냇물은 세찬 빗소리로 잘못 알았노라
청유착인우성증
下界餘生多世累　하계의 나의 여생 속세의 얽매임 많은데
하계여생다세루
空門信宿覺心澄　공문에서 묵으니 마음의 청정을 느낀다
공문신숙각심징
香廚供養知無別　절집 부엌의 공양은 차별 없음을 아나니
향주공양지무별
枯藿新蔬滿架登　마른 콩잎과 새 채소가 상 가득 올랐네
고곽신소만가등

*김성근(金聲根) : 1835(헌종 1)~1919. 조선 말기의 문신·서예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원(仲遠), 호는 해사(海士). 판서 온순(蘊淳)의 아들이다. 18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검열에서 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883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888년 이후 공조·형조·이조·예조 등 각 판서직을 두루 거쳤다. 1894년 개화파정권 성립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898년 궁내부특진관으로 다시 등용되어 1900년에는 의정부참정, 1902년에는 탁지부대신이 되었다. 1883년 전라감사로 있을 때에는 독직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곧 방

면되었다. 의정부참정으로 있을 때인 1900년에는 친일파이며 을미사변 때의 군부대신 안경수(安駉壽)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일본에 도망가 있는 유길준(兪吉濬) 등을 체포해 와서 처벌할 것도 주장하였다. 1910년 일제의 국권침탈 때에는 일제에 의하여 자작이 수여되었다. 서예에 뛰어났고 필체는 미남궁체(米南宮體)를 사용했다.

74. 교리(校理) 동산(東山) 정현유(鄭顯裕)



溪上相逢碧眼僧　시냇가에서 푸른 눈 스님을 만났으나
계상상봉벽안승
白巖奇絶畫難能　백암의 빼어남을 그려내기 어려워라
백암기절화난능
前朝古蹟千年在　고려의 옛 자취는 천년동안 남아있고
전조고적천년재
先輩遺篇萬景增　선배가 남긴 시구 온갖 풍경을 더한다
선배유편만경증
疊嶂曉雲添突兀　새벽 구름에 첩첩 산은 한결 돌출하고
첩장효운첨돌올
空潭秋水倍淸澄　투명한 연못 가을 물은 더욱 청정하네
공담추수배청징
一經題品江南士　한번 강남 선비들의 시험을 치르고서
일경제품강남사
歸路虛心法界登　돌아가는 길 마음 비워 법계에 오르네
귀로허심법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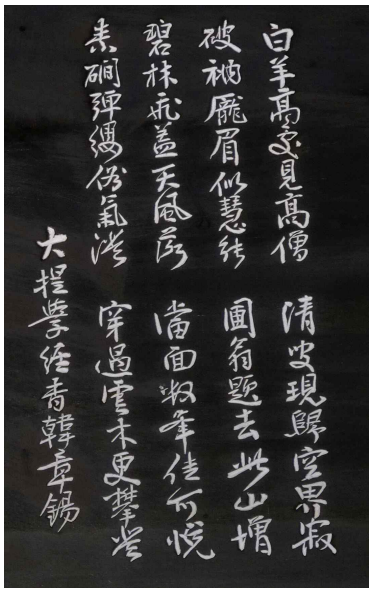
경인년(1866) 중추에 홍문관 교리 (전라)좌도 경시사 동산 생 정현유.

丙寅仲秋 弘文校理 左道京試使 東山生 鄭顯裕

* 정현유(鄭顯裕) : 1830년(순조 30)~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경세(景世)이다.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증조부는 정진노(鄭鎭魯)이고, 조부는 정홍사(鄭鴻師)이다. 부친 생원(生員) 정기화(鄭夔和)와 모친 심익상(沈翼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855년(철종 6) 식년시에서 생원이 되었다. 1860년(철종 11)에는 문과에 급제했다. 1861년(철종 12)에는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로 추천되었다. 이후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1864년(고종 1)에는 백규수(白奎洙) 등과 함께 수찬(修撰)에 임명되었다. 이후 부교리(副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868년(고종 5)에는 건원릉(健元陵) 등의 왕실 제사 때 대축(大祝)으로 참여하여, 품계를 올려 받았다. 이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ㆍ좌부승지(左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75. 대제학(大提學) 경향(經香) 한장석(韓章錫) 제영시

갑술년(1874) 맹하에 선비들의 시험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쌍계루에 올랐다. 편액의 시운을 차하여 인정(印正)[1] 상인에게 주었다.
甲戌 孟夏 試士歸路 登雙溪樓 次板上韻 贈印上人



白羊高處見高僧　백양산의 높은 곳에서 고승을 만나보니
백양고처견고승
破衲龐眉似慧能　헤진 가사와 흰 눈썹이 혜능[2]과 같구나
파납방미사혜능
淸叟現歸空界寂　청수[3] 스님은 공적한 세계로 돌아갔고
청수현귀공계적
圃翁題去此山增　포은은 시를 남겨 이 산의 빛을 더했다
포옹제거차산증
碧林飛盖天風落　푸른 숲 높은 가지는 천풍에 잎이 지는데
벽림비개천풍락
素澗彈纓俗氣澄　맑은 시내에 갓끈 터니 속기조차 청정하다
소간탄영속기징
當面數峰佳可悅　마주한 몇몇 봉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우니
당면수봉가가열

---

1) 원문에는 '印上人'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印)'자가 들어간 스님을 말한다. 쌍계루 제영시 가운데 송달수(宋達洙, 1808~1858)의 시가 있다. 시 서문에 "백암산의 인정상인(印正上人)이 쌍계루의 제영시를 초록(抄錄)하여, 멀리 와 화운시를 요청하기에 졸렬함을 잊고 삼가 차운하다.[白巖印正上人 爲抄雙溪樓題詠 遠來求和 忘拙謹步]"고 기록되었다. 이를 근거로 우선 '인정(印正)' 스님으로 추정하여 적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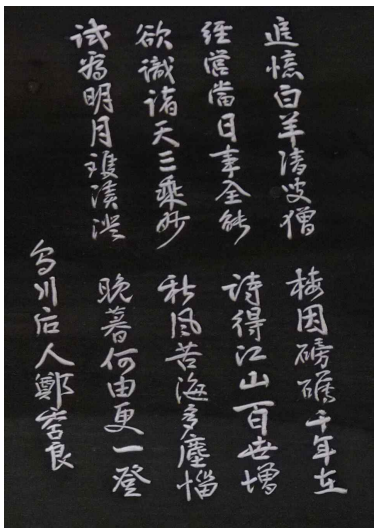
2) 혜능(慧能) : 638 ~ 713. 중국 당나라의 승려. 속성은 노(盧). 시호는 대감 선사(大鑑禪士). 육조 대사(六祖大師)라고도 한다. 중국 선종의 제6조로서, 남선종(南禪宗)이라는 파를 형성하였으며, 그의 설법을 기록한 《육조단경(六祖壇經)》이 전한다.

3) 청수(淸叟) : 쌍계루를 중수한 백양사 스님.

穿過雲木更攀登　구름숲 헤치면서 다시 부여잡고 오르리라
천과운목갱반등

*한장석(韓章錫) : 1832(순조 32)~1894(고종 31).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치수(穉綏) · 치유(穉由), 호는 미산(眉山) · 경향(經香). 1872년(고종 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873년 홍정후(洪正厚)와 같이 홍문관의 부수찬이 되고 교리와 부응교를 거쳐 1881년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882년 이조참의를 거쳐 1883년 1월에는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을 개편하여 만든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에 임명되어 호무(戶務)에 종사하였다. 같은 해 5월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 전선사(典膳司)를 관장하며 별시회시시관(別試會試試官)을 역임하였으며, 11월 예문관제학을 거쳐 이듬해 3월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86년 2월 홍문관제학, 같은 해 3월 예조판서, 1888년 형조판서, 1889년 이조판서, 같은 해 12월에 다시 예조판서, 이듬해 3월 함경도관찰사, 1891년에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유신환(兪莘煥)의 문하인 가운데 김윤식(金允植) · 민태호(閔台鎬)와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유명하였다. 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미산집》이 있다. 시호는 효문(孝文)이었으나,1910년 문간(文簡)으로 개시(改諡)되었다.

76. 오천(烏川)[1] 후인(后人) 정계량(鄭季良) 제영시



追憶白羊淸叟僧　백양사의 청수[2] 스님을 추억 하노니
추억백양청수승
經營當日事全能　당시 누각의 경영을 온전히 하였다네
경영당일사전능
樓因磅礴千年在　누각은 큰 기운으로 천년을 지속하고
누인방박천년재
詩得江山百世增　시는 강산의 도움[3]으로 백세에 빛난다
시득강산백세증
欲識諸天三乘妙　제천세계[4] 삼승[5]의 오묘함 알려거든
욕식제천삼승묘
試看明月雙溪澄　두 시내에 비친 밝은 달빛을 볼지어다
시간명월쌍계징
秋風苦海多塵惱　가을바람 이는 고해엔 번뇌가 많으니
추풍고해다진뇌
晩暮何由更一登　저무는 빛에 어찌 다시 한 번 올라볼까
만모하유갱일등

임신년 12월 오천 후인 정계량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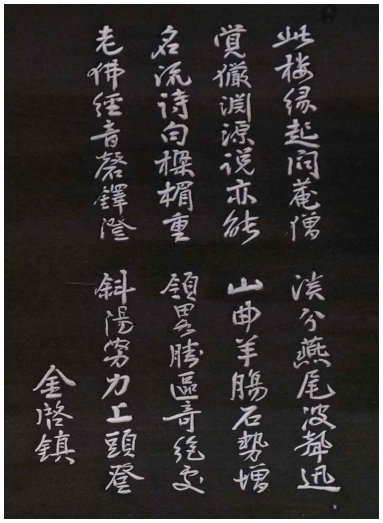
---

1) 오천(烏川) : 포은 정몽주의 호이다. 정계량은 정몽주의 후손이다.
2) 청수(淸叟) : 쌍계루를 중창한 백양사 스님이다.
3) 강산의 도움 : 산수의 풍경이 좋아서 사람의 흥취를 돋우어 좋은 시를 짓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당나라 장열(張說)이 악주(岳州)로 귀양 간 뒤로 시가 더욱 좋아지자 사람들이 “강산의 도움을 받았다.[得江山助]”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신당서(新唐書)》〈장열열전(張說列傳)〉
4) 제천세계 : 제천(諸天)은 불교에서 여러 천상(天上)의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 높은 곳에 위치한 절이나 암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두보(杜甫)의 시 〈부성현향적사관각(涪城縣香積寺官閣)〉에 “제천이 응당 등라 밖에 있으리니, 날이 어두워야 정상에 도달하리.[諸天合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라고 하였다.
5) 삼승(三乘) :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교법(敎法)으로, 즉 성문승(聲聞乘) · 연각승(緣覺乘) · 보살승(菩薩乘)의 세 가지 교법을 말한다.

壬申 十二月 烏川 后人 鄭季良 識

*정계량(鄭季良) : 1848(헌종 14)~?.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오천(烏川) 정몽주 후손이다. 1867년(고종 4) 생원이 되었다. 오위장(五衛將)·첨지(僉知) 등을 지냈다.

77. 김계진(金啓鎭)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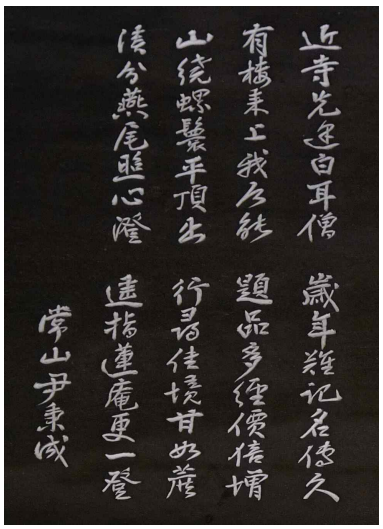
此樓緣起問菴僧　이 누각의 연기를 암자 스님께 물으니
覺儼淵源說亦能　각엄[1] 스님의 연원을 능히 말해준다
溪分燕尾波聲迅　시내는 연미처럼 갈라져 물소리 세차고
山曲羊腸石勢增　산은 양장같이 굽어 바위형세를 더한다
名流詩句樑楣重　명사의 시구로 대들보와 문미가 무겁고
老佛經音磬鐸澄　노승의 독경은 경탁과 어울려 청정하다
領略勝區奇絶處　명승지의 빼어난 풍경을 다 구경하려고
斜陽努力上頭登　석양빛에 힘을 내어 정상에 올라본다

을해년 9월 추농 김계진
乙亥 菊月 崔農 金啓鎭

*김계진(金啓鎭): 생몰년, 행적 미상.

1) 각엄(覺儼) : 1270-1355. 장성 백양사를 세 번째로 중창한 스님으로, 법명(法名)은 복구(復丘), 자호(字號)는 무언수(無言叟), 시호는 각진(覺眞)이다. 월남사와 송광사에도 40여 년 간 주석하며 수선사 제13세 조사로서 대중을 지도하였고, 백양사를 중창하였다. 쌍계루를 중창한 청수 스님이 각엄 스님의 조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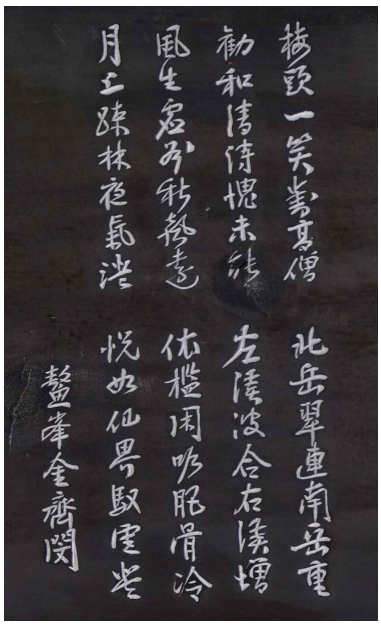
78. 상산(常山) 윤병성(尹秉成) 제영시



近寺先逢白耳僧　절 가까이서 먼저 흰 귀의 스님 만나니
근사선봉백이승
有樓來上我今能　누각이 있은 이후로 나는 이제야 오른다
유누래상아금능
歲年難記名傳久　기억하기 어려운 세월에 명성이 전해졌고
세년난기명전구
題品多經價倍增　많은 시로 평가하자 값이 한층 더해졌다
제품다경가배증
山繞螺鬟平頂出　소라처럼 둘러친 산에 정상이 솟아있고
산요나환평정출
溪分燕尾照心澄　연미처럼 나뉜 시내는 맑게 마음 비춘다
계분연미조심징
行尋佳境甘如蔗　사탕수수인양 즐겁게 아름다운 경치 찾아
행심가경감여자
遙指蓮庵更一登　멀리 백련암 가리키며 다시 한 번 오른다
요지련암갱일등

*윤병성(尹秉成) : 1829년(순조 29) ~ 미상. 본관은 남원(南原), 호가 상산(常山)이다. 음직으로 중부도사(中部都事)ㆍ돈령주부(敦寧主薄)ㆍ지례현감(知禮縣監)ㆍ김제군수(金堤郡守)ㆍ공주판관(公州判官) 등을 역임했다.

79. 오봉(鰲峰) 김제민(金齊閔)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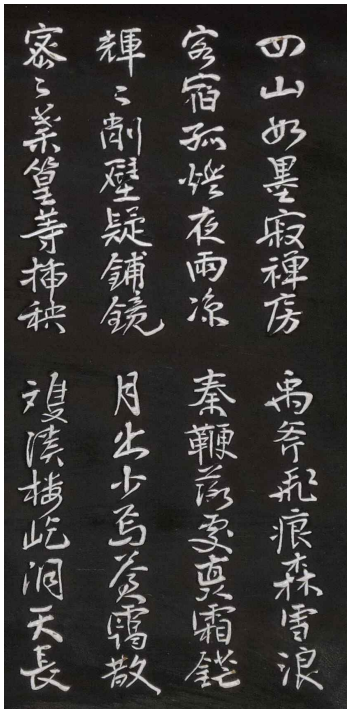


樓頭一笑對高僧　누각 위에서 한 번 웃으며 고승을 대면하니
누두일소대고승
勸和淸詩愧未能　맑은 시에 화운을 권하나 능치 못해 부끄럽네
권화청시괴미능
北岳翠連南岳重　북악의 푸른빛은 남악과 이어져 짙기만 하고
북악취연남악중
左溪波合右溪增　왼쪽 시내는 오른쪽 시내와 합해져 넘실댄다
좌계파합우계증
風生虛谷秋聲遠　바람이 빈 골짝에 이니 가을소리 멀리 들리고
풍생허곡추성원
月上疎林夜氣澄　달빛이 성긴 숲을 비추니 밤기운이 청정하다
월상소림야기징
依檻閑吟肥骨冷　난간에 기대 한가히 읊조리매 온 몸이 서늘하니
의함한음비골랭
悅如仙界馭雲登　어렴풋 구름 타고 신선세계에 오르는 듯하구나
황여선계어운등

*김제민(金齊閔) : 1527(중종 22)~1599(선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효(士孝), 호는 오봉(鰲峰). 할아버지는 보현(溥賢)이고, 아버지는 호(灝)이며, 어머니는 김석옥(金錫沃)의 딸이다. 이항(李恒)의 문인이다. 1573년(선조 6)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형조의 낭관(郎官)을 거쳐 화순현감 · 순창군수, 1586년 전라도사를 지낸 뒤 병으로 사퇴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대둔산 아래 주둔, 왜군을 맞아 싸웠고, 난이 끝난 뒤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특히,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에 정통하였고, 많은 저서가 있었으나 전란으로 거의 타버렸다. 저서로는 《오봉유고》가 있다. 시호는 충강(忠剛)이

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80. 관찰사(觀察使) 이돈상(李敦相) 첫 번째 제영시



四山如墨寂禪房　사방은 먹빛 어두움 선방은 적적한데
사산여묵적선방
客宿孤燈夜雨涼　등잔불에 객이 묵으니 밤비가 처량하다
객숙고등야우량
禹斧飛痕森雪浪　우임금의 도끼[1]로 눈빛 물결 가득하고
우부비흔삼설랑
秦鞭落處矗霜鋩　진나라 채찍[2]에 서리 바위가 우뚝하다
진편락처촉상망
輝輝削壁疑鋪鏡　깎아지른 절벽은 거울을 펼친 듯 빛나고
휘휘삭벽의포경
密密葉篁等插秧　무성한 대나무는 모를 심은 듯 빽빽하다
밀밀엽황등삽앙
月出少焉蒼靄散　달이 뜨자 잠깐 새에 푸른 노을 흩어져
월출소언창애산
雙溪樓屹洞天長　유장한 동천[3]에 쌍계루 높이 솟아 있네

---

1) 우임금의 도끼[禹斧] : 우 임금이 천하 하천(河川)의 물길을 다스릴 적에 도끼로 용문산(龍門山)을 끊어 물길이 통하게 했다고 한다.《회남자(淮南子)》
2) 진나라 채찍 : 진 시황(秦始皇)이 바다를 건너서 해 돋는 곳을 보고자 하여 돌다리를 놓으려고 하였는데,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바다로 돌을 내몰자, 돌들이 저절로 바다로 달려갔다. 돌이 빨리 가지 않자 신인이 돌을 채찍질을 하매 돌에서 피가 흘렀는데, 지금도 그 돌들은 모두 붉다고 한다.《예문유취(藝文類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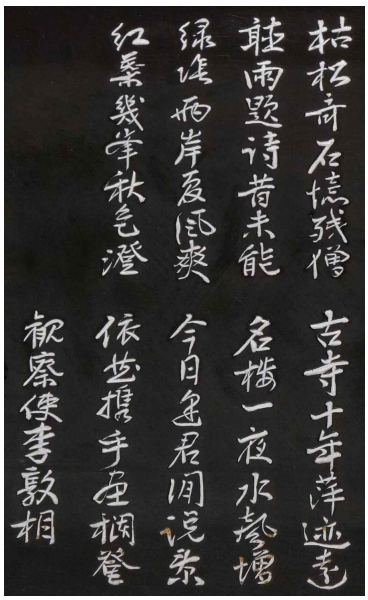
쌍계누흘동천장

무진년(1868) 여름 사월.
戊辰 夏 四月

* 이돈상(李敦相) : 1815(순조 15)~?.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공후(公厚). 원응(源膺)의 아들이다. 판관(判官)으로 있으면서 1864년(고종 1) 음직인 경과증광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바로 대사간에 중용되었으며, 1866년 영건도감(營建都監)의 일에 참여하여 근정문의 상량문 서사관(書寫官)을 지냈다. 1869년 이조참의가 되었으며, 1873년 다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예방승지를, 그해 12월 동의금부사를 지냈다. 1876년 이조참판이 되었고, 그해 7월 전라감사에 제수되었다. 1880년 1월 전라감사 재임시의 공을 인정받아 정경(正卿)으로 승진 발탁되었으며, 그해 2월 공조판서가 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감시복시(監試覆試)의 시관의 일로 인하여 전라도 고금도로 정배되는 징계를 받았으나, 9월에 석방되었다. 1881년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5월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3) 동천(洞天) : 신선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81. 관찰사(觀察使) 이돈상(李敦相) 두 번째 제영시



枯松奇石憶殘僧　마른 솔 기이한 바위에 남은 스님 추억하니
고송기석억잔승
聽雨題詩昔未能　빗소리 들으며 시 짓는 일 예전에 못했었지
청우제시석미능
古寺十年萍迹遠　옛 절에서의 십년 부평초 자취 아득하건만
고사십년평적원
名樓一夜水聲增　하룻밤에 이름난 누각의 물소리만 세차구나
명누일야수성증
綠陰兩岸夏風爽　양쪽 언덕의 녹음에 여름 바람이 상쾌했고
녹음양안하풍상
紅葉幾峯秋色澄　몇몇 봉우리의 붉은 잎은 가을빛이 청정했네
홍엽기봉추색징
今日逢君閒說景　오늘 그대 만나 한가롭게 풍경을 이야기하며
금일봉군한설경
依然携手畫欄登　예전처럼 손을 맞잡고 채색 난간에 올랐노라
의연휴수화난등

내가 수의(繡衣: 어사)로서 일찍이 쌍계루에 올랐는데 능히 시를 짓지 못하였다. 10년 후에 관찰사로 와서 선화당[1]에 앉았는데, 장성 유학자 곽경종(郭景鍾)이 나를 방문하여 쌍계루에서 지은 포은의 시를 낭송하고 인하여 화답을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즉시 읊어서 증정하고 새겨서 걸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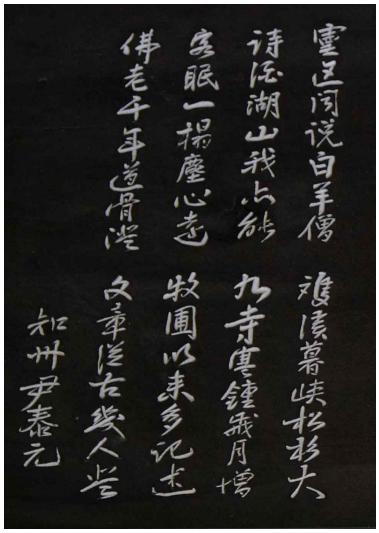
무인년((1878) 관찰사 이돈상.

余以繡衣 曾登雙溪樓 未克題詩 後十年按節來 坐宣化堂 長城郭儒景鍾訪余 誦雙溪樓作圃隱詩

1) 선화당(宣化堂) : 각 도의 관찰사가 사무를 보던 정당(正堂).

韻 仍請和 故率爾吟贈 使之刻揭
戊寅 觀察使 李敦相

82. 지주(知州)[1] 윤태원(尹泰元) 제영시



靈區聞說白羊僧　신령한 명승지를 백양사 스님께 듣고서
영구문설백양승
詩酒湖山我亦能　나도 시와 술을 지니고 호산을 방문했네
시주호산아역능
雙溪暝峽松杉大　쌍계의 저문 골짜기에 솔과 삼나무 크고
쌍계막협송삼대
九寺寒鍾歲月增　구사의 차가운 종소리에 세월이 깊어간다
구사한종세월증
客眠一榻塵心遠　선탑에 잠든 나그네 속된 마음 멀어지고
객면일탑진심원
佛老千年道骨澄　천년 묵은 늙은 부처 도골이 청정하여라
불노천년도골징
牧圃以來多記述　목은과 포은 이래로 기술한 분 많건마는
목포이래다기술
文章從古幾人登　예로부터 몇 명이나 문장의 경지 올랐나
문장종고기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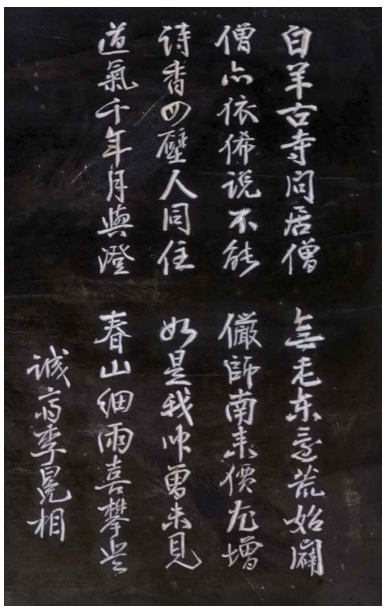
기축년(1889) 10월 하한[하순] 윤태원.
己丑 十月 下澣 知州 尹泰元

---

1) 윤태원이 이 무렵 금산군수(錦山郡守)로 있었는데 나주목사(羅州牧使)를 대행하게 되었다. 여기서‘지주(知州)’란 나주목사(羅州牧使)를 말한다.

*윤태원(尹泰元) : 1833년(순조 33)~1906년(광무 10). 조선 말기 문관. 자는 정보(正甫)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거주지는 경기도 양주(楊州)이다. 1865년(고종 2) 식년시에 진사가 되었다. 관직은 금산군수(錦山郡守)·장수현감(長水縣監)·평양서윤(平壤庶尹)·동지돈령원사(同知敦寧院事) 등을 역임한 후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되었다. 신식 별기군(別技軍)과의 차별과 군제개혁에 반대하여 종래의 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壬午軍亂)의 화가 궁궐에까지 미치자 1882년(고종 19) 임금의 피난을 수행하여 공로를 세웠다. 1886년(고종 23) 금산군수 재임 시절의 선정(善政)으로 표창(表彰)되었다. 충정(忠貞) 시호를 받았다.

83. 성재(誠齋) 이면상(李冕相) 제영시



白羊古寺問居僧　백양사 옛 사찰을 거주하는 스님께 물었더니
백양고사문거승
僧亦依俙說不能　스님 역시 어렴풋하여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승역의희설불능
無老東還荒始闢　무열장로[1] 동쪽 오자 황무지가 처음 열렸고
무노동환황시벽
儼師南下價尤增　각엄선사 남녘 내려오자 값이 한층 더했다네
엄사남하가우증
詩香四壁人同住　사방 벽의 향기로운 시에 사람이 함께 머물고
시향사벽인동주
道氣千年月與澄　천년의 불법 기운은 달빛과 함께 청정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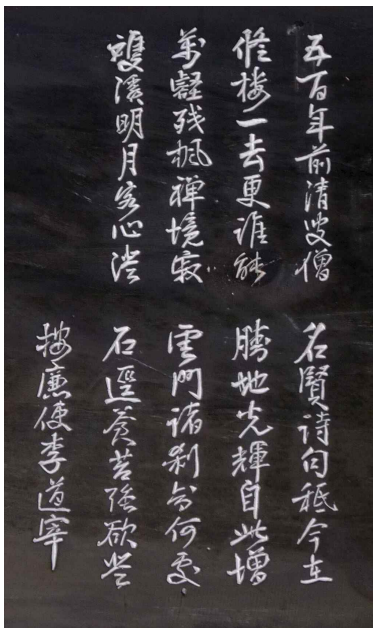
1) 무열장로(無說長老) : 생몰년 미상. 굉연무열(宏演無說) 선사로 고려시대 승려로, 자가 무열(無說)이고, 호는 죽간(竹澗)이다. 설봉충감(雪峰沖鑑)의 제자이다. 목은 이색과 친분이 두터워 시를 주고받기도 했다. 《동문선》에 무열의 시가 남아 있다. 정도전이 지은 〈백암산 정토사 교루 기문[白巖山淨土寺橋樓記]〉에서 무열 선사를 언급하였다. 무열 선사는 백양사의 빼어난 풍광과 내력을 이야기 하며 정도전에게 기문을 청하였다.

도기천년월여징
如是我聞曾未見　불가의 진리[1]를 내 일찍이 듣지 못하였지만
여시아문증미견
春山細雨喜攀登　봄 산의 가랑비에 기쁘게 부여잡고 오르노라
춘산세우희반등

*이면상(李冕相) : 1846(헌종 12)~ ?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규(聖圭), 호가 성재(誠齋)이다. 종영(種永)의 아들로 종정경 승수(升洙)에게 입양되어 완원군(完原君)유명(惟命)의 손자가 되었다. 1889년(고종 26) 친림경무대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자마자 승정원우부승지에 파격적으로 임명되었고, 다음해에는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892년 전라도암행어사가 되어,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수령구임법(守令久任法)이 필요하며, 계방촌(契防村)을 혁파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몹시 재물을 탐하고 호기롭던 운봉(雲峰)의 향리출신인 박문달(朴文達)을 잡아 가두고 뇌물을 빼앗으려고도 하였다고 한다. 그해 영선사(領選使)의 후신격인 제2대 주진독리(駐津督理)로 중국 톈진(天津)에 약 반년 동안 파견되었다. 고종은 그에게 무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제작술의 학습과 말썽이 되고 있던 청나라 선박의 한강 정기운항의 중지 등을 이홍장(李鴻章)과 상의하고, 또 상해(上海)·북경(北京)의 정세를 염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진독리(駐津督理)였던 덕분에 그의 아들이 왕명으로 복시(覆試)의 방말(榜末)에 붙었다. 신식제도를 대폭 채용하고, 불필요한 관원을 대량 퇴직시킨 갑오경장 이후에는 한동안 등용되지 못하다가, 수구파가 정계에 복귀하여 정권을 잡았던 건양·광무 연간에는 많은 구관료들처럼 중추원의관·궁내부특진관·봉상시제조·동지돈녕원사 등 왕실의 전례에 관련된 직책을 역임하였다.

1) 불가의 진리[如是我聞] : '여시아문(如是我聞)'은 불타(佛陀)가 입적(入寂)할 때 다문(多聞)으로 제일가는 제자 아난(阿難)에게, 자기가 생전에 설(說)한 법문을 모아서 경전(經典)으로 꾸밀 때에는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으레 이 네 글자를 놓아서 외도(外道)의 것과 구별하라고 부촉(付囑)한 데서 생긴 말이다.

84. 안렴사(按廉使)[1] 이도재(李道宰)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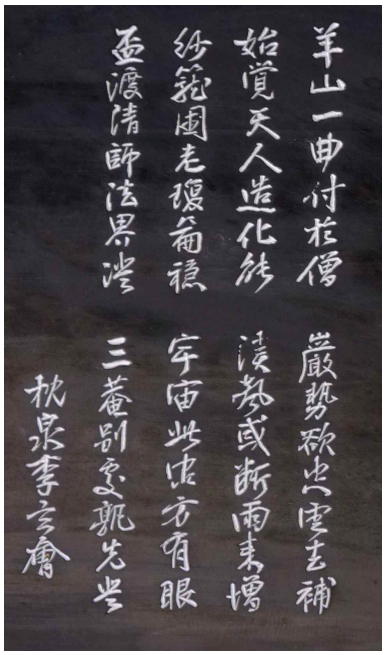
五百年前淸叟僧　오백년 전에 청수(淸叟)[2] 스님께서
오백년전청수승
修樓一去更誰能　누각 짓고 떠난 후 누가 다시 중수했나
수누일거갱수능
名賢詩句祇今在　명현의 시구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으니
명현시구지금재
勝地光輝自此增　명승지의 찬란한 빛 이로부터 넘쳤어라
승지광휘자차증
萬壑殘楓禪境寂　만학의 남은 단풍에 선의 세계 적적하고
만학잔풍선경적
雙溪明月客心澄　쌍계의 밝은 달에 객의 마음 청정하다
쌍계명월객심징
雲門諸刹知何處　운문암 여러 사찰은 어느 곳에 있는고
운문제찰지하처
石逕蒼苔强欲登　푸른 이끼가 낀 돌길을 애써 오르고자
석경창태강욕등

* 이도재(李道宰) : 1848(헌종 14) ~ 1909. 본관 연안(延安). 자 성일(聖一). 호 심재(心齋) ·운정(筠汀). 시호 문정(文貞). 1882년(고종 19) 생원으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886년 호군(護軍)으로 있을 때 사대당에 의해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다가 1894년 개화당(開化黨) 정

1) 안렴사(按廉使)는 고려시대 관직명으로, 조선 시대 관찰사를 가리킨다. 아마도 당시까지도 통용 되어 쓰였기 때문에 '안렴사'로 기록한 듯하다.
2) 청수(淸叟) : 초명은 군보(君保)이시고 이름은 징(澄)이며, 호는 매촌(梅村) 이었으나 출가하시여 법명(法名)이 청수(淸叟), 법호(法號)가 운암대사(雲菴大師)이다. 청수는 고려 때 백양사의 주지를 지냈다. 경술년(1370) 비바람에 쌍계루가 무너지자 중수하고, 명사들에게 시와 기문을 청하여 남겼다.

부가 수립되자 풀려났다. 같은 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전봉준(全琫準)을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했고, 1895년 지방관제 개혁 때 전주부관찰사(全州府觀察使)가 되었다. 군부대신을 거쳐 학부대신(學部大臣)이 되었으나 단발령(斷髮令)을 반대하여 사직했다. 뒤에 재차 학부대신이 되어 1898년(광무 2) 지석영(池錫永)에게 한성의학교(漢城醫學校) 설치를 인가하여 한국 최초의 서양의학기관의 설립을 보게 했다. 그 후 내부대신을 거쳐 시종원경(侍從院卿)이 되었다. 글씨에 뛰어났다.

85. 침천(枕泉) 이현회(李玄會)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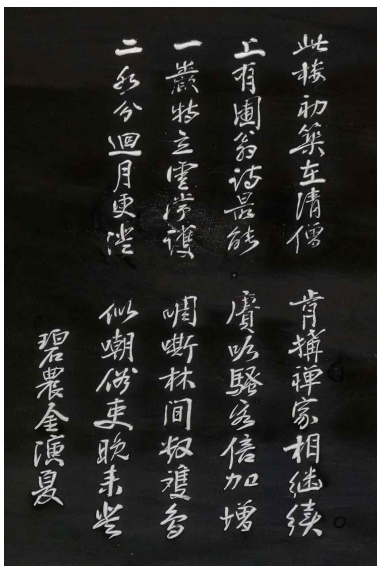
羊山一曲付於僧　백양산 한 굽이를 청수 스님께 부촉하니
양산일곡부어승
始覺天人造化能　천인의 조화로운 솜씨를 비로소 느꼈노라
시각천인조화능
巖勢欲空雲去補　바위는 허공에 솟아 구름이 흘러 떠받치고
암세욕공운거보
溪聲或斷雨來增　시내소리는 끊겼다가 비가 내려 세차구나
계성혹단우래증
紗籠圍老瓊篇穩　푸른 깁[1]은 포은의 아름다운 시를 보호하고
사롱포노경편온

1) 푸른 깁[紗籠] : 사롱(紗籠)은 벽사롱(碧紗籠)의 준말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푸른 깁으로 감싸서 벽에 쓴 시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당나라 왕파(王播)가 어려서 가난하여 양주(楊州) 혜소사(惠昭寺) 목란원(木蘭院)의 객이 되어 글을 읽으며 승려들을 따라 잿밥〔齋食〕을 얻어먹었는데, 승려들이 염증을 내어 재가 모두 파한 뒤에야 종을 치곤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뒤에 왕파가 중한 지위에 있다가 이 지방에 출진(出鎭)해서 그 절을 찾아갔더니, 지난날 자기가 벽에다 써 놓은 시를 벌써 푸른 비단으로 감싸 놓고 있었으므로, 그 시의 뒤에 "이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오늘에야 푸른 깁으로 장식되었구나.〔二十年來塵撲面 如今始得碧紗籠〕"라고 써넣은 고사가 있다. 《唐摭言 起自寒苦》

盃渡淸師法界澄　술잔을 타는[1] 청수 스님 법계를 맑게 했네
배도청사법계징
宇宙此間方有眼　넓은 천하에서 이곳에 바야흐로 장관 있으니
우주차간방유안
三菴別處孰先登　삼암(三菴)이 이별한 곳을 누가 먼저 오를까
삼암별처숙선등

* 이현회(李玄會)[2] : 1797(정조 21)~? 본관은 전의(全義), 자가 주경(周卿)이다. 고부(古阜)에 거주하였다. 진사에 오른 인물로 보인다. 1822년(순조 22)에 진사가 되었다.

86. 벽농(碧農) 김연하(金演夏) 제영시



此樓初築在淸僧　이 누각은 청수 스님이 처음 건축하였으니
차누초축재청승
上有圃翁詩最能　위에는 가장 뛰어난 포은의 시가 걸려있다
상유포옹시최능
肯搆禪家相繼續　대를 이어 선가(禪家)는 서로 계속 되었고
긍구선가상계속
賡吟騷客倍加增　화답하여 읊조리던 시객들 배나 더 늘었다
갱음소객배가증
一巖特立雲常護　우뚝한 백암 바위는 구름이 항상 보호하고
일암특립운상호
二水分迴月更澄　나뉘어 감도는 두 시내 달빛에 더 청정하다
이수분회월갱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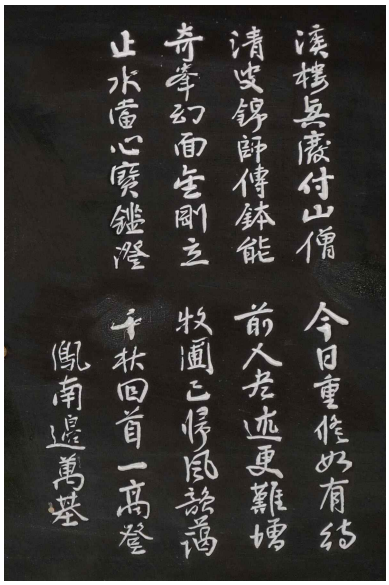
---

1) 술잔을 타는 :배도화상
2) 이현회에 대해서는 현판에도 다른 정보가 있지 않아서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 우선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등재된 이현회란 인물로 추정하여 인물정보를 적어 둔다.

啁嘶林間數雙鳥　몇 쌍의 새들은 수풀 사이에서 울어대니
조시림간수쌍조
似嘲俗吏晩來登　늦게서야 오르는 속리(俗吏)를 조롱하는 듯
사조속리만래등

*김연하(金演夏) : 1864-1938.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호가 벽농(碧農)이다. 훈련부정(訓鍊副正) · 선전관(宣傳官) · 병조좌랑(兵曹正郎) · 형조정랑(刑曹正郎) · 낙안군수(樂安郡守) · 인동부사(仁同府使) · 공주영장(公州營將) 등을 역임했고, 1900년 이후에는 외부주사(外部主事) · 삼화감리서주사(三和監理署主事) · 옥구감리서주사(沃溝監理署主事) · 동래감리서주사(東萊監理署主事) · 도사무관(道事務官) 등을 지냈다.

87. 봉남(鳳南) 변만기(邊萬基)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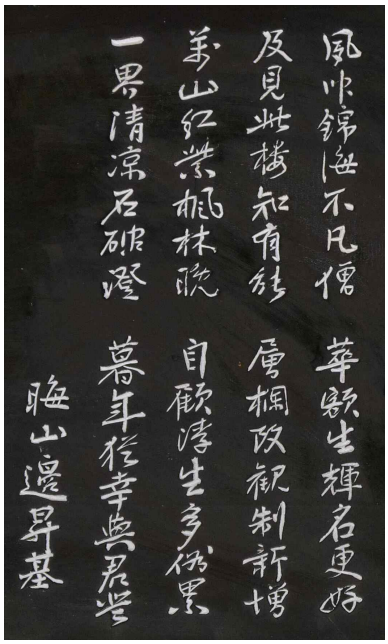
溪樓興廢付山僧　쌍계루의 흥폐를 산승에게 맡겼더니
계누흥폐부산승
淸叟錦師傳鉢能　청수와 금해[1] 스님 의발을 전하였네
청수금사전발능
今日重修如有待　오늘날의 중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금일중수여유대
前人盡述更難增　전인이 다 서술하여 더하기 어렵구나
전인진술갱난증
奇峯幻面金剛立　기암의 환상적인 모습 금강처럼 서있고
기봉환면금강립
止水當心寶鑑澄　명경지수는 가슴 비춰 거울처럼 청정하다

1) 청수(淸叟)와 금해(錦海) : 고려 공민 19년(1370)에 청수선사(淸叟禪師)가 쌍계루를 건축했고, 광무 4년(1900)에 금해선사(錦海禪師)가 쌍계루를 중창했다.

지수당심보감징
牧圃已歸風韻譾　목은과 포은은 가고 풍운만 가득하니
목포이귀풍운애
千秋回首一高登　천 년 전을 추억하며 높이 한번 오른다
천추회수일고등

*변남기(邊萬基) : 1858~?. 본관은 황주(黃州)이며, 전라남도 장성군에 거주했다. 그는 《봉남일기(鳳南日記)》를 남겼는데, 이 일기는 1894년부터 대략 30년 동안의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기는 한국전쟁으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지금은 1894~1903년인 10년 동안의 일기만 남아 있다. 그가 남긴 기록 가운데 특히 앞부분에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 봉기 때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동태와 관군, 일본군과의 접전 상황, 지방민의 동향 등이 상세하게 쓰여 있으며 당시의 물가 시세가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88. 회산(晦山) 변승기(邊昇基)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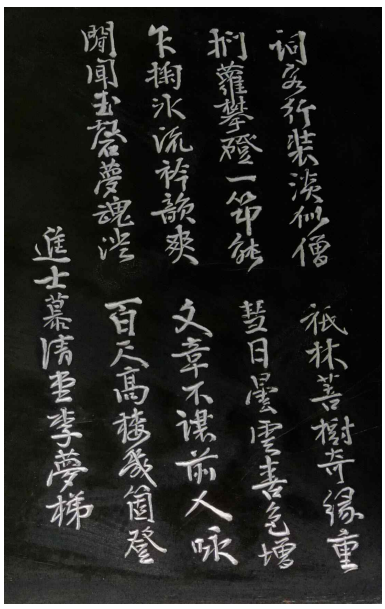
夙聞錦海不凡僧　일찍 금해[1]가 비범한 스님이라 들었더니
숙문금해불범승
及見此樓知有能　이 누각 보고서 능력 있는 줄을 알았노라
급견차누지유능
華額生輝名更好　화려한 편액은 빛나서 이름이 더욱 좋고
화액생휘명갱호
層欄改觀制新增　층층 난간은 모습 바꿔 규모를 새로 늘렸다

1) 금해(錦海) : 쌍계루를 중창한 백양사 스님이다. 광무 4년(1900)에 쌍계루를 재건했다.

층란개관제신증
萬山紅紫楓林晩　만산의 울긋불긋한 단풍 숲은 저물어 가고
만산홍자풍림만
一界淸凉石磴澄　청량한 별천지에 돌 시내는 청정하기만
일계청량석간징
自顧浮生多俗累　돌아보니 덧없는 삶 속세의 허물만 많은데
자고부생다속루
暮年猶幸與君登　늘그막에 다행히 그대와 함께 오르는구나
모년유행여군등

*변승기(邊昇基) : 1866~1937.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처명(處明), 호는 회산(晦山)이다. 장성 장안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신호 김녹휴, 송사 기우만을 종유했다. 1907년 장지연의 추천으로 대한매일신보사에 들어가 편집부 주간으로 활약하였으며, 호남 선비들과 호남학회를 창설하고 학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의 저술로는 〈동서이유록(東西二遊錄)〉, 〈금강록(金剛錄)〉이 있고, 문집으로 《화산집(晦山集)》을 남겼다.

89. 진사(進士) 모청당(慕淸堂) 이몽제(李夢梯)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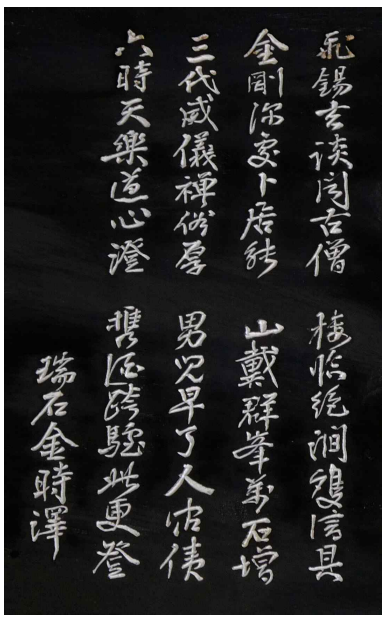
詞客行裝淡似僧　시객의 행장은 스님처럼 담박하니
사객행장담사승
捫蘿攀磴一笻能　지팡이로 넝쿨 잡으며 오를 수 있네
문나반등일공능
祇林菩樹奇緣重　기림[1] 보리수에 기이한 인연 무겁고

1) 기림(祇林) : 중인도(中印度) 사위성(舍衛城) 남쪽에 있던 기타 태자(祇陀太子)의 동산에 수달장자(須達長者)가 이 땅을 사서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하여 명명하였다. 후대에는 절을 두루 이르는 말로 쓰인다.

기림보수기연중
彗日曇雲喜色增　혜일과 담운[1]에 기쁜 빛이 넘친다
혜일담운희색증
乍掬氷流衿韻爽　찬 물을 손에 뜨니 가슴이 상쾌하고
사국빙류금운상
閒聞玉磬夢魂澄　한가히 옥경 들으니 몽혼도 청정하다
한문옥경몽혼징
文章不讓前人咏　문장도 옛 분의 시에 뒤질 것 없으니
문장불양전인영
百尺高樓幾箇登　백 척 높은 누각에 몇 번이나 오를까
백척고누기개등

*이몽제(李夢梯) :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백승(伯昇)이고, 호는 묵재(默齋)이다. 전라도 강진 출신이다. 청심당(淸心堂) 이조원(李調元)의 후손으로, 1678년(숙종 4) 만덕산 아래에서 이연령(李延齡)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출생했다. 일찍이 은와(恩窩)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의 제자이다. 이몽제는 1711년(숙종 37) 34세 때 진사시에 합격했다. 문집 《모청당유고(慕淸堂遺稿)》가 남아 있는데, 시 400여 수가 실려 있다.

90. 서석(瑞石) 김시택(金時澤)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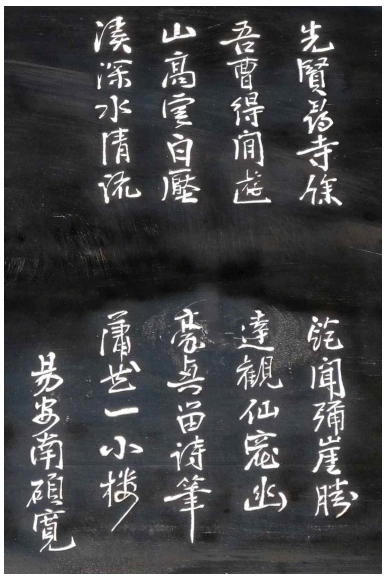
飛錫玄談聞古僧　석장 날리는 옛 스님께 현담을 듣고서
비석현담문고승
金剛深處卜居能　소금강 깊은 곳에 능히 터를 잡았노라
금강심처복거능

1) 혜일과 담운 : 상서로운 부처님의 지혜를 의미이다.

樓臨絶澗雙淸具　누각은 시내 굽어 쌍계의 맑음 갖추고
누임절간쌍청구
山戴群峯萬石增　산은 군봉 이고 수많은 바위를 더했네
산대군봉만석증
三代威儀禪俗厚　삼대[1]의 위의 갖춰 선가와 세속이 두텁고
삼대위의선속후
六時天樂道心澄　육시[2]에 천악(天樂) 울려 도심이 맑구나
육시천락도심징
男兒早了人間債　대장부 일찍이 인간의 부채를 갚았으니
남아조료인간채
携酒跨驢此更登　술 들고 나귀에 올라 이곳 다시 오르리
휴주과려차갱등

*김시택(金時澤) : 생몰년, 행적 미상.

91. 이안(易安) 남석관(南碩寬)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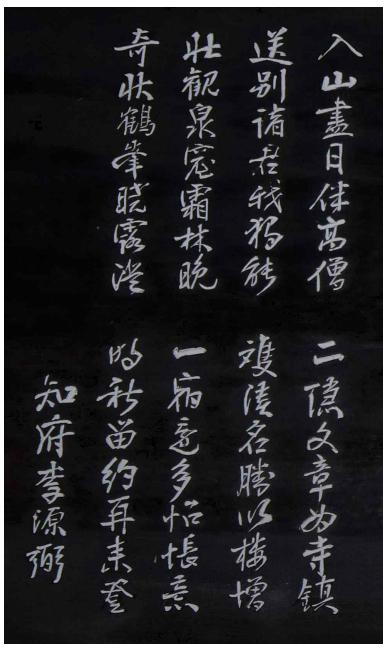
先賢尋寺餘　선현들이 절을 찾은 이후로
선현심사여
吾曹得閒遊　우리도 한가롭게 유람하노라
오조득한유
飽聞彌崖勝　미륵 바위의 승경 실컷 듣고
포문미애승

1) 삼대(三代) : 요순과 문왕, 무왕, 주공 등 성군이 다스렸던 하(夏)、상(商)、주(周)를 가리킨다.
2) 육시(六時) : 불가(佛家)에서 1주야를 여섯으로 나눈 시각으로, 그 명칭은 신조(晨朝)、일중(日中)、일몰(日沒)、초야(初夜)、중야(中夜)、후야(後夜)로, 절에서는 종을 울려서 이 여섯 시각을 알렸던 것이다.

達觀仙窟幽　그윽한 선굴[1]도 두루 본다네
달관선굴유
山高雲白壓　산이 높아 하얀 구름이 덮고
산고운백압
溪深水淸流　깊은 시내는 맑은 물이 흐른다
계심수청류
豪興留詩筆　호방한 흥으로 시필을 남기니
호흥류시필
瀟然一小樓　작은 누각은 티 없이 청정하다
소연일소누

* 남석관(南碩寬) : 의령남씨(宜寧南氏), 문집인 《이안유고(易安遺稿)》를 남겼다.

92. 지부(知府) 이원필(李源弼) 제영시



入山盡日伴高僧　산에 들어가 종일 고승과 벗함은
입산진일반고승
送別諸君我獨能　제군들 송별하고 나 홀로 하노라
송별제군아독능
二隱文章爲寺鎭　목은과 포은 문장 절을 수호하고
이은문장위사진
雙溪名勝以樓增　쌍계의 명승은 누각이 빛을 더했다
쌍계명승이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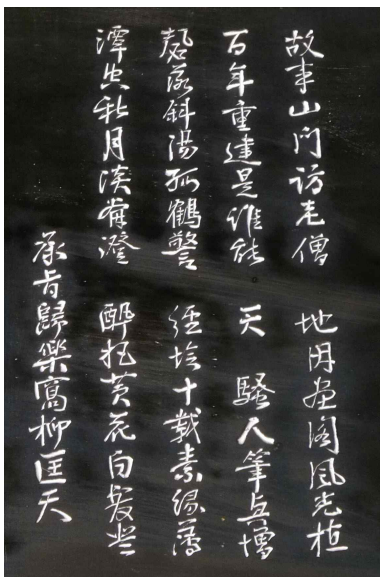
---

1) 선굴 : 백양사에 속한 암자인 영천굴(靈泉窟)을 의미하는 듯하다.

壯觀泉窟霜林晩　영천굴 장관은 단풍 숲에 저물고
장관천굴상림만
奇狀鶴峯曉露澄　학봉의 기이한 형상 새벽이슬에 맑다
기상학봉효로징
一宿還多怊悵意　하루를 묵어도 도리어 아쉬움 많아
일숙환다초창의
明秋留約再來登　명년 가을 다시 오를 약속 남기노라
명추류약재래등

*이원필(李源弼): 1798(정조 22)~?. 본관은 용인(龍仁)이며, 자는 치교(穉敎)이다. 1825년(순조 25)에 진사가 되었으며, 현릉참봉(顯陵參奉), 공주 판관(公州判官), 면천 군수(沔川郡守) 등을 역임했다.

93. 승지(承旨) 귀락와(歸樂窩) 유광천(柳匡天)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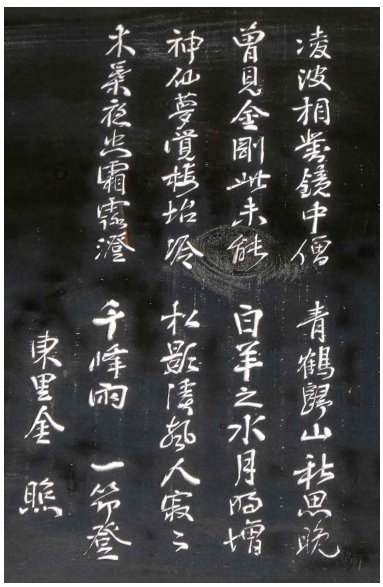


古事山門訪老僧　옛 사적 있는 산문에 노승을 방문하니
고사산문방노승
百年重建是誰能　백년 후에 중건을 누가 능히 하였던고
백년중건시수능
地因畫閣風光植　땅은 채색 누각으로 풍광이 반듯하고
지인화각풍광식
天□騷人筆興增　하늘은 시인의 필흥으로 더욱 빛난다
천□소인필흥증
磬落斜陽孤鶴警　석양의 경쇠소리에 외로운 학이 놀라고
경락사양고학경
潭空秋月淡烟澄　옅은 안개 투명한 못엔 가을 달 맑구나

담공추월담연징
經埃十載素緣薄　십년 세속 겪으며 평소 인연 얕았는데
경애십재소연박
醉把黃花白髮登　취중에 국화꽃 들고서 백발로 오르노라
취파황화백발등

*유광천(柳匡天) : 1732~?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서산(瑞山)이다. 자는 군필(君弼)이고 호는 귀락와(歸樂窩)이다. 전라도 광주(光州) 오호리(五湖里)에서 출생하였다. 28세 때인 1759년(영조 35) 기묘 별시(別試) 병과 6위로 급제한 뒤, 벼슬은 1779년(정조 3) 장령(掌令)을 거쳐 경성판관(鏡城判官)에 제수(除授)되고, 1786년(정조 10) 헌납(獻納), 1792년(정조 16) 사간(司諫)에 이어, 1796년(정조 20)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저서는 시문집 《귀락와문집(歸樂窩文集)》 16권 8책이 남아 있다.

94. 동리(東里) 김조(金照) 제영시



凌波相對鏡中僧　물결 건너며 맑은 풍광 속 스님 마주하니
능파상대경중승
曾見金剛此未能　일찍 금강산 보았지만 이곳은 못 보았네
증견금강차미능
靑鶴歸山秋思晩　청학은 산에 돌아가 가을 정취 무르익고
청학귀산추사만
白羊之水月明增　백양산 시냇물은 밝은 달로 빛을 더한다
백양지수월명증
神仙夢覺樓冶冷　신선의 꿈은 누대의 차가운 기운에 깨고
신선몽각누대랭
木葉夜空霜露澄　나뭇잎은 밤하늘 서리와 이슬에 청정하다

목엽야공상로징
松影溪聲人寂寂　솔 그림자 시내 소리에 인적은 고요하니
송영계성인적적
千峰雨□一笻登　천봉에 비가 개자 지팡이 하나로 오른다
천봉우□일공등

*김조(金照): 1774~1853. 호가 동리(東里)이며, 문집으로 《동리시집(東里詩集)》이 있다. 기정진(奇正鎭)의 발문이 실렸으며, 기정진의 문집인 《노사집(蘆沙集)》에 김조에게 보낸 시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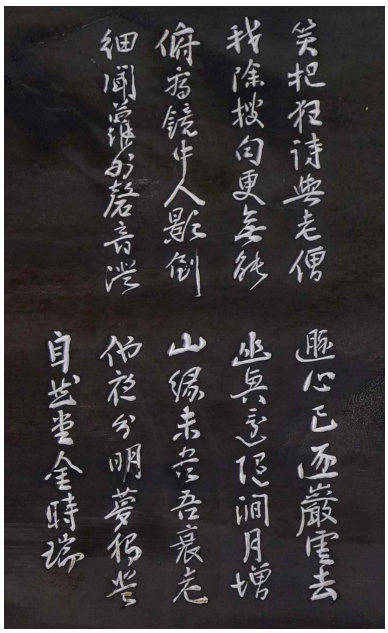
95. 유정렬(柳鼎烈) 제영시

仙緣引客客招僧　선연이 객을 이끌고 객은 스님을 불러
선연인객객초승
說到人間所未能　세속에서 하지 못한 일을 이야기 하네
설도인간소미능
祇爲境幽雲氣擁　풍광은 그윽하여 구름 기운 둘러싸고
지위경유운기옹
更敎樓爽月華增　밝은 달빛으로 누각은 더욱 상쾌하다
갱교누상월화증
扁從二隱多先獲　편액은 이은[1]때부터 시를 많이 얻었고
편종이은다선획
石護雙流見底澄　바위는 쌍계를 보호해 바닥까지 청정하다
석호쌍류견저징
畵裏煙霞看不厭　그림 속 연하 실컷 보고도 싫지 않으니
화리연하간불염
重來猶勝昔來登　다시 왔어도 예전 오를 때보다 낫구나
중래유승석래등

*유정렬(柳鼎烈)[2] :1785(정조 9)~?.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사진(士鎭)이며, 흥덕(興德) 출신이다. 1807년(순조 7)에 진사가 되었다.

1) 이은(二隱) : 쌍계루에 기문을 남긴 목은 이색과 시를 남긴 포은 정몽주를 이른다.
2) 쌍계루에 시를 남긴 유정렬에 별다른 정보가 실려 있지 않아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 우선 진사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흥덕 출신인 유정렬로 추정하여 보았다.

96. 자연당(自然堂) 김시서(金時瑞) 제영시



笑把狂詩與老僧　웃으며 나의 시를 잡아 노승께 드리니
소파광시여노승

我除搜句更無能　나는 시구를 찾는 외엔 능한 것 없다네
아제수구갱무능

遯心已逐巖雲去　은둔의 마음은 이미 바위 구름을 쫓고
둔심이축암운거

幽興還隨澗月增　그윽한 흥은 또 시내 달빛 따라 더한다
유흥환수간월증

俯看鏡中人影倒　거꾸로 비친 거울 속 인영을 굽어보고
부간경중인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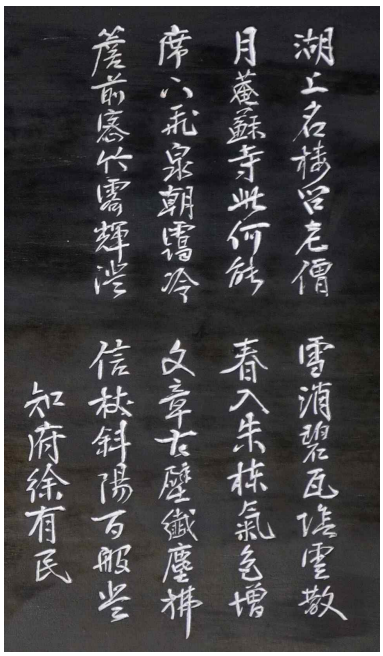
細聞蘿外磬音澄　넝쿨 밖 맑은 풍경소리 세세히 듣노라
세문나외경음징

山緣未盡吾衰老　백양산 인연 못 다한 채 노쇠하였으니
산연미진오쇠노

他夜分明夢獨登　훗날 밤 뚜렷이 꿈속에서 홀로 오르리라
타야분명몽독등

*김시서(金時瑞): 1652(효종 3) ~ 1707(숙종 33).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휴징(休徵), 호는 자연당(自然堂).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선생의 5대손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회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세에 박치도(朴治道)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39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10여 년 동안 강학하던 훈몽재(訓蒙齋)를 1680년경 수축(修築)하고 그 옆에 초당(草堂)인 자연당(自然堂)을 새로 지어 하서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그 후 경양찰방(景陽察訪)으로 재직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 자연당에서 친구들과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문집으로는《자연당유고(自然堂遺稿)》를 남겼다.

97. 지부(知府) 서유민(徐有民) 제영시



湖上名樓問老僧　호수가 이름난 누각을 노승께 물었더니
호상명누문노승

月菴蘇寺此何能　월명암[1]과 내소사[2]도 이 보다 더하랴
월암소사차하능

雪消碧瓦陰雲散　눈 녹은 푸른 기와에 먹구름이 흩어지고
설소벽와음운산

春入朱棟氣色增　봄빛이 붉은 기둥에 드니 기색이 넘친다
춘입주동기색증

席下飛泉朝靄冷　자리 아래 쏟는 샘물에 아침노을 차갑고
석하비천조애랭

簷前密竹霽輝澄　처마 앞 빽빽한 대밭엔 맑은 빛 청정하다
첨전밀죽제휘징

文章古壁纖塵拂　옛 벽에 걸린 문장의 가는 티끌을 털고서
문장고벽섬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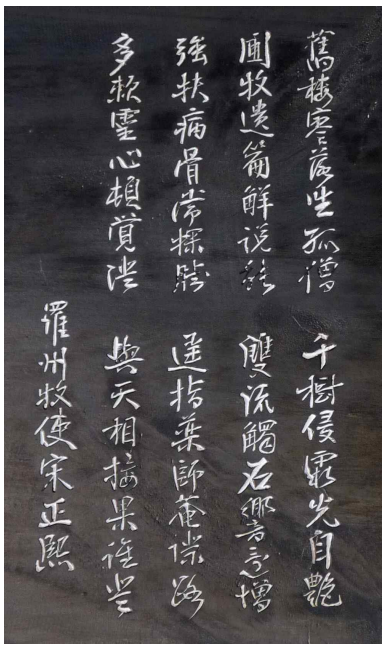
信杖斜陽百般登　석양에 지팡이 닿는 데로 여기저기 오르네
신장사양백반등

*서유민(徐有民): 1779(정조 3)~?. 본관은 대구(大丘), 자 원경(元耕)이다. 1805년(순조 5)에 생원이 되었다. 음직으로 목릉참봉(穆陵參奉), 청도군수(淸道郡守), 장성부사(長城府使), 안주목사(安州牧使) 등을 역임했다.

---

1) 월명암(月明菴)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쌍선봉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 선운사(禪雲寺)의 말사이다.
2) 내소사(來蘇寺) :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남단에 있는 절로, 선운사(禪雲寺)의 말사이다.

98. 나주목사(羅州牧使) 송정희(宋正熙) 제영시



舊樓寥落坐孤僧　고요한 옛 누각에 외로운 스님 앉아서
구누료락좌고승
圃牧遺篇解說能　포은과 목은이 남긴 시편 해설해 주네
포목유편해설능
千樹侵霜光自艷　숲은 서리에 젖어 빛이 절로 아름답고
천수침상광자염
雙流觸石響還增　쌍계는 바위 부딪혀 소리가 더욱 세차다
쌍류촉석향환증
强扶病骨常探勝　애써 병든 몸 부축해 명승지 탐사하니
강부병골상탐승
多賴靈心頓覺澄　신령한 마음에 힘입어 청정함을 느낀다
다뢰영심돈각징
遙指藥師菴際路　멀리 약사암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보니
요지약사암제로
與天相接果誰登　하늘과 서로 닿아서 과연 누가 오를까
여천상접과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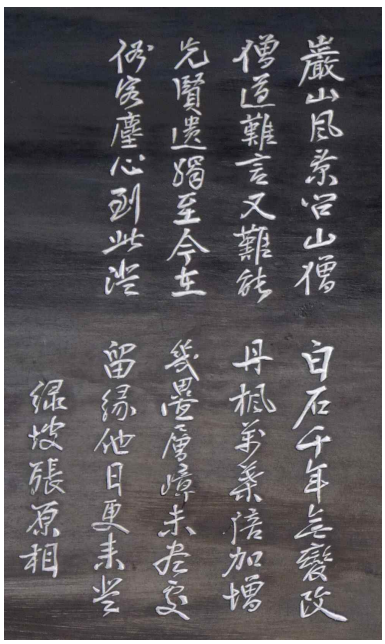
*송정희(宋正熙): 1802(순조 2)~1881(고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문오(文吾), 호는 풍야(豊埜). 송시열의 후손이다. 1834년(순조 34) 진사(進士) 3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후 음직(蔭職)으로 보은군수(報恩郡守), 양양부사(襄陽府使)을 맡았으며, 1863년(철종 14)에 나주목사(羅州牧使)에 임명되었다. 이후에 공조참판(工曹參判)까지 제수 받기에 이르렀다. 문집으로 《풍야집(風埜集)》이 전한다.

99. 곡산(谷山) 후인(后人) 강간(康侃) 제영시

結構曾聞淸淨僧　누각의 창건을 청정한 스님께 들었나니
결구증문청정승
當時詩記屬賢能　당시에 시와 기문을 현인에게 맡겼다네
당시시기속현능
千秋月色樓長滿　천추의 달빛은 누각에 늘 가득 차있고
천추월색누장만
萬古水流思轉增　만고의 유수는 그리움이 더욱 넘쳐난다
만고수류사전증
寰裏風塵巖洞隔　속세의 풍진에도 백암산은 떨어져 있어
환리풍진암동격
山中鍾磬客心澄　산속의 종경소리에 객의 마음 맑아진다
산중종경객심징
綠蘿啼鳥丹楓逕　푸른 넝쿨 우는 새에 단풍 길을 걸으니
녹나제조단풍경
誰識携壺此再登　누가 알았으랴 술병 들고 다시 오를 줄
수식휴호차재등

*강간(康侃): 1700(숙종 26) ~ ?. 본관 곡산(谷山), 자 간여(侃如)이며, 은산(殷山) 출신이다. 1726년(영조 2)에 생원이 되었다. 1733년(영조 9)에 문과에 합격했다. 청암찰방(靑巖察訪), 전적(典籍), 예조좌랑(禮曹佐郞), 기사관(記事官), 병조좌랑(兵曹佐郞), 강동현감(江東縣監)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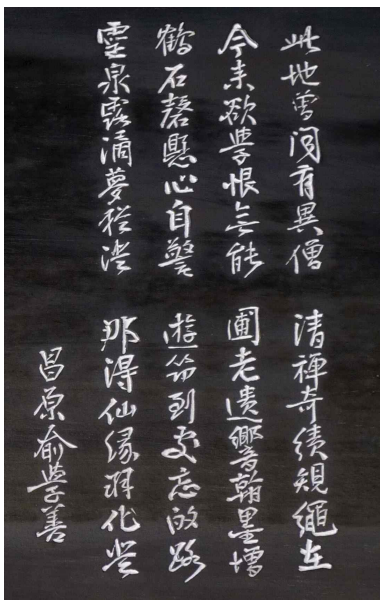
100. 녹파(綠坡) 장원상(張原相) 제영시



巖山風景問山僧　백암산 풍경을 산승에게 물었더니
암산풍경문산승
僧道難言又難能　말하기 어렵고 말할 수도 없다하네
승도난언우난능
白石千年無變改　백암은 천년동안 변함없는 모습이요
백석천년무변개
丹楓萬葉倍加增　수많은 단풍잎은 더욱 빛이 넘친다
단풍만엽배가증
先賢遺躅至今在　선현의 유적이 오늘까지 남아 있어
선현유촉지금재
俗客塵心到此澄　여기 오니 속객의 마음도 맑아진다
속객진심도차징
幾疊層嶂未盡處　첩첩 산 층층 바위 다하지 않은 곳
기첩층장미진처
留緣他日更來登　인연을 남겨 훗날에 다시 오르고자
류연타일갱래등

*장원상(張原相): 생졸년 미상. 조선 말기 문신. 1866년(고종 3) 승문원주서(承文院注書)로 추천되었고, 1868년(고종 5) 홍문관(弘文館)의 관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1873년(고종 10) 홍문관의 교리(校理)로 재임했을 때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문에 대하여 의금부에서 국청(鞫廳)을 설치할 것을 연명차자(聯名箚子)하여 주청(奏請)하였다. 1874년(고종 11) 암행어사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산실청도제조(産室廳都提調) 이하에게 시상할 때 좌통례(左通禮)를 담당한 공으로 정경(正卿)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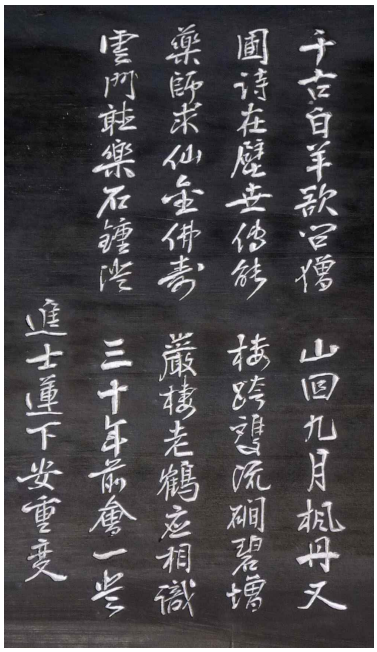
101. 창원(昌原) 유학선(兪學善) 제영시



此地曾聞有異僧　이곳에 일찍이 기이한 스님 있다 듣고서
차지증문유리승
今來欲學恨無能　이제 배우려 왔지만 능치 못해 한스럽네
금래욕학한무능
淸禪奇績規繩在　청수 스님 기특한 자취 규모에 남아있고
청선기적규승재
圃老遺響翰墨增　포은과 목은의 유풍은 필묵으로 더한다
포노유향한묵증
鶴石磬懸心自警　학바위에 들리는 경쇠소리 마음 깨우고
학석경현심자경
靈泉露滴夢猶澄　영천굴[1]의 방울진 이슬은 꿈에서도 맑구나
영천노적몽유징
遊笻到處忘歸路　노니는 발길 가는 곳마다 귀로를 잊나니
유공도처망귀로
那得仙緣羽化登　어찌하면 선연을 얻어서 우화등선 할까
나득선연우화등

*유학선(兪學善) : 본관이 창원 유씨로 보인다. 생몰년과 행적 미상.

102. 진사(進士) 연하(蓮下) 안중섭(安重燮)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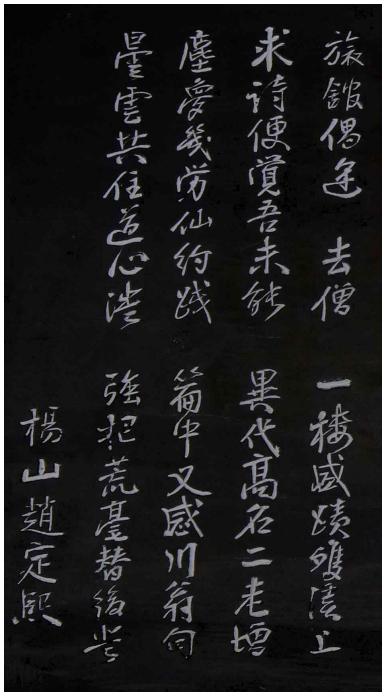
千古白羊欲問僧　천고의 백양산을 스님께 묻고자 하니
천고백양욕문승

1) 영천굴(靈泉窟) : 백양사에 속한 암자 중 하나이다.

圃詩在壁世傳能　벽에 걸린 포은 시를 세상에 전했네
포시재벽세전능
山回九月楓丹又　산은 구월이 돌아오자 또 단풍이 들고
산회구월풍단우
樓跨雙流磵碧增　쌍계의 누각은 시내의 푸른빛 더한다
누과쌍류간벽증
藥師求仙金佛壽　약사암에서 신선 찾고 금불에 축수하니
약사구선금불수
雲門聽樂石鍾澄　운문암의 석경과 종소리 청정하여라
운문청악석종징
巖棲老鶴應相識　바위에 깃든 늙은 학도 나를 알지니
암서노학응상식
三十年前會一登　삼십 년 전에 한 번 올라 만났으리라
삼십년전회일등

*안중섭(安重燮) : 1843~1909. 조선 말기의 학자다. 자는 성심(聖深, 誠心)이고 호는 해사(海史) 또는 연상(蓮上)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곡성 사람이고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1882년(고종19) 진사가 되고, 1885년 감찰이 되었다. 1888년 황현과 도림사(道林寺)를 유람했다. 문집으로 《연상집(蓮上集)》이 전한다.

103. 양산(楊山) 조정희(趙定熙)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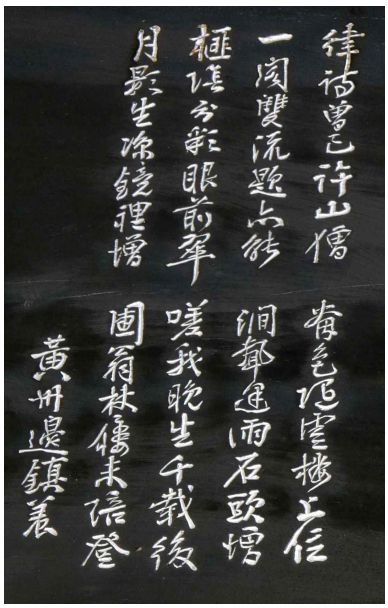
旅館偶逢□去僧　여관에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났더니
여관우봉□거승

求詩便覺吾未能　시를 구하매 문득 능치 못함 느꼈네
구시변각오미능
一樓盛蹟雙溪上　쌍계의 누각 하나 자취가 성대하고
일누성적쌍계상
異代高名二老增　전 시대 두 분 원로[1]는 명성이 높네
이대고명이노증
塵夢幾勞仙約踐　속세에서 얼마나 신선의 약속 꿈꿨던가
진몽기노선약천
曇雲共住道心澄　담운도 머물러 도심조차 청정하여라
담운공주도심징
篇中又感川翁句　편액 가운데 오천[2]의 시구를 느끼나니
편중우감천옹구
强把荒毫替後登　애써 거친 붓으로 훗날 등반을 대신한다
강파황호체후등

*조정희(趙定熙) : 1845(헌종 11)~.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1863년(철종 14) 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한림·집례(執禮)를 지냈다. 그 뒤 1869년(고종 6) 동지 겸 사은사행(冬至兼謝恩使行) 때 정사 이승보(李承輔)·부사 조영하(趙寧夏) 등을 수행하여 서장관장령으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1872년 이조참의, 1880년 사간원 대사간을 지냈다. 그런데 1883년 이천부사 재임 당시 강원도 암행어사 이도재(李道宰)에 의해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885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1886년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에 이르렀다. 1890년 이후 이조참판·사간원대사간·사헌부대사헌 등을 지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에는, 이전에 임명되었던 내무나 언관 쪽의 관직보다는, 주로 왕실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광무개혁 가운데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궁전의 역사(役事)·사전(祀典)을 담당하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1896년 봉상시제조(奉常寺提調)를 출발점으로 하여, 1897년 휘릉정자각중건청당상(徽陵丁字閣重建廳堂上), 1899년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로서 각 능의 개수역사(改修役事)에 참여하였다. 1899년 장례원경·궁내부진관·경모궁제조(景慕宮提調)·경모전제조(景慕殿提調), 1900년 태의원경(太醫院卿)·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 1901년 천릉도감제조(遷陵都監提調), 1902년 충청남도 관찰사를 지냈다. 이후 궁내부특진관을 거쳐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에 이르렀다.

1) 두 분 원로 : 쌍계루에 기문과 시를 남긴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를 말한다.
2) 오천(烏川) : 포은 정몽주의 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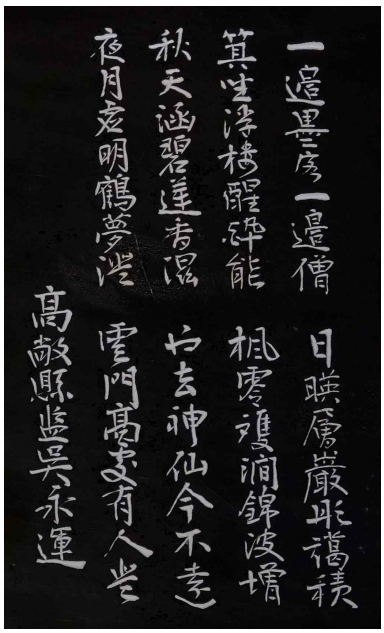
104. 황주(黃州) 변진양(邊鎭養) 제영시



律詩曾已許山僧　율시를 일찍이 산승께 허락하였더니
율시증이허산승
一閣雙流題亦能　쌍계의 누각에 시를 능히 짓게 되었네
일각쌍류제역능
烟色隨雲樓上住　안개 빛은 구름 따라 누각에 머물고
연색수운누상주
澗聲逢雨石頭增　시내 소리 비를 맞아 바위에 세차다
간성봉우석두증
榧陰分彩眼前翠　비자 그늘은 눈앞에 푸른빛을 나누고
비음분채안전취
月影生凉鏡裡增　달빛은 풍광 속에 서늘함을 일으킨다
월영생량경리증
嗟我晩生千載後　아! 나는 뒤늦게 천년 후에 태어나서
차아만생천재후
圃翁杖屨未陪登　포은의 자취를 따라 오르지 못했다네
포옹장구미배등

*변진양(邊鎭養) : 본관이 황주(黃州)이다. 생몰년, 행적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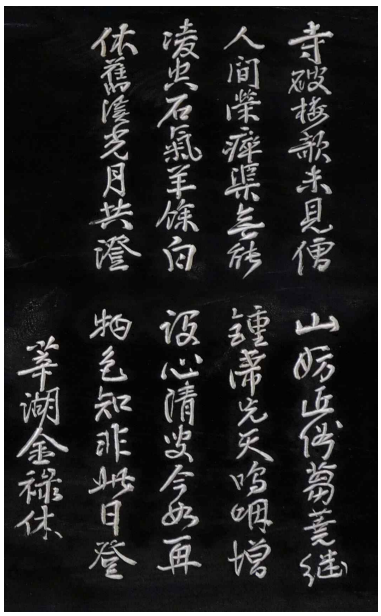
105. 고창 현감(高敞縣監) 오영운(吳永運) 제영시



一邊墨客一邊僧　한쪽은 묵객들이요 한쪽은 스님들이니
일변묵객일변승
箕坐浮樓醒醉能　높은 누각에 편히 앉아 취했다가 깬다
기좌부누성취능
日暎層巖彤譎積　햇빛 비치는 층암에 붉은 노을 쌓이고
일영층암동애적
楓零雙澗錦波增　단풍 지는 쌍계엔 비단 파도 일렁인다
풍령쌍간금파증
秋天涵碧蓮香濕　온통 파란 가을하늘 연꽃 향기에 젖고
추천함벽련향습
夜月虛明鶴夢澄　허명한 밤 달빛에 학의 꿈도 청정하다
야월허명학몽징
也去神仙今不遠　또한 신선 세계까지 이제 멀지 않으니
야거신선금불원
雲門高處有人登　운문암 높은 곳에 사람들 오르고 있네
운문고처유인등

*오영운(吳永運) : 생몰년 미상. 본관은 해주(海州). 무과로 1850년(철종 1) 관직을 받아, 훈련주부(訓鍊主簿), 훈련판관(訓鍊判官) 등을 거쳐, 1858년(철종 9) 칠원현감(漆原縣監)을 지내었다. 1865년(고종 2)에 고창 현감(高敞縣監)에 제수되어 1870년(고종 7)년까지 지냈다.

106. 신호(莘湖) 김록휴(金祿休)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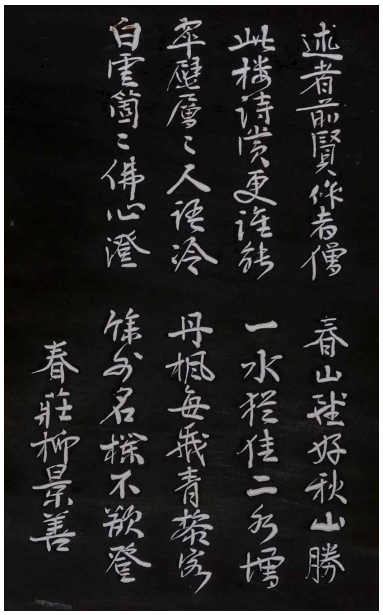
寺破樓欹未見僧　사찰 깨지고 누각 기울어 스님도 보이지 않으니
사파누의미견승
人間榮瘁渠無能　인간세상의 영고성쇠를 저도 어쩔 수 없구나
인간영췌거무능
山妨近俗葯蔘繼　산은 해롭게도 속세 가까워 나무꾼 이어지고
산방근속추요계
鍾帶先天鳴咽增　쇠북은 선천의 소리를 띄고서 오열을 더한다
종대선천명인증
凌空石氣羊餘白　허공에 솟은 바위기운 백양의 남은 흰 빛인데
능공석기양여백
依舊溪光月共澄　예전처럼 흐르는 시내 빛은 달과 함께 청정하다
의구계광월공징
設心淸叟今如再　청수[1] 스님 같은 마음가짐을 오늘 다시 지닌 채
설심청수금여재
物色知非此日登　오늘 올라서 물색이 예전과 다른 줄 알아보리라
물색지비차일등

*김록휴(金祿休) : 1827(순조 27) ~ 1899(광무 3). 조선 후기 유생. 자는 치경(穉敬)이고, 호는 신호(莘湖)이다. 본관은 울산(蔚山)이고, 전라남도 장성(長城) 월평리(月坪里)에서 태어났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후손이다. 조부는 김홍조(金弘祖)이고, 부친은 김방묵(金邦默)이며, 모친은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정권(李貞權)의 딸이다. 영일정씨(迎日鄭氏) 정재영(鄭在瑩)의 딸과 결혼하였다. 1835년(헌종 1) 생원(生員)이 되었다. 1846년(헌종 12)부터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77년(고종 14) 학행(學行)으로 선공가

1) 청수(淸叟) : 쌍계루를 창건한 백양사 스님이다.

감역(繕工假監役)이 제수(除授)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조성가(趙性家: 1824～1904), 이응진(李應辰), 김평묵(金平默: 1819～1891) 등과 교유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신호집(莘湖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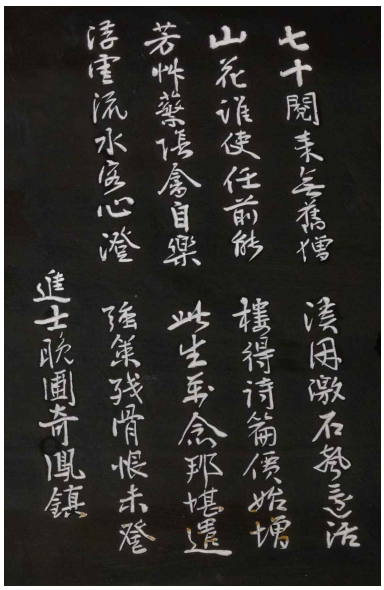
107. 춘장(春莊) 유경선(柳景善) 제영시



述者前賢作者僧　서술한 분 옛 현인이요 지은 이는 스님이라
술자전현작자승
此樓詩賞更誰能　이 누각 시의 감상을 누가 다시 하겠는고
차누시상갱수능
春山雖好秋山勝　봄 산이 비록 좋다하나 가을 산이 더 낫고
춘산수호추산승
一水猶佳二水增　한 시내도 좋거늘 두 시내라 빛을 더하네
일수유가이수증
翠壁層層人語冷　푸른 절벽 층층하여 사람 소리조차 차갑고
취벽층층인어랭
白雲箇箇佛心澄　흰 구름은 하나하나 불심마저 청정하여라
백운개개불심징
丹楓每歲青藜客　해마다 단풍 들면 청려장 짚은 객 찾아오니
단풍매세청려객
餘外名欄不欲登　이 밖의 유명한 누각은 오르고 싶지 않구나
여외명란불욕등

*유경선(柳景善) : 생몰년 미상. 문관은 문화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문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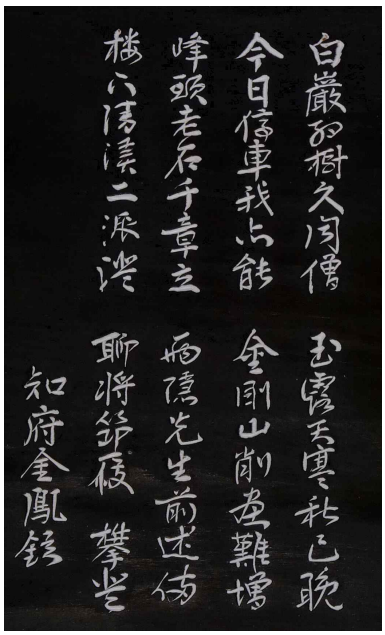
108. 진사(進士) 만포(晩圃) 기봉진(奇鳳鎭) 제영시



七十閱來無舊僧　칠십 나이에 돌아보니 옛 스님 없는데
칠십열래무구승
山花誰使任前能　산꽃은 누가 시켜 예전처럼 피었는고
산화수사임전능
溪因激石聲還活　시내는 바위 부딪쳐 소리 더욱 세차고
계인격석성환활
樓得詩篇價始增　누각은 시편 얻어 값을 비로소 더했다
누득시편가시증
芳艸藥陰禽自樂　방초의 짙은 그늘에 새가 절로 즐겁고
방초번음금자락
浮雲流水客心澄　뜬 구름 흐르는 물에 객의 마음 맑아라
부운류수객심징
此生萬念那堪遣　이 삶의 온갖 생각을 어찌 떨쳐 버릴까
차생만념나감견
强策殘骨恨未登　애써 늙은 몸 북돋아 오르지 못해 한이네
강책잔골한미등

*기봉진(奇鳳鎭): 1809년(순조 9)~?. 본관은 행주(幸州)이며, 장성(長城) 출신이다. 1837년(헌종 3)에 생원이 되었다. 한말 의병장 기삼연(奇參衍, 1851~1908)의 아버지이다.

109. 지부(知府) 김봉현(金鳳鉉)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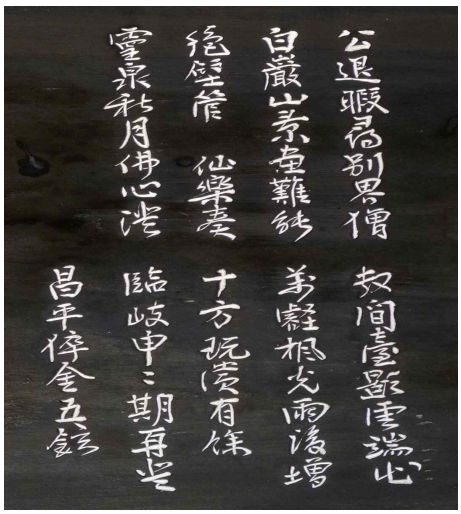
白巖紅樹久聞僧　백암산 단풍나무를 오래전 스님께 들어서
백암홍수구문승
今日停車我亦能　오늘 수레를 멈추고[1] 구경 하게 되었다네
금일정거아역능
玉露天寒秋已晩　옥로천[2]에 차가운 가을하늘 저물어가는데
옥로천한추이만
金剛山削畵難增　금강산을 깎은 듯 그림을 그리기도 어렵네
금강산삭화난증
峰頭老石千章立　산꼭대기의 늙은 바위는 병풍처럼 서있고
봉두노석천장립
樓下淸溪二派澄　누각 아래 맑은 시내 두 줄기로 청정하여라
누하청계이파징
兩隱先生前述備　포은과 목은 선생의 옛 서술에 갖춰졌으니
양은선생전술비
聊將笻屐□攀登　다만 지팡이와 나막신으로 애써 올라보노라
요장공극□반등

*김봉현(金鳳鉉): 생몰년 미상. 행적 미상.

---

1) 수레를 멈추고[停車] : '정거(停車)'라는 시구는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803 ~ 853)의 〈산행(山行)〉시에 "늦 단풍이 하도 좋아 수레 멈추고 바라보니 서리 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더 붉더라[停車坐愛楓林晩 霜葉紅於二月花]"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옥로천(玉露泉) : 쌍계루 아래 연못인 감로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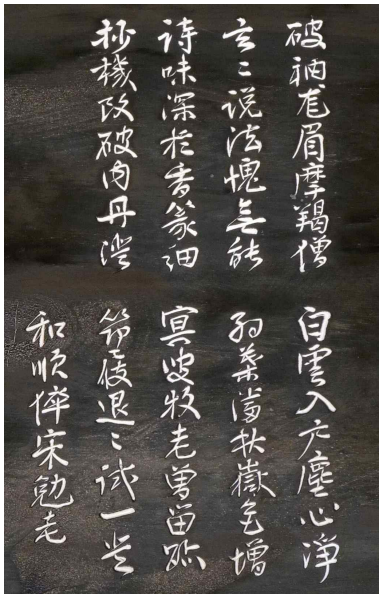
110. 창평 수령[昌平倅] 김오현(金五鉉) 제영시



公退暇尋別界僧　공무의 여가에 별천지의 스님을 찾으니
공퇴가심별계승
白巖山景畵難能　백암의 풍경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려워라
백암산경화난능
數間臺影雲端出　몇 칸의 누대 모습은 구름 끝에 솟아있고
수간대영운단출
萬壑楓光雨後增　온 골짝의 단풍 빛은 비갠 후에 더하누나
만학풍광우후증
絶壁管□仙樂奏　절벽에선 관현으로 신선의 음악 연주하고
절벽관□선악주
靈泉秋月佛心澄　영천굴의 가을 달빛에 불심조차 청정하다
영천추월불심징
十方玩賞有餘□　시방 세계를 완상하고도 여흥이 남았으니
십방완상유여□
臨岐申申期再登　이별 길에 거듭 다시 오를 것을 기약하네
임기신신기재등

*김오현(金五鉉): 1844(헌종 10)~?.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경복(景福)이다. 1867년(고종 4)에 진사가 되었다. 이후로 좌세마(左洗馬), 부사과(副司果), 돈녕부 주부(敦寧府主簿), 공조 좌랑(工曹佐郎), 공조 정랑(工曹正郎), 좌익찬(左翊贊), 의령 현감(宜寧縣監)을 거쳐 1881년(고종 18)에 창평 현령(昌平縣令)을 지냈다. 이후 김포 군수(金浦郡守), 회양 부사(淮陽府使), 영월 부사(寧越府使), 장성 부사(長城府使), 담양 부사(潭陽府使) 등을 역임했다.

111. 화순 현감[和順倅] 송면로(宋勉老)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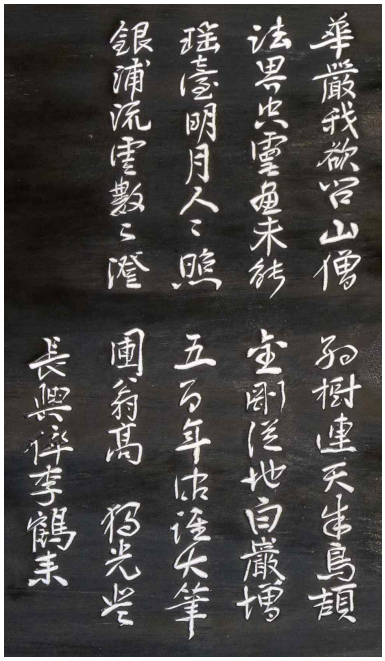
破衲尨眉摩羯僧　해진 납의에 흰 눈썹 마갈다국[1] 스님의
파납방미마갈승
玄玄說法愧無能　현묘한 설법을 능히 알지 못해 부끄럽네
현현설법괴무능
白雲入戶塵心淨　백운이 문에 들어 속인의 마음 청정하고
백운입호진심정
紅葉當秋嶽色增　단풍잎은 가을 맞아 산의 빛을 더해준다
홍엽당추악색증
詩味深於香篆細　시의 맛은 가늘게 피어오르는 향보다 깊고
시미심어향전세
抄機改破內丹澄　사특한 마음 깨뜨리니 내단[2]까지 청정하다
초기개파내단징
淸叟牧老曾留跡　청수 스님[3]과 목은이 일찍이 자취를 남겼으니
청수목노증류적
笻屐退退試一登　지팡이와 나막신으로 걸음걸음 올라보리라
공극퇴퇴시일등

*송면로(宋勉老): 1838(헌종 4)~?.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여극(汝克)이며, 회덕(懷德) 출신이다. 1861년(철종 12)에 진사에 합격했다. 동몽교관(童蒙敎官), 감찰(監察), 호조 좌랑(戶曹佐郎)을 지내다가 1878년(고종 15)에 화순 현감(和順縣監)에 제수 되었으며, 이후 대흥 군수(大

1) 마갈다국: 중인도의 나라 이름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승려를 지칭해서 다갈다국 승려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내단(內丹) : 자기 내부의 정기를 단련하는 것으로, 보통 호흡법을 말한다. 반면에 금단(金丹)과 같은 약물을 제련하는 등 외부의 힘을 빌려서 단련하는 것을 외단(外丹)이라고 한다.
3) 청수 스님: 원문에는 '淸'이 '冥'으로 되어 있으나 아마도 청수 스님을 잘못 쓴 듯하다. 청수 스님은 쌍계루를 창건하고 당대 명사들에게 시를 부탁하여 쌍계루의 이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興郡守)을 맡았다.

112. 장흥 부사[長興倅] 이학래(李鶴來)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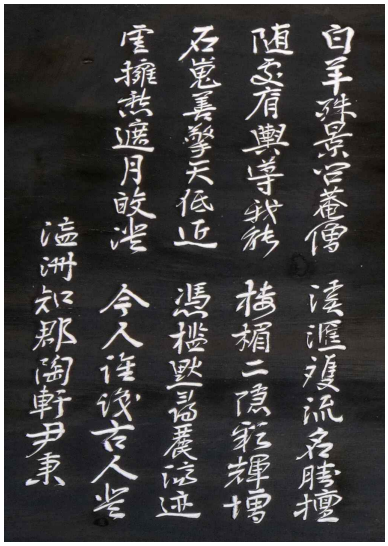
華嚴我欲問山僧　화엄의 세계를 내 산승께 묻고자 했더니
화엄아욕문산승
法界空靈畵未能　공령(空靈)한 법계를 그리기 어렵다 하네
법계공영화미능
紅樹連天朱鳥頡　단풍 숲 하늘과 닿아 붉은 새 날아오르고
홍수련천주조힐
金剛從地白巖增　금강은 땅을 조차 솟아 백암의 빛 더한다
금강종지백암증
瑤臺明月人人照　요대[1]의 밝은 달빛은 사람마다 비춰주고
요대명월인인조
銀浦流雲數數澄　은빛 포구 흐르는 구름은 늘 청정하여라
은포류운수수징
五百年間誰大筆　오백년 동안 누가 가장 큰 문장이었던가
오백년간수대필
圃翁高□獨先登　포은의 높은 발걸음 홀로 먼저 올랐구나
포옹고□독선등

*이학래(李鶴來): 1824(순조 24)~?.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고(景皐)이며, 거주지는 수원(水原)이다. 1858년(철종 9)에 진사가 되었다. 서부 도사(西部都事), 보성 군수(寶城郡守), 영천

1) 요대(瑤臺) : 옥으로 장식한 누대로 신선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킨다. 이 시에서는 쌍계루를 의미한다.

군수(永川郡守)을 맡았으며, 1880년(고종 17)에 장흥 부사(長興府使)에 제수됐으며, 이후 훈련원 판관, 훈련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113. 영주(瀛洲) 지군(知郡) 도헌(陶軒) 윤병(尹秉)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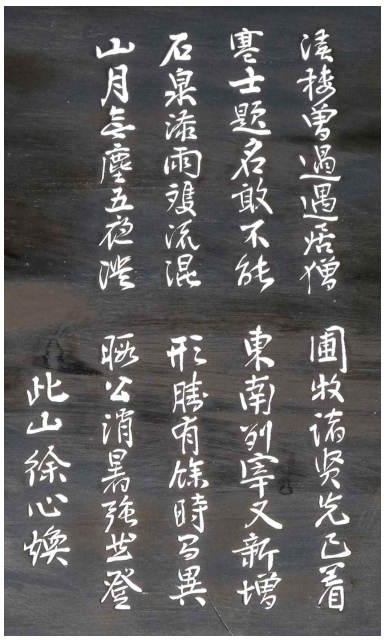
白羊殊景問菴僧　백양의 승경을 암자 스님께 물었더니
백양수경문암승
隨處肩輿導我能　곳곳마다 견여[1] 탄 나를 인도해주네
수처견여도아능
溪匯雙流名勝擅　시내는 두 흐름 모여 명승을 독점하고
계회쌍류명승천
樓楣二隱彩輝增　누각 문미엔 이은[2]의 문장이 빛난다
누미이은채휘증
石嵬善擎天低近　높은 바위는 낮은 하늘 떠받쳐 좋은데
석외선경천저근
雲擁愁遮月皎澄　짙은 구름은 밝은 달 가려서 시름한다
운옹수차월교징
憑檻默尋麗濟迹　난간에 기대 묵묵히 고려와 백제 자취 찾으니
빙함묵심려제적
今人誰識古人登　지금 누가 고인이 올랐음을 알겠는가
금인수식고인등

*윤병(尹秉): 생몰년, 행적 미상.

---

1) 견여(肩輿) : 어깨에 메는 수레를 가리킨다.
2) 이은(二隱) : 쌍계루에 기문을 남긴 목은 이색과 시를 남긴 포은 정몽주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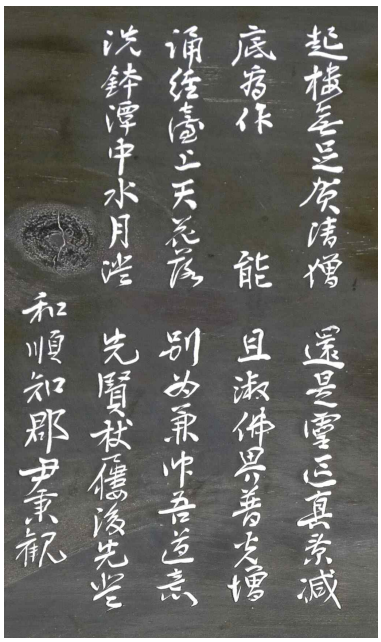
114. 차산(此山) 서심환(徐心煥) 제영시



溪樓曾過遇居僧　일찍이 쌍계루 찾아 거주한 스님 만났으나
금인수식고인등
寒士題名敢不能　한미한 선비의 이름을 감히 쓰지 못했노라
한사제명감불능
圃牧諸賢先已着　포은과 목은 여러 현인들 이미 시를 썼으며
포목제현선이착
東南列宰又新增　동남쪽의 여러 수령들이 새로운 시 더했네
동남렬재우신증
石泉添雨雙流混　바위샘에 비가 내리자 두 시내가 섞여지고
석천첨우쌍류혼
山月無塵五夜澄　산 달빛은 티클 없이 한밤에도 청정하여라
산월무진오야징
形勝有餘時有異　좋은 경치 넉넉하나 시대의 다름이 있으니
형승유여시유이
暇公消暑强然登　공무의 여가에 더위 없애려 애써 올라본다
가공소서강연등

*서심환(徐心煥): 생몰년 미상. 본관 장성(長城), 고부(古阜) 출신이다.

115. 화순(和順) 지군(知郡) 윤병관(尹秉觀)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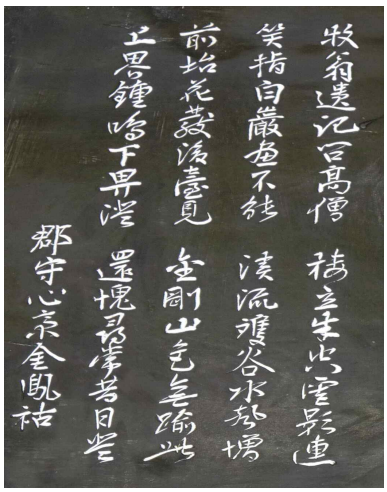


起樓無足賀淸僧　還是靈區眞景減
底看作　能　且淑佛界普先增
誦經臺上天花落　別爲兼聞吾道意
洗鉢潭中水月澄　先賢杖屨後先登
和順知郡尹秉觀

起樓無足賀淸僧　누각 세운 청수 스님께 축하할 거 없으니
기누무족하청승
底看作□□□能　어찌----------
저간작□□□능
還是靈區眞景減　도리어 신령한 곳 진경을 덜었다 하겠는가
환시영구진경감
且淑佛界普先增　또한 맑은 불국토에 커다란 빛을 더하리라
차숙불계보선증
誦經臺上天花落　불경 읊조리던 누대엔 하늘 꽃 떨어지고
송경대상천화락
洗鉢潭中水月澄　발우를 씻던 연못 속에는 수월이 청정하다
세발담중수월징
別爲兼聞吾道意　특별히 우리 유학의 뜻까지 겸해 듣고서
별위겸문오도의
先賢杖屨後先登　선현이 지나던 자취를 전후로 올랐노라
선현장구후선등

*윤병관(尹秉觀): 생몰년 미상.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광릉 참봉(光陵參奉), 금부도사, 단성현감(丹城縣監), 옥천군수(沃川郡守), 언양현감(彦陽縣監), 순창군수(淳昌郡守), 선산부사(善山府使), 남원부사(南原府使)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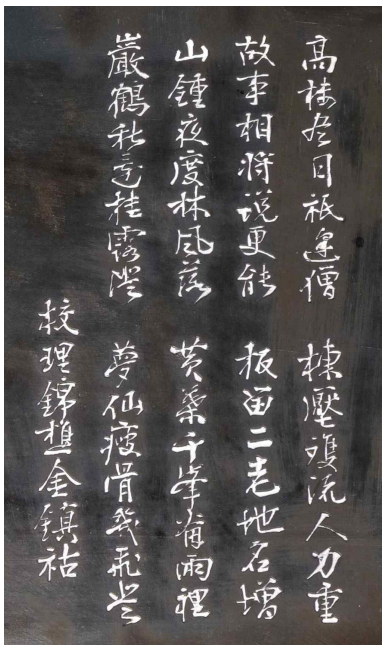
116. 군수(郡守) 심재(心齋) 김봉호(金鳳祜) 제영시



牧翁遺記問高僧　목은 선생 남긴 기문 고승께 물었더니
목옹유기문고승
笑指白巖畵不能　웃으며 백암 가리키며 그리기 어렵다네
소지백암화불능
樓立半空雲影連　허공에 솟은 누각에는 구름이 이어지고
누립반공운영련
溪流雙谷水聲增　두 골짝 흐르는 시내엔 물소리가 세차다
계류쌍곡수성증
前坮花發後臺見　앞 바위 피는 꽃 누대 뒤에서 볼 수 있고
전대화발후대견
上界鍾鳴下界澄　상계의 쇠북소리에 하계까지 청정해진다
상계종명하계징
金剛山色無踰此　금강산 산색이 이 보다 더한 곳 없나니
금강산색무유차
還愧尋常昔日登　도리어 예전에 오른 평범한 산 부끄럽네
환괴심상석일등

*김봉호(金鳳祜): 본관은 울산(蔚山), 호가 심재(心齋)이며, 장성(長城) 출신이다. 1889년(고종 26)에 보성군수(寶城郡守)에 제수되었다.

117. 교리(校理) 금초(錦樵) 김진호(金鎭祜)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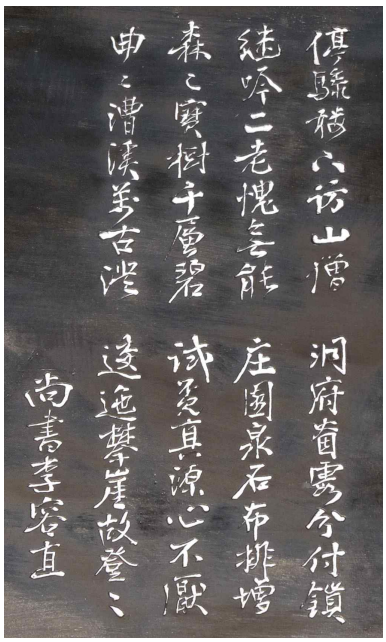
高樓盡日祇逢僧　높은 누각에서 종일토록 공경히 스님 만나서
고누진일기봉승
故事相將說更能　예전의 일을 서로 정답게 다시 이야기 한다네
고사상장설갱능
棟壓雙流人力重　기둥은 쌍계를 압도하여 인력이 많이 들었고
동압쌍류인력중
板留二老地名增　목판에 남은 이로(二老)[1]의 문장 지명을 더했다
판류이노지명증
山鍾夜度林風落　산의 종소리 밤에 들리니 숲 바람이 잦아들고
산종야도림풍락
巖鶴秋還桂露澄　바위의 학 가을에 돌아오니 계수의 이슬 맑구나
암학추환계로징
黃葉千峯烟雨裡　안개비속에 천봉의 잎이 노랗게 물드는데
황엽천봉연우리
夢仙瘦骨幾飛登　신선을 꿈꾸며 야윈 몸으로 몇 번 날아올랐나
몽선수골기비등

*김진호(金鎭祜): 1847(헌종 13)~1924. 조선 말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사형(士衡). 호는 금초(金樵)·아산(鵝山)·만은(晩隱).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의정(義楨)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로 효원(孝源)의 딸이다. 어린 시절에 변상철(邊相轍)·고시경(高時景) 등에게 수학하였으며, 1876년(고종 13) 식년문과의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그 뒤 가주서에 재임중 임금의 비답(批答)을 잘못 쓴 죄로 의금부의 심문을 받았으며, 1879년 특

1) 이로(二老) : 쌍계루에 기문과 시를 남긴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를 말한다.

지(特旨)에 의하여 율봉도찰방(栗峯道察訪)이 되어 이듬해에 춘추관기사관을 겸임하면서 『음청일기(陰晴日記)』의 수찬(修撰)에 참여하였다. 1882년 성균관전적을 거쳐 사헌부지평을 지내다가 사임하였고, 2년 뒤 다시 사헌부지평에 재임하면서 대사간 윤구영(尹龜永), 집의 윤상익(尹相翊) 등과 함께 복제변경(服制變更)에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하였다. 이듬해에 사간원정언으로 다시 서용되었고 1886년 홍문관부수찬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사헌부장령·홍문관교리·장악원정·사복시정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강화유수 민영규(閔泳奎)와 강원감사 윤영신(尹榮信) 등에게 내리는 교서를 제진(製進)하였다. 저서로는 《금초집》 2권 1책이 있다.

118. 상서(尙書) 이용직(李容直) 제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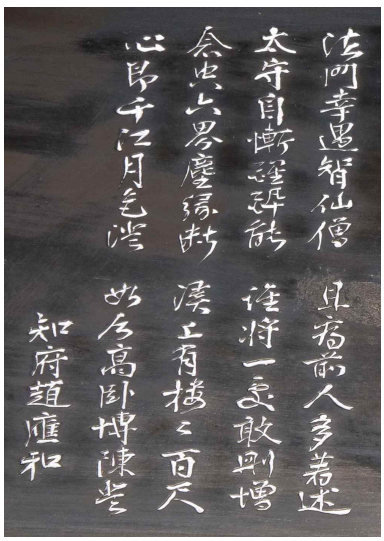
停驂樓下訪山僧　누각 아래에서 말을 멈추고 산승을 찾아서
정참누하방산승
繼吟二老愧無能　이로(二老)의 시를 잇자니 능치 못해 부끄럽네
계음이노괴무능
洞府煙霞分付鎖　동부[1]는 안개와 노을에 맡겨 감싸였고
동부연하분부쇄
庄園泉石布排增　장원의 샘과 바위 펼쳐져 풍광을 더한다
장원천석포배증
森森寶樹千層碧　울창한 보배로운 나무들은 천 겹으로 푸르고
삼삼보수천층벽
曲曲漕溪萬古澄　굽이굽이 조계(漕溪)[2]는 만고에 청정하다
곡곡조계만고징
試覓眞源心不厭　한번 진원(眞源)을 찾아 마음이 싫지 않으니
시멱진원심불염
逶迤攀崖故登登　구불구불한 벼랑 부여잡으며 일부러 오른다
위이반애고등등

*이용직(李容直) : 1824(순조 24)~?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수경(受卿, 授卿). 병구(秉九)의 아들이다. 1850년(철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용강현령·홍문관 교리를 거쳤고 실록청기주관을 겸하였다. 이후 사간원헌납을 거쳐 사헌부집의·장악원정·동부승

1) 동부(洞府) : 신선이 사는 마을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쌍계루가 있는 백암산 골짜기를 말한다.
2) 조계(漕溪) : 불교의 법맥을 의미하며, 이 시에서는 백양산 쌍계루를 가리킨다. 조계는 선종(禪宗)의 육조(六祖)인 혜능(慧能)의 별호로, 중국 광동성 소주부 쌍봉산 아래 있는 땅 이름이기도 하다. 그 곳에 조계라는 강이 있는데, 677년 혜능대사가 이곳에 보림사를 짓고,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

지·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1864년(고종 1) 성균관대사성, 1865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여주목사로서 호남소모사(湖南召募使)가 되어 장정을 모집하였다. 이후 한성부 좌윤·우윤, 병조·이조·예조의 참판을 역임하였고, 1882년 대사헌이 되었다. 공조판서·의정부좌참찬을 지냈고,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경연관(經筵官)을 겸하였으며, 1893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관제개혁 후 1902년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다.

119. 지부(知府) 조응화(趙應和) 제영시



法門幸遇智仙僧　법문에서 다행히 지선 스님을 만나니
위이반애고등등
太守自慚醒醉能　태수로서 깨고 취하는 것이 부끄럽네
태수자참성취능
且看前人多著述　또한 예전 현인의 많은 저술을 보니
차간전인다저술
誰將一處敢刪增　누가 감히 이곳에 시를 덧붙이겠는가
수장일처감산증
念空六界塵緣斷　생각은 비어 육계[1]의 진연이 끊기고
념공육계진연단
心卽千江月色澄　마음은 천강에 비친 달빛처럼 청정하다
심즉천강월색징
溪上有樓樓百尺　시냇가 누각은 백 척 높이로 솟았으니
계상유누누백척
如今高臥博陳登　이제 높이 누워 진등[2]을 짝할 만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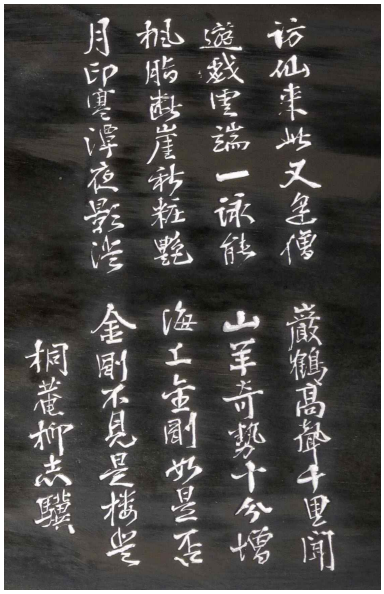
1) 육계(六界) :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근(六根)으로 각각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육경(六境)을 식별하는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의 여섯 가지 마음 작용을 말한다.

2) 진등(陳登) : 진등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사람이다. 국사(國士)의 이름을 지니고 있던 허사(許汜)가 진등을 찾아가서 냉대를 받고 돌아와서는 유비(劉備)에게 하소연하기를 "진원룡(陳元龍: 진등)은 호해지사(湖海之士)로서 아직도 호기가 없어지지 않았다. 나를 손님으로 대하려는 뜻도 없이 오랫동안 아

여금고와박진등

*조응화(趙應和): 1811(순조 11)~?. 본관 풍양(豊壤)이며, 자 선경(善卿)이다. 1846년(헌종 12)에 진사가 되었다. 음직으로 통천 군수(通川郡守), 장성 부사(長城府使) 등을 지냈다.

120. 동암(桐菴) 유지기(柳志驥) 제영시



訪仙來此又逢僧　신선 찾으러 이곳에 왔다가 스님을 만나니
방선래차우봉승
遊戲雲端一詠能　구름 끝에서 유희하며 시를 한 수 읊노라
유희운단일영능
巖鶴高聲千里聞　바위 학의 높은 소리 멀리 천리까지 들리고
암학고성천리문
山羊奇勢十分增　백양산 기이한 형세는 한층 빛을 더하누나
산양기세십분증
楓脂斷崖秋粧艷　단풍에 빛나는 벼랑은 가을 단장 어여쁘고
풍지단애추장염
月印寒潭夜影澄　달은 찬 연못에 비춰 밤 그림자도 청정하다
월인한담야영징
海上金剛如是否　바닷가의 금강산도 어찌 이와 같을 것인가
해상금강여시부

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는 큰 침상 위에 드러눕고 나는 그 아래 침상에 눕게 하였다."라고 불평을 하자, 유비가 "그대는 국사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면서 오직 전답과 가옥에 대한 일만 구하고 있다. 당신에게는 그 정도라도 대접을 잘해 준 것이다. 만약 내가 대접을 했더라면 나는 백 척 누각 위에 올라가 눕고 당신은 땅바닥에 눕도록 했을 것이다. 어찌 위아래 침상의 차이만 두었겠는가." 하였다. 《삼국지(三國志)》〈진등전(陳登傳)〉

金剛不見是樓登　금강산에서도 이런 누각 오르지 못하리라
금강불견시누등

*유지기(柳志驥): 생몰년, 행적 미상.

서거정의 백양사 관련 시[1)]

제목: 백암사(白巖寺)로 가는 전 상인(田上人)을 보내다[2)]

白巖在何處　백암사가 그 어드메에 있던고
백암재하처
一路入長城　한 길이 장성 고을로 접어들면
일로입장성
鳥外嶽重翠　나는 새 멀리 산이 겹겹 푸르고
조외악중취
鷗邊湖更明　갈매기 곁엔 호수 또한 맑을 걸세
구변호갱명
此身那復着　이 몸이 어찌 또 한 곳에 애착하랴
차신나부착
所在卽爲生　있는 그곳이 바로 삶의 고장인걸
소재즉위생
去謁道庵老　스님이 가서 도암 노인을 뵙거든
거알도암로
欣然倒屣迎　흔연히 신 거꾸로 신고 맞을 걸세[3)]
흔연도사영

제목: 백암사(白庵寺)로 돌아가는 도암 상인(道庵上人)을 보내다[4)] 5수.

서문

백암사는 고려(高麗) 시중(侍中) 행촌(杏村) 이 문정공(李文貞公)의 원찰(願刹)인데, 그의 아들 평재(平齋) 문경공(文敬公)과 손자 용헌(容軒) 국로(國老)가 각기 선인(先人)의 뜻을 이어서, 출가한 자손 중에 조행(操行)이 있는 자를 가리거나 혹은 승려 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간택하여 이 절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수호해 온 지가 이미 100여 년이 되었다. 지난번에는 행촌의 외증손(外曾孫)인 판선종사(判禪宗事) 송은(松隱) 몽대사(蒙大師)가 이 절을 주관하였고, 그의 고제(高弟)가 바로 도암(道庵) 성 상인(成上人)인데 송은이 도암에게 이 절을 전하였으니, 도암 또한 산문(山門)에서 숙망(宿望)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이 절에 머무른 지 지금 거의 30여 년에 이르는 동안, 도풍(道風)을 크게 선양함으로써 명성 높은 고승(高僧)들이 마치 비린내를 좋아하여 달려드는 개미들처럼 도암을 흠앙(欽仰)하여 서로 다투어 달려왔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거정(居正)이 예전에 흥천사(興天寺)로 송은을 찾아 뵈었더니, 송은이 거정

---

1) 서거정의 시 번역은《국역 사가집》(임정기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6)에 있는 내용임을 밝혀둔다.
2)《국역 사가집》8(임정기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6), 120~121쪽.
3) 흔연히 …… 걸세 : 삼국(三國) 시대 위(魏)의 채옹(蔡邕)이 뛰어난 재학(才學)으로 명성이 매우 높아서 빈객이 항상 문에 그득했는데, 일찍이 나이 어린 재사(才士) 왕찬(王粲)이 문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는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가서 그를 맞이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찾아간 빈객을 대단히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傳》
4)《국역 사가집》8(임정기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6), 150~153쪽.

을 족질(族姪)이라 하여 정성껏 대우해 주고 이어 송은에 대한 설(說)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송은은 다시 백암사로 가게 되었다. 그 후 거정이 설을 지어서 도암을 통하여 부쳐 드렸더니, 뒤에 송은이 거정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설이 노승(老僧)의 기본 취지에 잘 부합한다." 하고는 도암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송은이 시적(示寂)하였으므로 지금은 송은을 생각만 할 뿐 만날 수가 없으나, 도암을 만나니 애오라지 스스로 위로가 된다.

도암은 본디 양주(楊州) 불암리(佛巖里) 사람인데, 거정의 별업(別業) 또한 그 이웃에 있었다. 도암의 나이는 나보다 다섯 살이 아래인데, 왕래하며 서로 종유한 지가 거의 50년이 되었다. 상인은 항상 백암사에 머무르다가 혹 경사(京師)에 오거든 반드시 먼저 나를 방문하곤 했는데, 금년 봄에는 흥천사에 와서 결하(結夏)를 하고 가을 기후가 점차 서늘해지자 또다시 산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재차 찾아와서 나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백암사는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의 자손들이 대대로 수호하는 원찰인데 공(公) 또한 행촌의 외현손(外玄孫)이니, 공의 한마디 말씀을 얻어서 길이 산문의 광영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므로 거정이 말하기를 "행촌의 내외 자손으로 지금 조정에서 벼슬한 이는 몇 천백 인이요, 심지어는 왕실의 외척이 된 이도 있으니, 비록 거정 같은 하찮은 외손(外孫)이 아니라도 또한 반드시 그 일을 크게 빛내 줄 이가 있을 터인데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 그리고는 우선 절구(絶句) 5수를 써서 보내 드리고 겸하여 지주(地主) 조 사문(曺斯文)에게 부치는 바이다.

1
南國名藍是白庵　남국에 가장 이름난 절이 바로 백암사라
남국명람시백암
樓臺多少間晴嵐　수많은 누대 사이엔 남기가 어우러졌는데
누대다소간청람
何時鞋襪尋師去　언제나 짚신 버선 차림으로 스님을 찾아
하시혜말심사거
明月雙溪共軟談　밝은 달밤 쌍계에서 종용히 담론해볼꼬[1)]
명월쌍계공연담

2
秋風欲落湖水澄　가을바람은 점점 일고 호수는 하 맑은데
추풍욕락호수징
去去行藏一瘦藤　나그네 행장은 등나무 지팡이 하나로다
거거행장일수등
猿鶴滿山應悵望　온 산에 원숭이 학은 서글피 기다릴 테고[2)]
원학만산응창망
靑山依舊白雲層　청산은 예전대로 흰 구름이 겹겹일 걸세
청산의구백운층

---

1) 이 절에 쌍계루(雙溪樓)가 있는데, 이목은(李牧隱) 선생이 그 기문(記文)을 썼다.
2) 온 …… 테고 : 남제(南齊) 때 공치규(孔稚圭)가 북산이문(北山移文)을 지어 일찍이 북산에 은거하다가 변절하여 벼슬길에 나간 주옹(周顒)을 몹시 책망하는 뜻을 서술하면서 "혜초 장막은 텅 비어 밤 학이 원망하고, 산중 사람이 떠나가니 새벽 원숭이가 놀란다.〔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원숭이와 학은 곧 깊은 산중의 은자(隱者)의 처소를 의미한다.

3

天下聲名李杏村　천하에 명성 하 높았던 이행촌이거니
천하성명이행촌
宜敎願刹鎭長存　그 원찰을 의당 길이 보존시켜야 하는데
의교원찰진장존
子孫滿國多於織　나라 가득 자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자손만국다어직
且問何人衛守勤　묻노라 그 어떤 이가 부지런히 수호할꼬
차문하인위수근

4

松風蘿月護山門　송풍나월[1]이 산문을 보호하거니와
송풍라월호산문
何況深蒙地主恩　더구나 지주의 깊은 은택까지 입음에랴
하황심몽지주은
爲報斯文曹太守　위하여 사문 조 태수에게 알려드리노니
위보사문조태수
杏村吾亦外玄孫　나도 행촌의 외현손이 되는 사람이라오
행촌오역외현손

5

牧老雄文賁寺樓　목은의 큰 문장으로 사루를 잘 꾸몄는데
목로웅문분사루
三峯妙筆亦風流　삼봉[2]의 뛰어난 필치 또한 풍류가 있거니
삼봉묘필역풍류
莫將拙句高聲讀　내 졸렬한 시구를 큰 소리로 읽지 말게나
막장졸구고성독
知有山靈不點頭　아마도 산신령이 허여해 주지 않을 걸세
지유산령부점두

---

1) 송풍나월(松風蘿月) : 소나무에 부는 바람과 여라(女蘿) 덩굴에 걸린 달빛을 말한 것으로, 전하여 은자의 처소를 의미한다.
2) 삼봉은 정도전(鄭道傳)의 호로, 그가 일찍이 쌍계루(雙溪樓)의 기문을 썼다.

제목: 백암사(白巖寺)로 돌아가는 성 상인(成上人)을 보내다[1] 7수

1
長城渺渺隔湖南　장성 고을은 아득히 먼 호남에 있는데
장성묘묘격호남
古刹蕭條是白巖　이곳의 쓸쓸한 고찰이 바로 백암사인데
고찰소조시백암
政爾秋風吹更落　한창 가을바람이 나뭇잎 불어 떨칠 제
정이추풍취갱락
故山歸去更禪參　옛 산에 돌아가 다시 참선을 하겠네그려
고산귀거갱선참

2
一甁一錫仍一鞋　병 하나 석장 하나[2]에 신 한 켤레를 신고
일병일석잉일혜
蕭寺還同一鶴棲　절에 가서 다시 한 학과 함께 거처하겠네
소사환동일학서
臘雪滿山人不到　섣달 눈 산에 가득고 사람은 아니 올 제
납설만산인부도
山茶花下翠禽啼　산다화 아래서는 비취새가 울어 댈 걸세
산다화하취금제

3
蕩蕩乾坤送路賒　넓디넓은 천지간에 머나먼 길을 보내지만
탕탕건곤송로사
師行到處卽爲家　스님이야 가는 곳마다 그곳이 집이고말고
사행도처즉위가
挑包又向山中去　괴나리봇짐 싸고 또 산중으로 들어가니
도포우향산중거
流水浮雲天一涯　하늘 한쪽의 흐르는 물 뜬구름[3] 모양일세
류수부운천일애

4
師今贈我一烏笻　스님이 지금 내게 검은 지팡이 하나를 주니
사금증아일오공
鶴樣龍形自化工　학도 같고 용도 같아라 천성이 공교하네
학양룡형자화공

---

1) 《국역 사가집》10(임정기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8), 103~105쪽.
2) 병(甁) …… 하나 : 병은 승려가 사방을 돌아다닐 때에 반드시 휴대하는 물 항아리를 가리키고, 석장(錫杖) 역시 승려나 도사가 짚는 지팡이를 말한 것으로, 위에 여러 개의 쇠고리를 달았던 까닭에 석장이라 이름한 것이다.
3) 흐르는 물 뜬구름[流水浮雲] : 승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老病年來雙脚軟　연래엔 늙고 병들어 두 다리가 불편하니
로병년래쌍각연
扶携起立最多功　짚고 일어서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을 걸세
부휴기립최다공

5
一封雀舌十分香　한 봉함의 작설차는 더없이 향기로워서
일봉작설십분향
汲水閑煎折脚鐺　물 길어다 한가히 절각당에 달이노라니
급수한전절각당
魚眼已過生蟹眼　어안을 이미 지나서 해안이 솟아나기에[1]
어안이과생해안
啜來端可潤枯腸　마셔 보니 마른 창자를 윤택게 할 만하네
철래단가윤고장

6
杏村積德鐵城門　행촌이 철성 가문에 덕을 많이 쌓았는데[2]
행촌적덕철성문
今我三人亦外孫　지금 우리 세 사람은 또한 그의 외손일세
금아삼인역외손
願刹主僧成萬德　원찰의 주지승은 이름이 성만덕인데
원찰주승성만덕
也宜珍重護深恩　의당 깊은 은혜를 진중히 수호하겠지
야의진중호심은

7
爲報長城河使君　장성의 하 사군을 위하여 당부하건대
위보장성하사군
君於鐵李亦連姻　그대 또한 철성 이씨와 연인이 되거니
군어철이역련인
白巖願刹宜先護　백암사 원찰을 먼저 수호해야 할 걸세
백암원찰의선호
主寺今逢成上人　절 주지는 지금 성 상인이 되었데그려
주사금봉성상인

---

1) 어안(魚眼)을 …… 솟아나기에 : 어안과 해안(蟹眼)은 모두 물이 끓을 때에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크게 일어나는 기포(氣泡)와 게의 눈처럼 자잘하게 일어나는 기포를 말한 것으로, 소식(蘇軾)의 〈시원전다(試院煎茶)〉 시에 "게의 눈을 이미 지나서 고기 눈이 나오니, 설설 소리가 솔바람 소리와 흡사하구나.[蟹眼已過魚眼生 颼颼欲作松風鳴]"라고 하였다. 《蘇東坡詩集 卷8》 여기서는 어안과 해안이 소식의 시와 반대로 쓰였다.

2) 행촌(杏村)이 …… 쌓았는데 : 행촌은 고려의 재상으로 본관이 철성(鐵城)인 이암(李嵒)의 호이다. 백암사(白巖寺)는 행촌(杏村)의 원당(願堂)인데, 지금의 감사(監司) 이공 집(李公諿), 아사(亞使) 윤공 파(尹公坡)가 모두 행촌의 외현손(外玄孫)이고, 거정(居正) 또한 행촌의 외현손이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진호석연(震湖錫淵)스님 시

제목: 백양사 쌍계루 시에 차운하다[次白羊雙溪樓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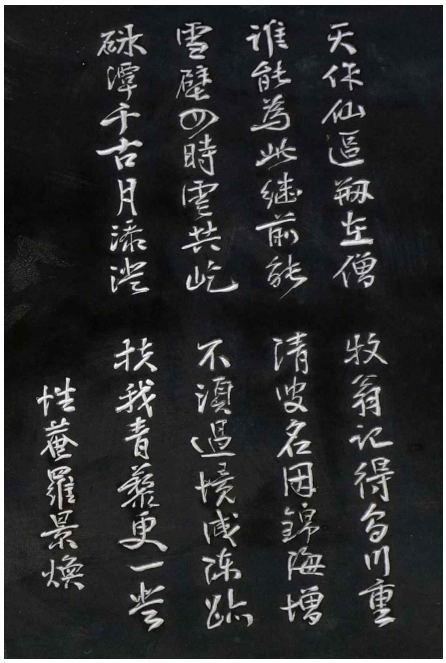
舊來南國幾高僧　옛날부터 남쪽지역에 고승이 몇이었나
구래남국기고승
別界樓臺亦有能　또한 별천지의 누각도 세울 수 있었네
별계루대역유능
境勝當年淸叟建　경관 빼어난 곳 당년에 청수[1] 스님 창건했고
경승당년청수건
世平今日錦師增　세상 화평한 오늘에 금해[2] 스님 중창 했다네
세평금일금사증
祥雲護塔峯常靜　상서로운 구름 탑 보호하매 봉우리 늘 고요하고
상운호탑봉상정
皓月籠軒水自澄　밝은 달 쌍계루 에둘러 물은 절로 맑구나
호월롱헌수자징
安得觀音千隻乎　어찌하여 관음보살의 천수천안을 얻으랴
안득관음천척호
提携多士共擎登　많은 선비들과 손잡고 함께 공경히 오르네
제휴다사공경등

*진호석연(震湖錫淵): 1880~1965. 진호스님은 <석문의범(釋門儀範)>을 비롯한 각종 불서(佛書)를 펴낸 진호스님은 대강백으로 명성을 떨쳤다. 188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소년 시절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공부했으며, 16세에 예천 용문사로 입산했다. 용문사에서 불경을 공부하다 발심하여 이듬해인 1896년 신일(信一)스님의 제자로 출가했다. 예천 용문사 강원에서 사교와 사집을 비롯한 전 과정을 두루 마쳤다. 이후 예천 용문사, 김천 김룡사, 문경 대승사, 의성 고운사, 양주 봉선사, 장성 백양사 등의 사찰에서 20여 년간 후학들을 지도했다. 경전 연찬은 물론 사회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30대에는 소금장수를 하며 수행과 포교를 겸했고, 40대에는 등유장수를 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불교의식 체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29년 상경하면서 부터다. 경성(지금의 서울) 서대문에 만상회(卍商會)라는 가게를 열어 불교서적의 번역과 출판은 물론 보급에도 힘썼다. 이 시절 <초발심자경문> <서장> <선요> <도서> <절요> 등 강원 교재를 펴냈다. 또한 <석문의범> <불자필람> <석문가곡> <다비문> 등의 의식집을 만들어, 전국 사찰의 불교의식이 통일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편 팔상록> <영험실록> <십지행록>도 발간했다.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사지(寺誌) 편찬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1927년 <봉선본말사지>를 시작으로 1937년 <도봉산 망월사지> <삼각산 화계사 약지>, 1942년 <유점사 본말사지> <전등본말사지> <동남산 미타사 약지>, 1943년 <봉은본말사지>, 1958년 <안양사지> 등을 간행했다. 이밖에도 안변 석왕사, 장성 백양사, 문경 김룡사의

1) 청수(淸叟) : 초명은 군보(君保)이시고 이름은 징(澄)이며, 호는 매촌(梅村) 이었으나 출가하시여 법명(法名)이 청수(淸叟), 법호(法號)가 운암대사(雲菴大師)이다. 청수는 고려 때 왕사(王師)인 각엄존자(覺儼尊者)의 조카로, 각엄존자를 모시다가 백양사의 주지를 지냈다. 경술년(1370) 비바람에 쌍계루가 무너지자 중수하고, 목은 이색(李穡, 1328 ~ 1396)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2) 금해(錦海) : 쌍계루를 중창한 백양사 스님이다. 광무 4년(1900)에 쌍계루를 재건했다.

본말사지도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온전한 원고로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해방 후인 1947년에는 서울 보문사에 개설된 비구니전문교육원에서 내전을 강의했다. 평생 역경과 저술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폈던 스님은 1965년 2월22일(양력) 오전3시 조용히 원적에 들었다.

성암(性菴) 나경환(羅景煥) 제영시



天作仙區刱在僧　하늘이 선경을 지어 창건을 스님께 맡기니
천작선구창재승
誰能爲此繼前能　누가 능히 이를 위해 전인의 자취 이을까
수능위차계전능
牧翁記得烏川重　목옹[1]의 기문은 오천[2]을 얻어 무거워졌고
목옹기득오천중
淸叟名因錦海增　청수[3]의 명성은 금해[4]로 인해 빛을 더했다
청수명인금해증
雪壁四時雲共屹　눈 빛 절벽은 사시에 구름과 함께 우뚝하고
설벽사시운공흘
砯潭千古月添澄　맑은 연못은 천고에 달빛으로 청정함 더한다
빙담천고월첨징
不須過境成陳跡　지나간 경계가 묵은 자취라고 여길 것 없나니
불수과경성진적
扶我靑藜更一登　청려장으로 이 몸 부축해 다시 한 번 오르네

---

1) 목옹(牧翁): 목은 이색(李穡)을 가리킨다. 청수 스님의 부탁으로 〈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長城縣白巖寺雙溪樓]〉을 지어 주었다.
2) 오천(烏川) : 포은 정몽주의 호이다. 정몽주가 쌍계루에 처음으로 시를 남겼다.
3) 청수(淸叟) : 쌍계루를 창건한 스님이다.
4) 금해(錦海) : 쌍계루를 중창한 백양사 스님이다. 광무 4년(1900)에 쌍계루를 재건했다.

부아청려갱일등

*나경환(羅景煥) : 1830(순조 30)~1906(고종 43). 호가 성암(性菴)이다. 조선 말기의 학자요 시인이다. 나주(羅州) 복암면 내동에서 나홍체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사람과는 달리 성격이 엄격하고 도량이 넓었다. 13세 때에는 그의 부친이 경서(經書) 공부에 힘을 기울이도록 했는데, 이로부터 사서오경을 깊이 깨치지 되었다. 자신의 영달과 부귀는 관심에도 없었고, 옛날 선비들의 학문을 이어받아 몸소 실천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물려준 학자요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교리 김동수, 승선 김헌규, 정언 김상희, 교리 박용주 등은 그의 문인들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들이다. 1939년에 간행된 시문집 《성암가장(性庵家藏)》이 있다. 잡저의 <천인위일변(天人爲一辨)>에서는 하늘에 사시(四時)가 있듯이, 사람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상도(常道)로 삼으니 하늘과 사람은 곧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유자경자설(遺子敬字說)>에서는 경(敬)은 마음의 주재(主宰)이며 만사의 근본이므로 경으로써 처사의 요체를 삼으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